조천진 및 연북정
복원·정비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2012

제 주 시

財團法人
濟州考古學硏究所
Jeju Archaeological Institute

제 출 문

제주시장 귀하

귀청에서 본 연구소에 의뢰한 **조천진 및 연북정 복원·정비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 12. 30.

재단법인 제주고고학연구소
소장 강 창 화

목 차

Ⅰ. 조사 개요 / 19

Ⅱ, 조천리의 지리적 환경과 조천진·연북정의 역사지리적 평가 / 21

Ⅲ. 조천진과 연북정의 역사 및 현황 / 34

1. 조천리의 형성과 그 연혁 / 34
2. 조천진의 역사와 현황 / 38
3. 연북정의 역사와 현황 / 46
4. 조천연대의 역사와 현황 / 48
5. 조천비석거리의 역사와 현황 / 50
6. 조천읍의 유적과 유물 / 53

Ⅳ. 조천진과 연북정 현황조사 / 64

1. 조천진 현황조사 / 64
2. 연북정 현황조사 / 67

Ⅴ. 유사 유적 사례 분석 / 93

Ⅵ. 조천진과 연북정의 정비와 복원 계획 / 103

1. 연북정 보수정비 현황 및 건물 특징 / 103
2. 조천진 및 연북정 복원범위 / 103
3. 조천진 및 연북정 인근 정비계획 / 111
4. 조천진 및 연북정 여타 활용방안 / 114

Ⅶ. 연차적 추진계획 / 118

1. 단계별 추진계획 / 118
2.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 119

Ⅷ. 종합 고찰 / 127

부 록

1. 조천진과 연북정 문화재지정 재검토(안) / 137
2. 제주 조천진성 및 내부 건물지 시굴조사 계획 / 141
3. 제주 조천진성 및 내부 건물지 발굴조사 계획 / 148
4. 자문위원 검토의견 / 155
5, 주민설명회의 내용과 의견 제시 / 158

조천진 및 연북정 복원 • 정비 계획 조감도



1. 조천진
2. 연북정
3. 비석거리
4. 주차장 (예정)
5. 용천수

요 약 문

본 용역의 명칭은 조천진 및 연북정 복원·정비계획 수립 용역이다. 용역의 목적은 현재 연북정 및 조천진성에 대한 현황을 측량조사하고 조천진 및 연북정 관련 문헌과 현장조사를 통해 문화재 지정 범위를 재검토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천진 및 연북정에 대한 보존 방안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는데 있다. 덧붙여 조천진 및 연북정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수립하고자 함이다.

용역의 시간적 범위는 조천진과 연북정의 조성시기 이전과 이후이고 공간적 범위는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0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이다. 용역 기간은 2012년 8월 7일부터 12월 30일이다.

본 연구의 조사단장[연구책임자]은 고창석(전 제주고고학연구소장,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역사학)이다. 연구원으로는 김태일(제주대학교 교수, 건축공학박사, 건축학)과 강창화(현 제주고고학연구소 소장, 고고학박사)가 참여하였다. 더불어 연구보조원으로 박근태(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부장, 박사과정 수료, 고고학), 보조원으로는 강성기(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교육전공 박사과정 수료, 인문지리학)와 이하나(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경주대 대학원 문화재보존과학과 석사과정 수료, 보존처리학)가 참여하였다.

더불어 본 용역의 자문위원으로는 신석하(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건축학박사, 건축학), 정광중(제주대학교 교수, 이학박사, 인문지리학), 권상렬(국립제주박물관장, 도문화재위원, 고고학)이 맡아 진행하였다.

본 용역은 과업지시에 따라 모두 5개의 주제와 추가로 1개의 연구 주제를 덧붙여 조사하였다. 연구 주제는 먼저 1) 조천리의 지리적 환경과 조천진성·연북정의 역사지리적 환경, 2) 조천진과 연북정, 그 주변 유적의 역사적 환경, 3) 조천진과 연북정 현황 및 실측조사, 4) 국내유적 중 유사유적 답사와 유적사례 분석, 5) 조천진과 연북정 정비와 복원계획, 6) 연차적 추진계획과 재원투자 계획(안)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부록으로 조천진과 연북정 문화재 지정 재검토 및 추가지정 제안, 조천진과 연북정 시굴 및 발굴조사 계획과 예산(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주제 1(조천리의 지리적 환경과 조천진성·연북정의 역사지리적 환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천진성의 중요한 역할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당시 주요 관문포구의 기능을 담당하는 조천포구와 주변 마을을 사수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주읍성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읍성을 방어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이다.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에서 조천진성의 입지적 특성이 드러난다.

② 조천진성은 제주도내의 다른 진성과 비교하면 비교적 작은 진성에 속하지만, 위치적 중요성에 근거하여 일찍이 조선 초기부터 방어의 요충지로서 설진되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입지적 특성에서 주어진 제주읍성의 방어와 관포(官浦)로서의 기능유지 등과 관련된 특별한 임무는 다른 진성과는

크게 차별화되고 있었다

③ 연북정은 제주도내에서 조선시대의 여러 건물들 중 관덕정과 함께 매우 드문 정자 형태의 건물이다. 이 점은 건축학적으로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연북정은 규모면에서 관덕정보다는 작은 정자 건물이지만 쓰임새는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④ 연북정은 정자 형태의 건물이지만 제주도의 전통 주거 양식인 초가집의 칸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건물이다. 오늘날 확인되는 연북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 구조로 돼 있고, 바닥은 마루를 깔고 있다. 단지 지붕의 형태는 팔작지붕으로 육지부의 건물에 많이 나타나는 양식인 동시에 조선시대 관아건물에서 많이 취하는 양식이다.

⑤ 연북정은 심적(心的)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지방과 중앙, 즉 제주와 한양 사이를 연결하는 상징적 건물이다. 연북정은 제주에 있는 신하(경우에 따라서는 유배인)가 한양에 있는 임금과 심적으로 소통하고 싶은 갈망과 소원을 표현하는 장소로, 또 국운의 성대와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연북정에 올라서서 그러한 기분을 느낄 수는 없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제주라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미있고 신성한 공간이었음에 틀림없다.

⑥ 조천진성과 연북정은 역사지리적 측면에서 입지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조천진성이나 연북정은 단순히 문화재라는 차원을 떠나 현세대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역사자원이자 문화자원이다. 따라서 현세대의 입장에서는 조천진성과 연북정을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혹은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시대적 사명을 떠안고 있다.

다음으로 연구주제 2와 3(조천진과 연북정의 역사적 기록과 현황조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문헌에 기록된 성곽 시설물과 연북정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世宗實錄》, 世宗21年 閏2月 壬午條에 보면 도내에 군이 주둔하는 곳은 본주의 동쪽은 金寧, 朝天館이고(《世宗實錄》, 世宗21年 閏2月 壬午條:濟州都安撫使 韓承舜啓曰 (中略) 道內軍人屯戍之處 則本州東則 金寧, 朝天館(後略).)

-『남사록(南槎錄)』: 을묘년(乙卯年, 명종 10년, 1555), "- 중략- 성(城)을 쌓아 방호소(防護所)를 설치하였다. 성의 둘레는 430여 척이고 높이는 10척이다. 성 안에는 우물이 없고 다만 동문만 있는데 문 위에 초루(譙樓)가 있다. 둘리어진 바닷물로 호(壕)를 삼았다. 방수(防守)하는 제도가 애월과 같았다."고 하였다. 조천포가 별도포와 함께 관항(官港)의 구실을 했던 것이다.

-『남사록(南槎錄)』 신축년(辛丑年, 선조 34년, 1601년 10월 12일자) "곧 조천포로 향하였다. 연북정(戀北亭)에 앉아서 쉬었다. 정자의 이름은 예전에 쌍벽(雙碧)이라 하였는데 목사 이옥 때에 세웠다. 전 목사 성윤문이 중수하고 옛 제도를 자못 늘려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편액하였다."고 하였다.

『탐라지』 제주목 성곽 항목에는 "조천성(朝天城)은 조천포에 있다.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428척 7촌, 높이가 9척 1촌이며 동쪽에 문이 하나 있다."고 하였다. 또 방호소 항목에는 "조천소(朝天所)의 성 안에 조천관(朝天舘)과 주구(廚廐)·군기고(軍器庫)가 있고, 동성(東城) 위에는 쌍벽루(雙碧樓)와 연북정이 있다."고 하였다.

- 정조 10년(1786)경에 편찬된『제주읍지(濟州邑誌)』제주목 진보(鎭堡) 항목에는“조천진의 성 안에는 객사(客舍)·군기(고)가 있고 동성 위에는 쌍벽루·연북정이 있다.”하였다. 여기서 객사라 한 것은 조천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 헌종 때(7년 3월~9년 6월) 제주목사였던 이원조(李源祚)의『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진보 항목에는“조천진은 삼면이 바다로 막히고 한 곳으로만 통행하였다. 문 위에는 초루를 설치하였고 성 안에는 조천관, 연북정, 군기고가 있다. …연북정은 곧 객사(客舍)이다. 예전에는 성 밖에 있었는데, 선조 23년(1590, 경인)에 이옥(李沃) 목사가 성을 수리하고 동성 위에 세워서 쌍벽(雙碧)이라 편액하였다. 그 뒤 선조 32년(1599, 기해)에 성윤문(成允文) 목사가 중수하고 연북(戀北)으로 고쳐 편액하였다.

- 李益泰,《知瀛錄》, 朝天館條를 보면 사면이 바다에 둘러져 海潮가 물러 가면 한쪽은 육지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거교(擧橋)를 만들어 이것으로 성문을 통했다. 그리고 많고 적은 사람들이 항해하여 왕래할 때 待風하는 곳이다. 그래서 방호소가 설치되었고, 조방장을 두었다. 성 주위는 428척, 높이가 9척이다.(李益泰,《知瀛錄》, 朝天館條: 四面環海 海潮退則 一方連陸 因作擧橋 以通城門此乃 大小人員 航海往來時待風所也 設防護所置助防將 城周四百二十八尺 高九尺.)

- 이를 요약하면, 조천 진성은 절제사 李沃(候)가 부임한 다음 해인 宣祖 23년(1590) 여러 공들과 협의하여 개축하였다. 그 일은 전 부장 徐萬鎰이 맡아 10월에 착공하여 겨울에 마쳤는데, 성곽을 동북쪽으로 퇴축하고 譙樓를 축조하였다. 결국 조천진성은 宣祖 23년(1590) 이전에 축조되었고, 이 때 성곽을 동북쪽으로 확장하면서 성내의 건물을 축조하는 등 재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탐라지(耽羅志)』,『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의 기록에 등장하는 성곽내의 건물은 조천관(朝天舘, 客舍, 迎賓舘)과 주구(廚廐)·군기고(軍器庫) 등이 있고, 동성(東城) 위에는 쌍벽루(雙碧樓,譙樓)와 연북정이 등장한다.

- 1702년에 이형상목사가 화공 김남길에게 시켜 제작된『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에 의하면 조천관[객사], 주구, 군기고, 쌍벽루[초루], 연북정과 더불어 동편에 연대, 해안에 정박한 사후선[官船]이 잘 묘사되어 있다.

덧붙여 성곽에 거교(擧橋)가 시설되었다는 사실을 李益泰,《知瀛錄》, <朝天館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성 주위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건너기 위한 교량 시설로 추정된다. 지금은 주변 지형이 심하게 형질 변경된 상태여서 그 흔적도 찾을 수 없다.

② 진성의 규모 및 시설에 대해 각종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하면《南槎錄》: 周 430餘尺, 高 10尺, 東1門,《耽羅志》: 周 428尺7寸, 高9尺1寸 東1門, 《濟州邑誌》: 周 428尺, 高7尺, 南置 1門,《濟州大靜旌義邑誌》: 周 240步,《耽羅誌草本》; 周 240步, 高9尺, 1門 《耽羅誌》: 周 428尺7寸, 高9尺1寸 東門1門,《濟州郡邑誌》: 周 428尺7寸, 高9尺1寸 東門1門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 이들 자료를 검토해 보면, 진성 개축 후 가장 빠른 기록인《南槎錄》에는 성곽의 규모는 둘레가 430尺, 높이가 10尺으로 되어 있다. 그 후에는 성곽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濟州大靜旌義邑誌》와《耽羅誌草本》에는 성곽의 둘레가 240步, 높이가 9尺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用尺의 차이로 인한 것이지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성문도 축조 때부터 東門 1門만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데,《濟州邑誌》에 ‘南置一門’이라고 한 것은 동문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③ 현장조사 결과, 조천진성은 해발 1~2m의 완만한 경사면인 남고북저(南高北低)의 지형 위에 위치하여 있고, 성곽의 북측은 해안에 접해 있다. 조천진성의 지적도와 현지조사에 의하면, 성의 평면형태는 남북을 장축으로 한 타원형이다. 조천진성의 성벽 내부면적은 2,472㎡이며 성벽의 둘레는 약 128m이다. 다만 남서쪽에 위치한 성문을 기준으로 하여 연북정을 포함한 둘레는 약 180m이다. 성곽은 대부분이 원형대로 남아 있다. 이 성곽의 남측 성벽 위에는 북녘의 한양을 바라보며 연군의 정을 기린다는 戀北停이 있다. 성문은 축조당시에 동문 1문으로 되어 있는 바, 지금도 동문지가 남아 있다. 성곽은 외벽 높이가 2.2~4.3m, 상부 폭이 1.6~3.1m이다. 축조방식은 제주도 현무암을 거칠게 다듬어 허튼층 쌓기로 협축하였고, 외벽의 기울기는 거의 직선형 성벽으로 단경사를 이루고 있다. 숙종 28년(1702) 목사 이형상(李衡祥)이 조천 진성을 순례할 때 그린 《耽羅巡歷圖》의 「朝天操點」에는 성 중에 연북정, 군기고 등 5동의 건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연북정을 제외한 당시 건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다.

④ 연북정에 대한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바닷가에 위치한 조선시대 정자이다.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 있다. 연북정은 客舍로 원래 朝天鎭城 밖에 지었다고 하나 창건 연대는 미상이며, 1590년(선조23)에 李沃 節制使가 성을 동북쪽으로 물려 쌓고 그 위에 옮겨 세워 雙碧亭이라 하였다. 그리고 1599년(선조 32)에는 成允文 목사가 그 건물을 중수하고 임금을 사모한다는 뜻으로 戀北亭이라 개칭하였다. 지금의 건물은 1973년에 보수한 것인데, 보수 당시 "龍嘉慶二十五年庚辰(순조 20년, 1820)二月十五日 辰時入柱上樑 虎"라 한 명문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연북정은 1820년(순조 20)에 마지막으로 보수된 듯하다.

- 이 정자가 세워져 있는 조천포구는 화북포와 함께 관원이나 도민들이 본토를 왕래하는 관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순풍을 기다리며 머무는 휴식처이기도 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이 정자가 경찰관주재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 연북정은 원래 높이 14척의 축대위에 남동향으로 정면(正面), 3칸, 측면(側面) 2칸으로 전후 좌우퇴(左右退)가 있는 제주 민가형 건물이다. 지붕이 합각지붕으로 된 것만이 민가와 다르다. 방형주초에 각주를 세우고 기둥머리에 퇴보를 놓고 여기에 직각으로 장여를 보내어 도리를 받쳤는데 사괘맞춤한 기둥이 도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바닥은 퇴칸이 토상(土床)이고, 내진(內陣)에는 우물마루로 해서 사방이 정자처럼 틔어 있으나 예전에는 석축벽(石築壁)을 둘러서 사용한 적이 있다.

- 중창기에 위하면 성벽위에 초루를 세워 이름을 '쌍벽(雙壁)이라 하고 무기고, 창고, 당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진내의 중심 건물로 지은 것으로 보인다. 내진고주의 보아지와 판대공의 투박한 마무리와 낮은 물매의 지붕, 단청도 없는 간결함이 이 건물의 특징이다.

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적 현황 및 실측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친진성 일정부분의 내외벽 실측 및 평면 및 단면 측량, 연북정 실측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주제 4(국내 유사유적 답사 및 유적복원 사례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진도 남도석성 답사와 사례분석 :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남도길 8-8 (남동리 149)에 위치하며 석성, 남문, 성내부시설인 관아(동헌) 및 객사군기가 자리하고 있다. 국가지정 제127호(지정일:1964년 6월10일)이다. 성벽과 남문지는 복원되었으며 내부 건물지(관아[동헌]와 객사군기)도 일부

복원되어 있다. 발굴조사가 일부 진행되고 있고, 성 내부의 민가에는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성 내부에 민가가 있어 적극적으로 복원 및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변에 위치한 선소(船所)유적과 사대(射臺)활터가 국가사적으로 추가 지정된 상태이다. 성 외곽에 흐르는 세운천에 세워진 단홍교과 쌍홍교가 특징적이다.

② 강진 전라병영성 답사와 사례분석 :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에 위치한다. 사적 제397호이다. 현재 북문과 서문이 복원중이며 남문과 동문은 복원이 완료된 상태이다. 내부 건물지(전체면적의 1/4가량)는 (재)한울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중이다. 특히 병영성은 서양에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소개했던 하멜이 1656년 강진 병영으로 유배되어 7년 동안 살면서 노역했던 곳으로, 주변의 '하멜 기념관'과 함께 하멜 관련 역사문화 유적지로서의 역할도 크다. 병영면에는 천연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된 수령 850여 년의 노거수인 비자나무가 있다. 나라에 큰 일이 있을때면 소리를 내어 운다고 하여 신목으로 불린다. 지방유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된 병영 홍교(일명 무지개 다리)는 보존 상태가 완벽한 병영의 명물이다. 하단부 중앙에는 정교한 용머리 조각이 새겨 있다. 앞으로의 성곽복원 방향을 제시하는 복원사례(기존 성곽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새롭게 복원된 부분과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게 함)이다. 내부 건물지 조사가 완료되면 건물지 복원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나주 만호정 조사와 유적 사례 분석 :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343-1에 위치하며 정자 1동과 안내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라남도 기념물 제145호(지정일 : 1992년 11월 30일)로 지정되어 있다. 마을입구의 평탄한 대지에 허튼층 막돌 토방을 다진 후 그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고졸(古拙)한 두리기둥으로 정면 어간은 좁게 퇴문은 넓게, 측면은 등문으로 기둥을 세웠다. 주두결구(柱頭結構)는 창방, 평방위에 연꽃무늬를 초각(草刻)한 절충식 이익공를 짰다. 그리고 그 위에 대들보, 종, 중보를 두고 측면에서는 홍예보 위에 판대공을 설치하여 칠량가를 형성하였다. 천장은 연등천장이고 지붕은 팔작와가(八作瓦家)이며 처마에는 부록(附錄)을 달아 장려함이 더하다. 이 정자는 동리형성(洞里形成), 성씨세장(姓氏世庄)의 목조정자로 비록 여러 차례 중건, 중수과정을 거쳤으나 건축양식이 고졸장대(古拙壯大)하며 영풍정자적(詠風亭子的) 성격과 아정(芽亭)으로서 휴식적 성격 및 향약시행 등의 규범적 성격이 중합된 마을의 다기능 정각(亭閣)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현재 만호정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예로 목재의 부식과 좀벌레에 의한 훼손이 심하다. 현재도 마을 정자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④ 화순 송석정 답사와 사례 분석 :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강성리 754번지에 위치한다. 정자 및 한옥, 안내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지정 문화재이다. 이 정자는 도곡면 월곡리에서 태어난 학포 양팽손의 증손인 양인용(梁仁容)이 광해군 등극 후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시키고 인목대비를 서궁으로 유폐시키자 이의 부당함을 충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1613년에 건립한 정자이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팔작지붕 정자이다. 최근까지 관람객을 위한 쉼터로 개방하였다. 앞의 한옥집을 관광객과 연계한 찻집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관광객의 감소로 현재는 관리동으로 이용되고 있다. 제주양씨 문중에서 새롭게 단청하여 산뜻하나 고풍스런 맛이 없어졌다.

다음으로 연구주제 5(조천진과 연북정의 정비와 복원 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조천진 및 연북정 복원 범위의 현황은 조천포구를 중심으로 바닷가가 매립되어 확장되는

등의 변화와 더불어 일주도로에서 비석거리 및 해변도로로 이어지는 도로의 확장 등 지형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조천진 주변에는 20여 채의 건축물이 있으나 아직 5층 이상의 건축물은 없어 환경 경관이 이전에 비해 많이 변화되었으나 여전히 경관상의 조건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복원의 범위와 제거대상 검토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현재 조천지역의 도지정문화재는 연북정을 비롯하여 조천연대, 조천비석거리, 황씨종손가옥[강창희가옥] 4건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1]을 살펴보면 조천진 및 연북정의 경우에는 조천진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주변지역은 1구역으로, 비석거리 주변은 2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③ 문화경관형성을 위한 축성에서의 적정 이격거리 검토 : 본 연구에서는 지형적 지리적 특성을 지닌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전통건축물의 고도에 따른 역사경관형성에 초점을 두었다. 건조물의 크기와 조망하는 사람과의 거리(距離)를 염두에 둔 역사경관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조천진이 정비 복원되었을 때 진입도로 부분을 중심으로 건조물을 여유있게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축성으로부터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건조물을 여유있게 바라볼 수 있는 앙각은 27°~30°이며 이를 기준으로한 산출식은 tanθ=H/D이다. 따라서 조천진성 높이는 14척 즉, 4.24m(H)이며 앙각θ을 30°로 하였을 때 적절한 이격거리(D)는 D=H/tanθ 즉, D=4.24m/tan(30°)≒7.45m로 산출된다. 즉, 축성으로부터 최소한 7.45m를 이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보다 여유있게 복원구조물을 감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7.45m가 끝부분에서 감상하는 최소한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H/tan(30°)는 개별건축물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군집의 건축으로 볼 경우는 tanθ=1/3 θ=18°가 적절하며 이것을 고려할 때 적당한 이격거리(D)는 13.23m가 된다.

④ 복원범위 : 1914년의 지적 및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바다 매립과 도로 확장에 의한 변화 이외에는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그림8), 복원의 범위와 복원방법에 따라 양호한 문화경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과 범위, 앙각적용 등 여러 기준으로 복원의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법규상의 규제와 민원 등 현실성을 고려하여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과 범위를 토대로 검토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앞서 검토 제시된 이격거리 13.23m는 문화재를 바라보기 위한 적절한 이격거리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 및 주변경관을 시야에 넣을 경우 좀 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제시된 이격거리의 1.5배~2배 정도 즉, 19.85m~26.46m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조건들을 고려할 때 원지형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경 100m이내를 중심으로 복원정비 및 관리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우선적으로 반경 25m이내를 집중적으로 복원정비하고, 반경25m~50m 지역과 50m~100m 지역으로 구분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복원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주변 시설물 제거대상 : 법규상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고려할 때 1구역은 원지형 보전지역이어서 사유재산권의 침해소지가 많다. 그러나 복원범위에서 제안하였듯이 반경 25m이내의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소재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2011년 12월.

집중적 복원정비지역에 있어서는 조천진 및 연북정의 역사경관 조성 및 복원사업 등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어서 1차 제거대상으로 판단된다. 1차 제거대상의 면적은 9필지 798평(2,633㎡)이다. 조천진성 주변의 건축물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인접해 있는 2개의 블록이 제거대상의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며 개별건축물의 경우 조천진성벽에 밀착된 형태의 건축물 2동, 근접배치된 건축물 대략 9동 정도가 우선적인 제거대상으로 생각된다. 현황조사와 아울러 Arc GIS를 이용해 연북정을 중심으로 문화재구역을 중심으로 300m범위 내를 분석한 결과, 대략 100m범위 내에는 13채의 건축물이 있으며 이들 건축물 역시 1차 제거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거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차적으로는 반경 25m이내의 집중적 복원정비지역 범위 내의 건축물, 2차적으로는 100m범위 내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제거해야한다. 2차 제거대상은 6필지 328평(1,82㎡)이다. 또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을 중심으로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부지매입과 함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⑥ 조천진 및 연북정 정비 기준은 우선 원칙1(탐라순력도 등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조천진 및 연북정의 위치를 파악하고 관련문헌에 근거하여 초루의 위치와 양식을 검토한다.), 원칙2(조천진 축성 정비는 다른 진성의 축성방식을 참고하고 아울러 양호하게 보전되어 있는 조천진 축성 부분을 측량하여 비교 검토한다.), 원칙3(주변환경정비는 1차적으로 조천진에 근접해 있는 건축물을 제거하고 2차적으로 도지정문화재 변경 허용기준의 2구역에 포함된 인접블록내의 건축물을 제거한다.), 원칙4(가능한 한 옛길을 복원하고 옛길을 중심으로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 조천비석거리, 조천연대, 황씨종손가옥(강창희가옥)으로 연결되는 보행자 중심의 길을 자연스럽게 정비한다. 특히, 옛길 복원 검토 시에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올레 18코스가 인접해 있는 조천연대를 제외한 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올레 18코스를 중심으로 옛길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되 조천연대로 이어지는 길도 포함하여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 원칙5(옛길 정비는 도로포장 제거와 같은 토목공사 중심의 과도한 정비가 되지 않도록 하며 안전사고예방에 초점을 두어 최소한의 정비가 되도록 한다.)에 맞추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⑦ 조천진과 연북정 정비범위는 4단계로 추진한다. 우선 1단계로 반경 100m 이내를 범주에 두고 조천진 축성정비 및 연북정의 진입부 위치 수정, 조천진 인접건축물의 제거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다음 2단계로 옛길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고 보행환경정비에 집중하면서 반경 200m~300m 범주 내의 역사경관조성을 위한 환경 및 안내판 등을 정비한다. 이어지는 3단계 는 옛길 살리기를 중심으로 조천 지역 내에 분포하는 도지정문화재와 연결하고 아울러 화북포구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한다.

⑧ 문화재 안내소의 위치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역사공원으로 조성 정비되는 비석거리 앞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재 안내판의 내용은 연구주제 2와 3(조천진과 연북정의 역사적 기록과 현황조사)에서 제시한 내용을 축약하여 별도 제작한다.

⑨ 녹지공간의 범위와 위치는 조천진성 정비 계획에 따라 역사경관을 훼손하는 건축물을 제거하게 되면 빈터로 남게 된다. 이 구역은 최소한의 주차장과 편의시설, 그리고 문화재 안내소 등이 설치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작은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녹지공간은 철거대상 건축물로 제시되었던 2개의 블록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녹지공간의 조성면적은 대략 1,356평(4,494㎡)으로 예상된다.

⑩ 조천진 및 연북정 여타 활용방안은 조천진성-조천포-화북포의 연계(네트워크) 코스개발, 조천진 및 연북정의 스토리텔링화 작업, 홍보책자의 발간 등이다.

다음으로 연구주제 6(조천진과 연북정의 정비와 복원에 따른 연차적 추진 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천진성과 연북정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과 전략을 기초로 하여 조천진성과 연북정 종합정비계획, 문화재 활용방안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추진 단계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

② 단계별 추진계획 제1단계(2013. 1. 1. ~ 2014. 12. 31)는 조천진 및 연북정 복원·정비 기본 실시설계 착수, 환경영향성 검토,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발굴조사 허가를 신청한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 후 시굴조사 추진, 2013년 조천진성 내부 및 연북정 주변, 동문지에 대해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 2014년에는 조천진성 내부 및 연북정, 동문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2014년)한다.

③ 제2단계(2015. 1. 1 ~ 2016. 12. 31.)에는 조천진 내부 및 연북정 주변 발굴조사에 따른 복원 정비 방향 검토, 조천관[객사] 및 무기고 복원에 따른 실시설계 및 복원 사업추진, 연북정 계단시설 위치 변경 및 연북정 해체·복원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④ 제3단계(2017. 1. 1 ~ 2018. 12. 31)에는 조천진성 동남쪽에 위치한 동문 복원에 따른 실시설계 및 복원사업 추진, 조천진성 부실성벽 기초 발굴조사와 이에 따른 부실 및 훼손부분 성벽 복원 추진, 조천관[객사]을 활용한 자료전시관 기본·실시계획 수립 및 자료전시관 건립 추진 사업이 필요하다.

⑤ 마지막 제4단계(2019. 1. 1 ~ 2020. 12. 31.)에는 조천진성 및 주변 문화유적 정비, 복원 사업 마무리 작업 추진, 문화재 경관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문화재 자원화[활용] 사업추진, 제주성[성안]-화북진-조천진과 연북정을 연결하는 문화재 네트워크 프로그램 추진 등의 사업이 요구된다.

⑥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투자 예산은 다음의 표와 같다.

총사업계획				사업량과 투자비(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량 (㎡)	사업비 (백만원)	1단계 (2013-2014년)		2단계 (2015-2016년)		3단계 (2017-2018년)		4단계 (2019-2020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10,244		644		5,900		2,000		1,500
기본 실시 설계 및 발굴 조사	소 계		2,644		594		-		1,050		1,000
	주변부 토지 매입	10,000	2,000					5,000	1,000	5,000	1,000
	조천진성·연북정 복원과 활용 기본 실시설계 용역	1식	100	1식	100						
	진성내 시굴조사	220㎡	24	220	24						
	진성내 발굴조사	2200㎡	400	2200	400						
	동문지 발굴조사	200㎡	70	200	70						
	성벽기초 유실부 발굴조사	100㎡	50					100	50		
조천진 연북정 문화재 정비·복원	소 계		6,550		50		5,900		250		350
	조천관[객사]복원	165㎡	1,000		50	165㎡	1,000				
	군기고[주구]복원	627㎡	3,800			627㎡	3,800				
	조천진 동문복원	80㎡	400			90㎡	400				
	연북정 해체복원	100㎡	600			100㎡	600				
	연북정 계단복원	20m	100			20m	100				
	성벽부 해체복원	100m	500					50m	250	50m	250
	문화재안내판 정비	10개소	50	10개소	50						
	문화재안내소 건립	75㎡	100							75㎡	100
문화 자원화 계획 수립	소 계		1,050		-		-		700		150
	조천관[객사] 내부 전시자료관 실시 설계 용역	1식	50					1식	50		
	조천관[객사] 내부 전시자료관 건립	165㎡	500					165㎡	500		
	조천진 주변 문화재 및 녹지공간 정비	10,000㎡	300					5,000	150	5,000	150
	조천진과 연북정 스토리텔링 개발	1식	100						1식	100	
	성안-화북포-조천포 네트워크 코스개발	1식	100						1식	100	

※ 조천진성내 객사(영빈관)와 주요 건물의 복원비는 발굴조사 후 정확한 비용 산출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현재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그림을 참조할 때, 기와건물 2동의 복원 추정비는 대략 48억(792㎡(240평)>×2천만원)이다. 더불어 조천진성내 건물의 복원순서는 동문지가 우선 순위지만 성문이 협소하여 조천관과 군기고의 복원작업이 끝난 후 복원함이 타당하다.

덧붙여 조천진과 연북정 문화재 지정 재검토 및 추가지정 계획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문화재 추가지정 필요성 : 현재 문화재 지정은 연북정만을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 있고 조천진은 연북정 보호구역 중 일부로만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연북정을 감싸고 있는 성곽인 조천진이 당초 문화재 지정에서 제외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동일 위치에 소재한 유적간 연계성 확보 차원과 차별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추가지정이 필요하다.

② 문화재 보호구역 변경 제안 : 연북정 보호구역은 2690번지 1필지만을 지정함으로써 조천진 성벽 상당부분이 미포함되어 있고 또 현재 연북정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등은 정확한 측량을 근거로 설정하지 않은 듯 다소 불합리한 경계로 선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가 기준점(국토지리정보원 설치 GPS 상시관측소)을 이용한 GPS 현황 측량 결과에 따라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연북정과 조천진 성벽을 충분히 감싸고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재 연북정에 국한되어 있는 문화재구역을 조천진 성벽전체까지 포함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Ⅰ. 조사 개요

1. 용역의 명칭 : 조천진 및 연북정 복원·정비계획 수립 용역

2. 용역의 목적

1) 현재 연북정 및 조천진성에 대한 현황 측량조사
2) 조천진 및 연북정 관련 문헌 및 현장조사를 통한 문화재 지정 범위 재검토
3) 조천진 및 연북정에 대한 보존 방안 및 활용방안 수립
4) 조천진 및 연북정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투자전략 수립

3. 용역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조천진과 연북정의 조성시기 이전과 이후
- 공간적 범위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0번지 일원

4. 용역 기간 : 2012년 8월 7일부터 12월 30일(146일)

5. 연구진의 구성

1) 자문단
- 자문위원 : 신석하(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건축학박사, 건축학)
- 자문위원 : 정광중(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이학박사, 인문지리학)
- 자문위원 : 권상렬(국립제주박물관장, 도문화재위원, 고고학)

2) 조사단
- 조사단장 : 고창석(전 제주고고학연구소장,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역사학)
- 연 구 원 : 김태일(제주대학교 교수, 건축공학박사, 건축학)
- 연 구 원 : 강창화(제주고고학연구소 소장, 고고학박사, 고고학)
- 연구보조원 : 박근태(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부장, 박사과정 수료, 고고학)
- 보 조 원 : 강성기(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과교육전공 박사과정 수료, 인문지리학)
  이하나(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경주대 대학원 문화재보존과학과 석사과정 수료, 보존처리학)

 - 19 -

6. 연구 내용

가. 조천진 및 연북정의 건립과 변천사를 조사한다.
1) 조천진 및 연북정에 대한 고문헌 자료를 조사하고 집중 분석한다.
2) 조천진 및 연북정 관련 보수정비 현황과 건물 특징 등을 검토한다.
3) 조천진 및 연북정과 관련된 자료(사진, 지적, 메모 등)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나. 조천진 및 연북정에 대한 복원 타당성을 제시한다.
1) 조천진 및 연북정의 단계별 복원 시점과 그 타당성을 제시한다.
2) 조천진 및 연북정의 복원 대상을 선정하고 복원 범위를 제시한다.
3) 조천진 및 연북정 복원시 제거 대상이 되는 건물, 토지 현황자료를 제시한다.
4) 조사한 조천진 및 연북정에 대한 복원・정비 조감도를 작성한다.
5) 현재의 연북정 및 조천진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다.
6)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다.

다. 조천진 및 연북정 부지내 발굴대상지를 선정하고 발굴조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 조천진 및 연북정에 대한 발굴조사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2) 조천진 및 연북정에 대한 단계별 발굴조사비를 산정한다.

라. 조천진 및 연북정의 보존 관리와 활용계획을 제시한다.
1) 조천진 및 연북정에 대한 문화재 지정 범위를 재검토한다.
2) 조천진 및 연북정의 안내표지판 문안을 작성하고 설치 위치를 제시한다.
3) 조천진 및 연북정, 주변의 정비 계획도를 병행 제시한다.
4) 조천진 및 연북정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마. 조천진 및 연북정의 보존과 복원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유사 사례를 비교한다.

바. 조천진 및 연북정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투자전략을 수립한다.

 - 20 -

Ⅱ. 조천리의 지리적 환경과 조천진·연북정의 역사지리적 평가

1. 위치와 면적

조천리는 제주도 북동쪽에 위치한 조천읍의 10개 법정리 중 하나이며 조천읍에서 정북방향에 자리 잡고 있다. 수리적 위치로 보면, 동경 126°35′와 126°40′사이, 북위 33°23′와 33°33′사이로 나타난다. 조천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쪽으로는 함덕리와 신흥리, 서쪽으로는 신촌리, 남쪽으로는 대흘리와 와흘리, 북쪽으로는 해안과 접해있다(그림 1). 조천리는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약 12km 떨어져 있으며 차량으로 20분 정도면 도착하는 제주시의 근교지역이다. 또한 조천읍에서 신촌리, 신흥리, 함덕리와 함께 해안을 끼고 있는 반농반어(半農半漁)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조천리의 면적은 2012년 8월 현재 7.5㎢로 조천읍 소속 10개의 법정리 중 신흥리(1,1㎢) 다음으로 작으며, 조천읍 전체 면적의 약 5%를 차지한다. 조천읍 내에서 조천리와 비슷한 크기의 마을로는 북촌리(7.8㎢)와 신촌리(7.9㎢)가 있다.



〈그림 4〉 조천리 위치

자료: http://jejuvill.net

조천리의 지목별 면적현황은 〈표 1〉과 같다. 여러 지목 중에서 밭이 2.75㎢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과수원(1.74㎢), 임야(1.70㎢), 대지(0.43㎢), 묘지(0.13㎢) 순으로 차지한다. 여기서 밭과 과수원이 전체 면적 중 60.1%를 차지한다는 점은 조천리 마을 주민들이 주로 농업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표 1〉 조천리 지목별 면적 현황(2012년)

(단위 : ㎡)

밭	논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 지	공장용지
2,758,919	982	1,742,044	18,122	1,703,362	433,489	12,505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제방	하천
9,974	1,103	2,886	39,113	467,538	909	0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754	60,742	5,887	197	0	11,930	0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합 계	-	-
12,310	0	138,021	51,970	7,472,757	-	-

자료: 제주시청 내부자료(2012).

2. 기후와 지형적 특징

제주도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여 몬순(monsoon) 영향을 많이 받는 동안기후의 특징을 보이는 동시에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성기후의 영향도 크게 반영되어 나타난다. 또한 한라산과 쿠로시오 해류로 대표되는 기후인자의 영향으로 한반도와는 상이한 기후를 형성하는 동시에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제주도의 지역별 기후자료는 24개소에서 측정한 기상관측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천리의 개별적 기상관측 자료가 없는 상황 속에서 마을단위의 기후나 기상상황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제주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조천리의 기후를 살펴보면, 연평균기온은 15~16℃, 연평균풍속은 3~4m/s, 연강수량은 1400~1500mm 정도로 파악된다(제주지방기상청, 2010: 24-27). 제주도 북부지역은 겨울에 서고동저형 기압배치로 출현하는 탁월풍인 북서풍이 연중 최다풍을 이루는 반면, 봄과 가을의 탁월풍은 북고남저(北高南低) 형의 기압배치에 의해 동풍계열이며 하계에는 남서풍~남동풍계열의 탁월풍을 이룬다(북제주군, 2000: 129). 조천리 또한 제주도 북부지역에서 나타나는 계절별 탁월풍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해안가에 위치하여 겨울철 북서풍의 영향이 심한 편이다.

제주도는 현무암에서 조면암까지의 마그마 진화과정을 1회(回)의 화산활동을 통해 볼 때, 약 100만 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크게 4회의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열점에서 반복된 화산활동의 분출물이 사방으로 흘러나가면서 섬의 면적과 높이가 더해지며 오늘날의 지형을 이루게 되었다.

화산활동의 제1기는 약 120만 년 이전부터 70만 년 전까지이며, 주로 수성 화산분화로 만들어진 현무암질 응회암이 수중에 쌓여 기저(基底) 현무암이 형성되었다. 제2기는 약 70만 년 전부터 약 40만 년 전까지로, 화산분출물이 해수면 위까지 쌓이게 되면서 섬은 바다 위로 모

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 때 분출된 용암은 표선리를 포함한 해안 저지대를 비롯하여 제주도 장축선상의 동부와 서부에 넓게 분포하였다. 제3기는 약 40만 년 전부터 약 16만 년 전까지이며, 마그마의 분화중심이 섬의 중앙부로 옮기면서 한라산체가 점점 높아졌고, 이 때 분출된 용암이 제주도의 북부를 더욱 넓혀가는 과정에서 제주도 면적도 한층 더 넓어지게 되었다. 제4기는 12만 5천 년 전부터 약 2만 5천 년 전까지로서, 섬의 장축 방향에 주로 분포하는 많은 단성화산을 통해 엄청난 양의 현무암질 용암류가 분출한 후, 250여개 이상의 오름이 형성된 시기이기도 하다(윤성효·이문원·진명식·안웅산, 2010: 32-35).

이상과 같이 조천리와 주변지역이 지표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는 제2기의 표선리현무암이 분출되면서이다. 조천읍 산간지대에는 제3기에 분출한 한라산현무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조천리와 같은 해안지대는 대부분 제4기에 소규모 화산활동과 함께 형성되었다(제주도·한국자원연구소, 1998: 11,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1: 29). 1998년에 제주도와 한국자원연구소가 발행한 제주·애월도폭 지질보고서 내 지질도에 의하면 조천리 지질을 구성하는 암석은 신안동현무암, 신촌리현무암, 신흥리현무암, 대흘리현무암, 와흘리현무암이 혼재되어 있다. 조천리는 암반이 많고 토심이 깊지 못하여 집중강우 시에는 저지대로 물이 집수되면서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기도 한다. 조천리는 제주의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한라산 방향으로 갈수록 지형이 높아지면서도 오름과 같은 높은 지형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기도 하다.

제주도의 토양은 보통 화산회토와 비화산회토로 구분할 수 있다. 화산회토는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다양한 화산쇄설물과 부석, 화산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화산회토는 현무암 풍화토이다. 이 두 토양은 토색으로 보면 화산회토는 농암갈색토, 갈색삼림토, 흑색토로, 비화산토는 암갈색토(현무암 풍화토)로 재분류할 수 있다. 농암갈색토는 서귀포시·남원읍·안덕면·표선면 등 해발 100~600m에 많이 분포하고, 갈색삼림토는 한라산에 주로 분포 분포하며, 흑색토는 표선·성산 등 동부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암갈색토는 북부와 북서부에 분포하고 있다(안중기, 2006: 18-20). 토양에 따른 농업생산력은 암갈색토ㅡ농암갈색ㅡ흑색ㅡ갈색삼림토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정광중, 2012: 395).

조천리의 토양은 대부분 암갈색토가 분포하고 있으며, 1:25,000 지형도를 살펴보면 마을주민들은 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마늘과 콩, 깨 등의 밭농사를, 1132호 일주도로 남쪽부터는(해발 15~30m이상) 대부분 감귤농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들은 겨울철 해풍의 피해로 인해 감귤농사를 비교적 해발고도가 높은 내륙지역에서 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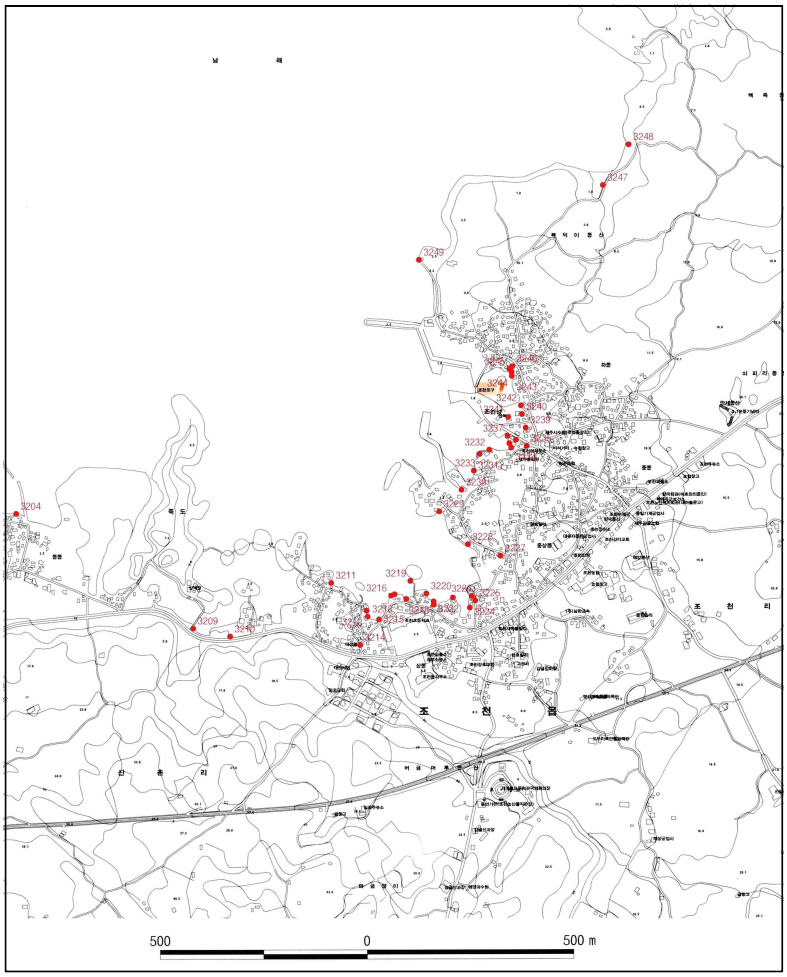
3. 용천수 분포 현황

조천리는 제주도에서 용천수가 가장 많은 마을이다. 조천리 용천수는 41개이며 이는 조천읍 내 83개의 용천수 중 약 5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한경면 내에 분포하는 용천수와 같은 수준이다. 이처럼 제주의 용천수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1988년 상수도 보급이 완비되기 전까지만 해도 마을주민들에게는 식수와 빨래 및 목욕용 물로 자주 애용되었다. 더불어 조천리의 많은 용천수는 과거부터 조천리 인구부양력의 한 요인으로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와 〈표 2〉는 조천리 용천수의 위치와 분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조천리의 용천수들은 조천포구와 포구 남서쪽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천수의 분포는 결국 취락이 밀집된 배경과도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조천리의 거의 모든 용천수

 - 23 -

는 해발고도 5m 이하의 조간대에 분포하고 있어 해수의 움직임에 따라 주민들이 용천수 사용시간은 제한되었다.

용천수의 평균 용출량은 1일 2,000㎥ 이상이 6곳, 1,000~2,000㎥가 4곳, 1,000㎥ 미만이 20곳이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용천수도 11곳이나 된다. 또한 보존 상태는 27곳이 양호한 상태로 조사되어 있지만, 1999년 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현 시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최근에 현장에서 살펴본 많은 용천수들이 둘레에 돌담을 쌓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조천리 용천수(🔴) 위치 현황
자료: 제주도, 1999, 『제주의 물, 용천수』, p. 241.

조천리 용천수의 용도를 보면 생활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현지조사 결과, 과거에 비해 주민들이 용천수를 사용하는 빈도는 현저히 떨어져 있으며, 큰물 등의 몇몇 용천수만이 여름철에 남성들을 중심으로 목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2].

조천리에 많은 용천수가 분포하고 있음은 과거 용천수를 자주 사용하던 시절에는 용천수마다 집중되던 주민들의 수가 다른 마을에 비해 비교적 분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용천수를 통한 조천리의 자연환경은 과거부터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을형성과 변천과정

조천리 마을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나 오창명(2007)은 조천리에 조천관(朝天舘)이 있어 '조천관ᄆᆞ을(朝天舘里)'이라 하다가 후에 '조천ᄆᆞ을(朝天里)'로 바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천관은 문헌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탐라지』에는 고려 공민왕 23년(1374)에

2) 2012년 11월 19일 조천리사무소 사무장과의 인터뷰 내용임.

- 24 -

〈표 2〉 조천리의 용천수 분포 현황

연번	용천수명	표고(m)	평균용출량(㎥/일)	보존상태	용도	이용시설
1	광지동산물	0.5	24	양호	수산용	보호시설
2	궷물	1.3	760	양호	수산용	보호시설
3	절간물	0.4	1,212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4	수룩물(1)	0.6	1,847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5	수룩물(2)	1.3	1,170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6	서낭당물	4.3	자료 없음	위치멸실	고갈/멸실	고갈/멸실
7	앞빌레물	1.1	2,722	양호	생활용	보호시설
8	억물(1)	0.0	2,371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9	억물(2)	0.0	3,477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10	억물(3)	0.0	5,570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11	제주자리물	0.0	888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12	가마귀물	0.0	200	양호	미이용	보호시설
13	새물	0.0	자료 없음	위치멸실	고갈/멸실	고갈/멸실
14	말물	0.3	300	양호	미이용	집수/보호시설
15	두말치물	0.0	150	양호	미이용	집수/보호시설
16	되물	0.4	2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17	고두물	0.3	자료 없음	위치멸실	고갈/멸실	고갈/멸실
18	솔박물	0.3	자료 없음	위치멸실	고갈/멸실	고갈/멸실
19	저녁물	2.4	자료 없음	위치멸실	고갈/멸실	고갈/멸실
20	퐁퐁물	0.4	50	양호	미이용	없음
21	남자목욕탕(1)	1.1	300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22	억물(4)	1.5	2,860	양호	미이용	집수/보호시설
23	도릿물	0.4	44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24	절간물(1)	0.8	460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25	절간물(2)	0.1	5	수량부족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26	두말치물	3.0	640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27	진물	4.0	자료 없음	위치멸실	고갈/멸실	고갈/멸실
28	생이물	2.7	자료 없음	위치멸실	고갈/멸실	고갈/멸실
29	장수물	1.6	400	양호	미이용	집수/보호시설
30	남자목욕탕(2)	2.0	2	수량부족	미이용	보호시설
31	정중당물	2.7	자료 없음	위치멸실	고갈/멸실	고갈/멸실
32	구시물	2.3	자료 없음	위치멸실	고갈/멸실	고갈/멸실
33	무명	0.8	5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34	도릿물	1.0	자료 없음	위치멸실	고갈/멸실	고갈/멸실
35	생이물	0.7	150	양호	생활용	없음
36	빌레물	1.1	100	양호	생활용	보호시설
37	작은돈지물	1.1	1,000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38	큰물	1.1	2,961	양호	생활용	집수/보호시설
39	하리비개물	0.7	600	양호	미이용	없음
40	이들물	2.0	300	양호	미이용	없음
41	새코지물	0.0	자료 없음	위치멸실	고갈/멸실	고갈/멸실

주: 1999년 조사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제주도, 1999, 『제주의 물, 용천수』, pp.136-140.

절제사 이옥(李沃)과 조선 선조 32년(1509)에 목사 성윤문 등이 여러 번 중수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세종실록』(21년)에도 조천관을 확인할 수 있고, 『중종실록』(5년)과 『신증동

국여지승람』(1530년)에는 조천관포(朝天舘浦: 조천관개), 「탐라지도」에서는 조천관리(朝天舘里), 「제주지도」와 『제주군읍지』「제주지도」 등에서는 조천리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조천관이 방호소와 수전소로 이용되었고, 『탐라지』에는 조천에 과원이 있었으며, 『탐라지초본』에는 조천연대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오창명, 2007: 323-224). 이러한 기록들로 보아 조천관은 늦어도 14C 초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천리를 조천관의 존재와 연결시켜 본다면, 마을의 형성 시기는 적어도 14C 이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옛 조천리의 일부가 신흥리로 분리되고 나머지 지역은 조천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조천리는 상동, 중상동, 중동, 하동, 신안동, 봉소동, 양천동 등 7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오창명, 2007: 325-326). 본동(本洞)에는 상동, 중상동, 중동, 하동이 속해 있는데, 1:25,000 지형도를 살펴보면 4개의 자연마을(본동)은 모두 해발고도 20m 미만 지구이면서 동시에 1132호 지방도(일주도로) 북쪽 해안가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신안동, 양천동, 봉소동은 해발고도 50~70m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각각 남서, 정남, 남동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더불어 신안동, 양천동 및 봉소동 주변에는 주로 감귤 과수원이 집중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조천리 주민들은 신촌리와 함덕리를 연결하는 1132호 지방도가 개설된 이후에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조천리는 그저 지나쳐 지나가는 곳으로만 인식하게 되면서 마을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최근 조천리에서는 마을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며 노력을 쏟고 있다.

5. 인구변화의 실태와 특징

조천리의 인구는 2012년 11월 현재 5,110명으로 남자는 2,532명, 여자는 2,578명으로 성비는 100:102로 확인된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조천리의 인구는 조천읍 인구의 2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조천읍 중에서 함덕리(29.2%) 다음으로 많은 인구수이다. 함덕리와 조천리의 인구수는 제주도 전체 읍면지역의 마을(리)에서도 1, 2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농어촌지역의 마을 중에서는 많은 인구를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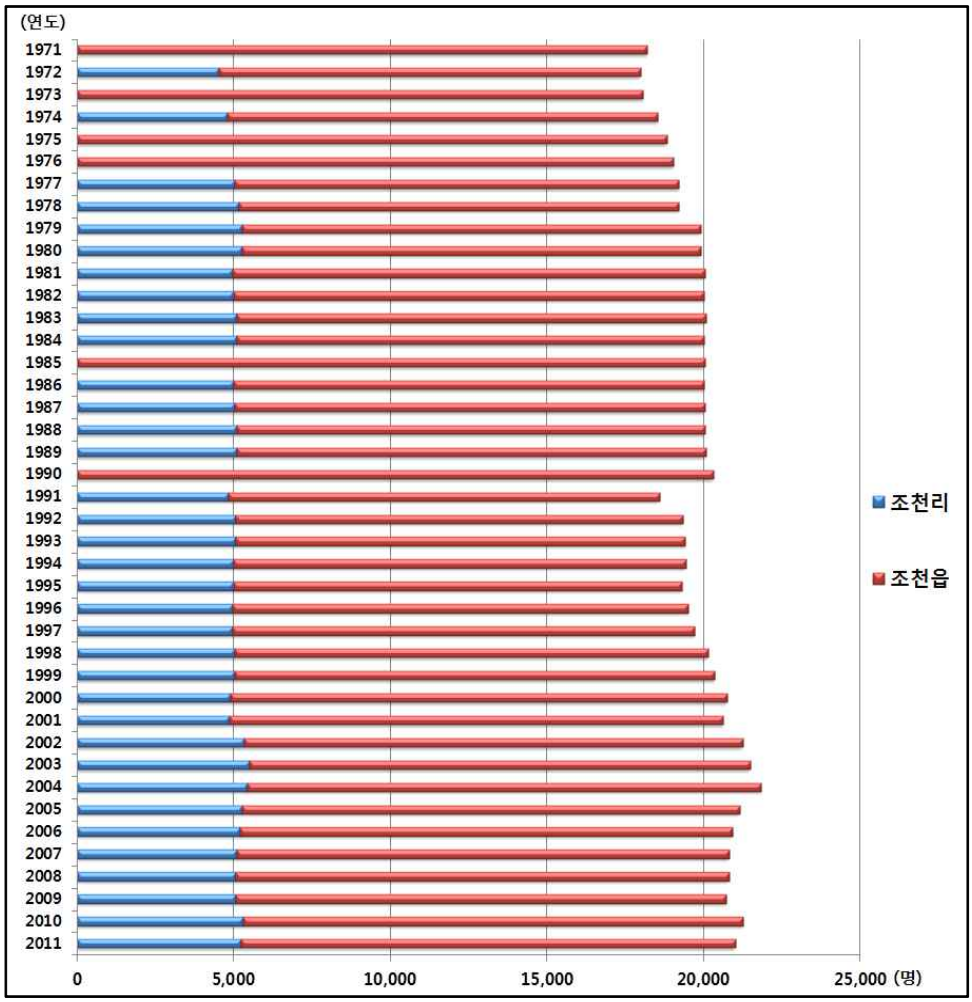
조선시대 조천리의 인구는 『제주읍지』와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摠冊)』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정조 때 발행된 『제주읍지』(제주읍지, 방리, 좌면)에 보면 '조천ᄆᆞ을' 민호는 168호, 남자는 492명, 여자는 535명으로 나타난다. 또 1904년에 발행된 『삼군호구가간총책』(제주군, 좌면)에서는 조천의 연가가 580호, 인구는 남자 748명과 여자 823명을 합하여 1,571명으로 기록되어 나타난다.

두 문헌의 기록으로 볼 때, 조천리는 200여 년 전부터 1,000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인구규모가 큰 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과거에서부터 조천리에 많은 인구가 분포하게 된 배경에는 용천수가 풍부한 자연환경과 함께 제주목과의 근거리에 위치한다는 점, 그리고 화북과 함께 조선시대 이래 제주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2대 관포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림 3〉은 1971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 조천리와 조천읍의 인구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조천리의 인구는 1972년도부터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198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81년부터 2001년까지는 5,000명 선에서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고 있다. 2002년에는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 464명이 증가한 5,322명이 되었고 2003년에는

5,489명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2012년까지는 아주 낮은 수치로 증감을 이어가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조천리의 인구는 최근 10여 년간 평균적으로 5,000명 이상을 유지하면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상당히 인구수가 많은 마을로 부각되고 있다.

조천읍 인구는 1981년 20,000명을 돌파한 이후, 19,000~22,000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조천리의 인구도 전체적으로는 조천읍의 인구변화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 조천리와 조천읍 인구 현황(1971~2011)

주: 조천리는 1971, 1973, 1975, 1976, 1985, 1990년도 통계 결여

자료: 북제주군, 통계연보(1971~200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2004~2011)

6. 인문자원의 구성과 특징

조천리는 제주를 대표하는 다양한 인문(마을) 자원을 보유한 마을이다. 우선 조천리에는 조천포구를 기점으로 하여 연북정(戀北亭)과 비석거리가 있다. 또한 조천은 과거부터 제주방어의 요충지인 증표로 조천진성(朝天鎭城)과 조천연대(朝天烟臺)가 있으며,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거점장소였던 만세동산과 함께 제주항일기념관이 들어서 있다. 이 외에도 조천리의 인문자원으로는 새콧당과 새당, 용천수인 큰물을 비롯한 많은 용천수가 있으며, 또한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황씨종손가옥(강창희가옥)도 있다(그림 4).

연북정은 원래 조천진 밖에 건립된 객사(客舍)였으나 조천진성 안으로 이전하여 건립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객사의 기능을 담당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연북정은 관덕정(觀德亭)과 함께 조선시대 제주도에 건립된 정자식 건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1971년 8월부터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조천비석거리는 조선시대에 부임하거나 이임했던 목사와 판관 등의 공적이나 석별을 기리는 비를 모아 놓은 곳으로, 포구로 이어지는 진입로 도로변에 조선시대 목민관을 지낸 관리들의 비석 7개와 더불어 마을발전을 위해 힘쓴 몇몇 주민들의 기념비가 함께 세워져 있다. 현재 조천비석거리에 있는 몇몇 비석들은 해풍에 의해 풍화되어 비문이 많이 훼손돼 있는 상태이다.

조천리는 조선시대 관문포구의 기능을 담당하던 조천포가 있어 자연스럽게 한반도로부터 유배인이 왕래하던 마을이기도 했다. 따라서 조선시대 유배문화의 흔적도 함께 볼 수 있는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조천포로 들어온 대표적인 유배인은 북헌 김춘택과 면암 최익현이 있고, 조천리에 적거했던 유배인으로는 남강 이승훈이 있다(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1: 579-589). 연북정에서 남쪽방향으로 약 5분 거리에 시멘트를 바른 돌담집이 있는데, 이 집이 바로 이승훈 적거 터이다. 이 집 벽에는 이승훈이 적거했다는 내력이 적힌 초록 동판이 벽에 걸려있어 과거의 흔적을 알 수 있다.

조천리에는 조선시대 때 쌓은 9진성 중 하나인 조천진성이 있다. 조천진은 조선초기부터 조천방호소와 수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던 방어의 요충지였다. 조천진성은 3면이 바다와 접한 해발 1~2m의 완만한 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으며, 9개의 진성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작은 진성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진성의 규모는 외벽 높이가 2.2~4.3m, 상부 폭은 1.6~3.1m이고, 둘레는 128m 정도이다. 조선시대에 성 안에는 조천관, 군기고 등 5동의 건물이 있었으나, 현재 연북정만 존재할 뿐 다른 건물의 위치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1: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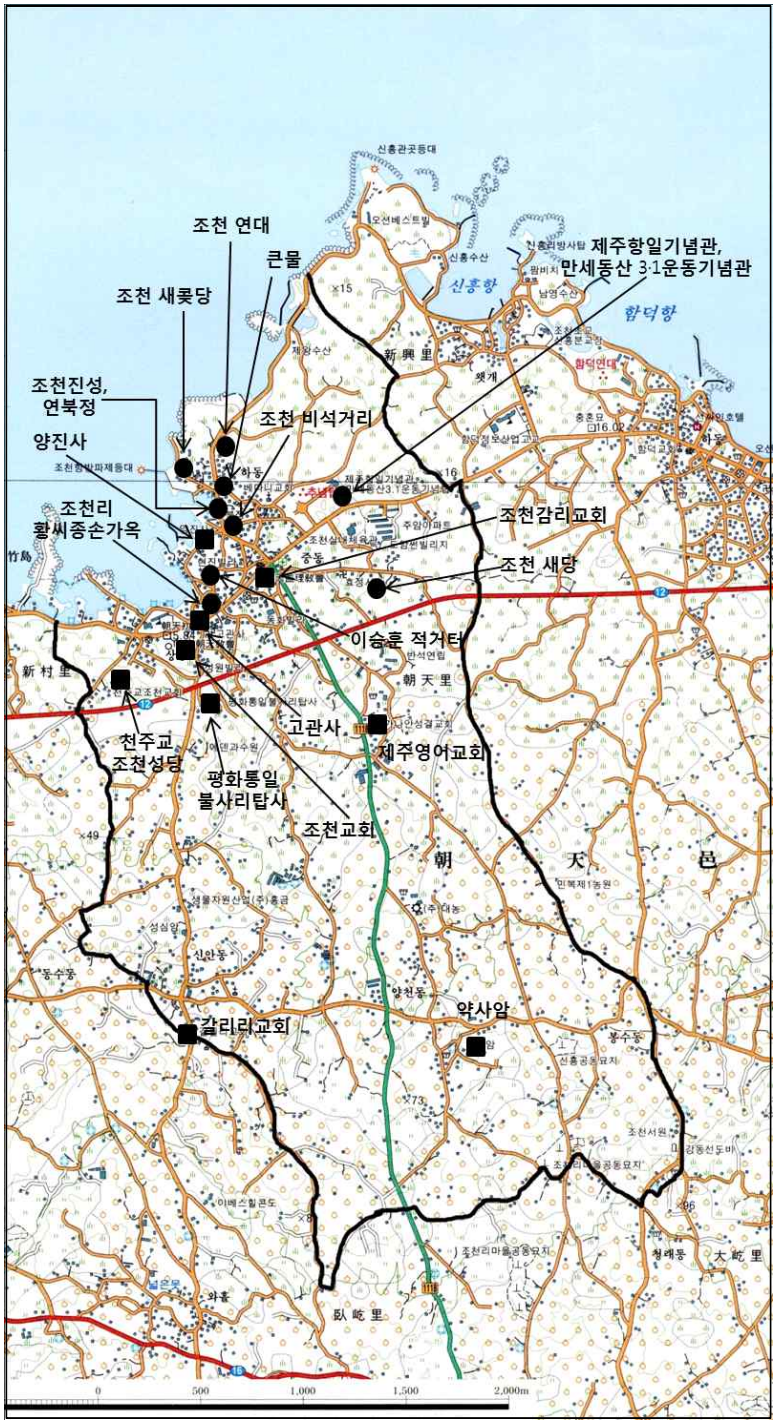
조천연대는 조천진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200여m 북동쪽인 속칭 '연대동산'에 위치해 있다. 조천연대는 제주도 기념물 제23-5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천연대는 조천진에 소속된 연대로, 서쪽으로는 별도연대, 동쪽으로는 왜포연대와 연락을 취했었다(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351).

제주항일기념관은 1996년 3월 1일 77주년 3·1절에 착공하여 1997년 8월 15일 광복 제52주년을 맞아 개관하였다. 이곳에 기념관이 세워진 이유는 1919년 3월 21일에 조천리 미밋동산에서 있었던 만세시위운동을 시작으로 제주의 항일운동이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이다(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1: 252).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과 관련하여 조천리는 제주의 그 어느 지역보다 항일정신을 잘 간직한 마을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제주의 3.1절 기념행사는 매년 조천만세동산 애국선열추모탑 주변에서 열리고 있다.

황씨종손가옥(강창희가옥)은 제주도 민속자료 제4-5호로 지정(1978. 11. 14)되어 있는데, 지정 당시에는 강창희 가옥으로 불리다가 2009년 7월 29일 조천리 황씨종손가옥으로 바뀌었다. 이 가옥은 19세기 후반에 지어진 제주의 전통와가(瓦家)로 1910년에 중수(重修)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435). 이 와가는 넓은 마당을 중심으로 ㄷ자 형태의 건물구조를 취하면서 제주에서도 희소한 민가 형식을 간직하고 있다.

- 28 -

조천리에도 제주의 다른 마을과 같이 신당이 있는데 새콧당과 새당이 남아 있다. 새콧당은 조천항 방파제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이 당에는 '고망할망'이 나왔다는 구멍이 두 개가 있고, 모시는 신은 '새콧당 고망할망'으로 이 신은 주로 어부와 해녀를 관장한다. 새당은 1132호 지방도인 일주도로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석을 쌓아 제장을 두르고 있다. 제단은 잡석을 길게 쌓아 만들었고, 팽나무를 신목으로 삼고 있다(제주시·제주문화예술재단, 2011, 318- 320).



〈그림 4〉 조천리 인문자원(●)과 종교시설(■) 분포

자료: 1:25,000 지형도(2004년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이상과 같이 조천리 인문자원의 특징은 대부분 본동을 중심으로 조천-신흥 해안도로를 따라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조천비석거리를 중심으로 대부분 반경 500m 안에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조천리는 이처럼 인문(마을) 자원의 밀집도가 높은 점은 교육적 측면이나 관광자원적 측면에서 최고의 장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인문(마을) 자원들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유도하려면 도보 및 자전거 코스 개발이 절실하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96-104). 최근 만세동산을 중심으로 올레 18코스와 올레 19코스가 개장되었다. 이 올레 코스와 인문(마을) 자원을 잘 연결한다면 마을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7. 종교시설 현황

〈그림 4〉는 조천리의 주요 종교시설을 나타낸 분포도이며 〈표 3〉은 주요 종교시설 현황을 정리한 자료이다. 조천리에는 사찰이 3곳, 개신교회가 4곳 그리고 천주교조천성당이 있으며 이외에도 신흥종교로 여호와의 증인, 한국 SGI, 수운교, 일관도 등이 들어서 있다. 이처럼 하나의 마을에 여러 종교가 분포하는 것을 볼 때, 한마디로 조천리는 제주종교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주요 3대 종교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조천리의 주요 종교시설 현황

종교시설		소속종단/교단	설립년도	주지/담임목회자
불교	고관사	조계종	1930	여공(如空)
	불사리탑사	조계종	1987	도림(道林)
	양진사	조계종	1921	선법(善法)
개신교	조천교회	예장통합	1909	송○훈 목사
	갈릴리교회	오순절	1996	이○용 목사
	조천감리교회	감리회	1951	고○섭 목사
	제주영어교회	독립교회	2008	김○ 목사
천주교	천주교 조천성당	?	1999	최○철 신부

자료: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1,『조천읍 역사문화지』, pp.605-623.

먼저 불교를 살펴보면 과거 조천리에는 조천관 포구에 입지했다가 후에 이전한 관음사가 있었다. 현재는 고관사, 불사리탑사, 양진사가 있는데 모두 조계종 소속 종단으로 양진사(1921년)-고관사(1930년)-불사리탑사(1987년) 순으로 설립되었다. 양진사와 고관사는 취락이 집중된 본동 지구에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불사리탑사는 1132호 지방도로 변에 위치하여 이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눈에 띄는 경관적 요소가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양천동에는 약사암이 있다.

개신교로는 조천교회, 조천감리교회, 갈릴리교회, 제주영어교회가 있는데 소속교단은 다양하며 조천교회(1909)-조천감리교회(1951)-갈릴리교회(1996)-제주영어교회(2008) 순으로 설립되었다. 조천교회는 상동에, 조천감리교회는 중상동에, 갈릴리교회는 신안동에, 제주영어교회는 지방도 제1118호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천주교조천성당은 1956년 조천 공소를 설립하여 이어져오다가 1999년에 조천본당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천주교조천성당은 신촌리의 경계지점과 가까운 상동지구에 위치해 있다.

조천리는 전체적으로 종교시설이 10개가 넘게 존재하는 마을이다. 이처럼 많은 종교시설이 하나의 마을에 들어서게 된 배경은 주민들이 새로 들어오는 종교에 대해 대체로 관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말하자면 과거 조선시대부터 조천포로 인해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성향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여겨진

다. 결과적으로 조천리에는 조천포를 통해 다양한 종교인들이 제주로 입도한 후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주민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1: 622).

8. 조천진성과 연북정의 역사지리적 측면의 평가

조천진성은 조선시대 제주에 입지한 3읍성 9진성 중 하나이다. 진성(鎭城)은 기본적으로 특정지역의 방어를 위해 설치된 군 주둔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든 외부로부터 적군이나 타국의 배들이 쉽게 접근하거나 상륙하여 특정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천진성은 제주읍성에서 동쪽으로 약 12㎞ 정도 떨어져 있으며, 화북진성과 함께 동부지역의 중요한 방어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조천진성의 중요한 역할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당시 주요 관문포구의 기능을 담당하는 조천포구와 주변 마을을 사수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주읍성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읍성을 방어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이다.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에서 조천진성의 입지적 특성이 드러난다. 조천포구는 조선시대 내내 화북포구와 더불어 2대 관문포구로 관선(官船)을 통한 육지부와의 교류는 물론이고, 관리와 유배인의 입출도(入出島) 그리고 상업을 위한 서민들의 교역 등에도 끊임없이 활용되었다.

조천진성은 역사지리적 측면에서 볼 때 크게 입지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에서 평가할 수 있다. 조천진성은 <그림 5>와 <그림 6>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조천포구와 바로 인접한 해안가에 입지해 있다. 해발고도로는 1~2m이고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경사지이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성 자체의 지형은 남고북저(南高北低)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김명철, 2000: 33). 북쪽은 바다와 인접하면서 모든 관선이나 일반 어선과 상선들의 입출입 통제는 물론이고 만약에 있을 왜구의 침입이나 이양선의 내도 등을 대비하여 많은 군졸들이 항상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조천진성은 제주도내의 다른 진성과 비교하면 비교적 작은 진성에 속하지만, 위치적 중요성에 근거하여 일찍이 조선 초기부터 방어의 요충지로 설진되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입지적 특성에서 주어진 제주읍성의 방어와 관포(官浦)로서의 기능유지 등과 관련된 특별한 임무는 다른 진성과는 크게 차별화되고 있었다(그림 7).



<그림 5> 조천진성과 그 주변 위성사진
자료: daum



<그림 6> 조천진성과 연북정 확대 모습
자료: naver

- 31 -

한편 연북정은 조천진성 내에 건립된 건물 중의 하나로 원래는 진성 밖에 위치했던 객사로 알려져 있으며, 최초 건립연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210) (그림 8). 조천진성 안에다 다시 정자 건물 형태로 건립한 것은 1590년(선조 23)으로 알려져 있고 당시의 명칭은 '쌍벽정(雙璧亭)'이었다. 청산(靑山)인 한라산과 녹수(綠水)인 주변바다가 함께 어우러져 쌍벽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1599년(선조 32)에 건물을 보수하면서 '연북정(戀北亭)'으로 바뀌었다(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10: 46).



<그림 7> 조천진성



<그림 8> 연북정

연북정이 지니는 역사지리적 의미와 가치는 세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하나는 연북정이 제주도내에서는 조선시대의 여러 건물들 중 관덕정과 함께 매우 드문 정자 형태의 건물이라는 점이다(그림 7). 이 점은 건축학적으로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연북정은 규모면에서 관덕정보다는 작은 정자 건물이지만 쓰임새는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연북정은 정자 형태의 건물이지만 제주도의 전통 주거 양식인 초가집의 칸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건물이다. 연북정은 조천진성 안으로 들어서면서 정자 형태의 건물을 갖추게 되었다고 전하지만, 정확한 이전 이유나 당시의 세부적인 건물구조는 사실상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조천진성 안으로 재차 이전 건립되면서부터 정자 건물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한다면, 시간적으로는 400년이 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지금의 연북정은 1973년에 복원된 것이지만, 원형 건물의 시간적 해석은 다소 다른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확인되는 연북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 구조로 돼 있고, 바닥은 마루를 깔고 있다. 단지 지붕의 형태는 팔작지붕으로 육지부의 건물에 많이 나타나는 양식인 동시에 조선시대 관아건물에서 많이 취하는 양식이다.

세 번째로는 연북정이 심적(心的)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지방과 중앙, 즉 제주와 한양 사이를 연결하는 상징적 건물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제주에 있는 신하(경우에 따라서는 유배인)가 한양에 있는 임금과 심적으로 소통하고 싶은 갈망과 소원을 표현하는 장소로, 또 국운(國運)의 성대와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연북정은 중요한 의미를 띤다고 말할 수 있다. 연북정은 제주라는 절해고도의 땅에 있지만, 거기서 기원하는 소원과 염원은 한양을 향한 암묵의 메시지로서, 말하자면 연북정은 소원과 염원을 생산하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사실이다. 오늘날 연북정에 올라서서 그러한 기분을 느낄 수는 없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제주라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미 있고 신성한 공간이었음에 틀림없다.

이상과 같이, 조천진성과 연북정은 역사지리적 측면에서 입지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을 토대

로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조천진성이나 연북정은 단순히 문화재라는 차원을 떠나 현세대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역사자원이자 문화자원이다. 따라서 현세대의 입장에서는 조천진성과 연북정을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혹은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시대적 사명이 남아 있다.

〈참고문헌〉

김명철, 2000, '조선시대 제주도 관방시설의 연구ㅡ읍성·진성과 봉수·연대를 중심으로ㅡ',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북제주군, 1971-2003,『통계연보』, 북제주군.

북제주군, 2000,『북제주군지 (상)』, 북제주군.

안중기, 2006, '제주도의 강수량과 토양' (『한라산의 하천』),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오창명, 2007,『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Ⅰ ㅡ행정명사·제주시편ㅡ』, 제주대학교출판부.

윤성효·이문원·진명식·안웅산, 2010,『제주도 지질공원』, (사)제주화산연구소.

정광중, 2012, "기후와 토양" (『2012 제주 WCC 생태·문화탐방 해설서 STORIES OF JEJU 세계인의 보물섬 제주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pp.389-397.

제주도, 1999,『제주의 물, 용천수』, 제주도.

제주도·한국자원연구소, 1998,『제주·애월도폭 지질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제주문화예술재단, 2011,『문화유적분포지도(1:5,000) -증보 제주시-』, 제주시·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특별자치도, 2005~2011,『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09,『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10,『마을따라 유적따라』(제주기행 길라잡이),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1,『조천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제주특별자치도 조천읍 지역발전 10개년 계획』, 조천읍지역발전계획수립추진협의회.

Ⅲ. 조천진과 연북정의 역사 및 현황

1. 조천리(朝天里)의 형성과 그 연혁

조천리(朝天里)는 행정구역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에 속한다. 동쪽으로는 조천읍 함덕리, 서쪽으로는 신촌리, 남쪽으로는 대흘리와 경계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바다와 접하고 있다. 현재 조천리는 본동과 신안동.양천동.봉소동 등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조천리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은『세종실록(世宗實錄)』에 처음 나타난다. 세종 21년 2월 초4일(임오)자에 '조천관(朝天館)'이라는 지명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조천관이 언제 세워졌는지, 이에 대해 상세히 전해 주는 문헌기록은 없다. 본디 조천(朝天)이란 말은 천자를 배알(알현)한다는 뜻이고 관(館)은 객사를 뜻한다. 관리의 주재, 숙박소인 것이다. 그런데 이 조천(朝天) 혹은 조천관(朝天館)이란 명칭에 대해서는 교수(敎授) 곽기수(郭期壽)의 '중창기(重創記)'에, "관(館; 朝天館)은 탁라(乇羅; 제주) 동쪽의 25리쯤 되는 바다 어귀[海口]에 있다. 곧 육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순풍을 기다리는 곳이다. '朝天(조천)'이란 이름을 지어 조천관이라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절제사(節制使) 이옥(李沃)이 부임한 다음 해는 곧 경인년(선조23년, 1590)이다. 이후(李侯; 李沃)는 막부(幕府)의 여러 사람들과 상의하고 아전(衙前; 胥吏)과 주민들에게 묻고 나서 이르기를, 朝天(조천)이 館(관)이 된 것은 실로 적(賊)이 왕래하는 요충지이며, 사명을 받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 송정규(宋廷奎) 목사(숙종 30년 10월~32년 9월)의 '기문(記文)'에는 "館(관)에 朝天(조천)으로써 이름을 지어 조천관이라 한 것은 한 섬의 공적(公的)인 행차(行次)와 사적(私的)인 행차를 위해서다. 무릇 바다를 건너 도성(都城)으로 가는 자는 반드시 이곳에서 순풍을 기다린다." 하였고,『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구진(九鎭) 항목에는 "조천진(朝天鎭)은 제주 동쪽 25리에 있는데, 진(鎭)을 설치한 것이 어느 해에 있었던 일인지 알지 못하겠다. 조천이란 이름은 대체로 오래되었다. 고후(高厚)와 고청(高淸)이 항해하여 신라(新羅)에 조회(朝會)할 때, 이곳에서 출항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탐라지(耽羅志)』제주목 과원(果園) 항목에는 조천관 남쪽에 과원이 설치되었던 기록이 보인다. 즉, 조천(과원)은 조천관(朝天館) 남쪽에 있다. 감자나무 4그루, 유자나무 7그루, 산귤나무 3그루, 청귤나무 1그루, 새로 심은 각종 과일나무 42그루, 옻나무 101그루, 닥나무 250그루, 치자나무 15그루가 있었다고 한다.

숙종 때 제주목사를 지낸 李益泰의『지영록(知瀛錄)』에는 탐라십경도(耽羅十景圖)의 하나로 조천관(朝天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주성(州城)의 동쪽 30리에 있다. 돌과 바위가 바다 어귀에 뒤섞여서 저절로 조그마한 섬을 이루니, 돌을 메워 높이 쌓고 그 위에 성(城)을 둘렀다. 성 안에는 공해(公廨; 관청 건물) 수십 칸이 있다. 동남쪽 성 모퉁이의 가장 높은 곳에는 객관(客館) 삼영(三楹)이 멀리 반공(半空; 中

- 34 -

天)에 희미하게 보이는데, 단청[丹艧]이 환하게 빛났다. 현판은 연북정(戀北亭)이라 하였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있는데, 조수(潮水; 밀물)가 물러가면 한쪽이 육지와 잇닿아서 거교(擧橋; 드는 다리)를 만들어서 성문과 통하게 하였다. 이곳은 곧 대소인원(大小人員; 신분이 높고 낮은 모든 관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오갈 때에 바람을 기다리는 곳이다. 예전대로 방호소(防護所)를 설치하고 조방장(助防將)을 두었다. 성의 둘레는 428척, 높이는 9척이며, 정군(丁軍; 城丁軍)은 241명이다. 관할하는 봉수는 한 곳이고, 연대는 세 곳이다. 배가 정박하는 포구는 세 곳이다. 성 아래의 포구는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돌로 쌓은 제방 가운데의 수문을 열어서 뱃길을 통하게 하여 왕래하였다. 평상시에는 그 안에 선박을 정박해 둔다. 성 밖에 배를 내리는 곳에는 이섭정(利涉亭)이 있다. 갯가 마을은 수백 호(戶)가 귤나무 숲 속에 즐비하여 뱃사공들이 포구를 찾지 못하여 헤매곤 한다. 관방(關防)의 지세가 뛰어난 것은 9진(九鎭)에서 첫째다."

조천진의 면모는 숙종 29년(1703)에 제작된 이형상(李衡祥) 목사의『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조천조점(朝天操點)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조점은 조련(操鍊)과 검열(檢閱)이다. 도면을 살펴보면, 조천진성 내에는 연북정과 군기(고)의 건물이 명시되어 있는가 하면, 주위로는 관곶연대(舘串烟臺; 朝天烟臺)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고, 마을 초가(草家)가 보이는 가운데 와가(瓦家) 한 채가 초가 속에 그려져 있다. 마을 이름은 조천관리(朝天舘里)라 하였고 포구는 관포(舘浦)라 하였다. 주위에는 산재해 있는 여(礖)가 표시되었고 배가 정박해 있는 모습도 눈에 띈다. 또 이소목장둔마(二所牧場屯馬)·일자둔마(日字屯馬)라 하여 목장의 명칭과 마필·목자·보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말을 점검하기 위한 원장(圓場)과 사장(蛇場), 활쏘기를 위한 과녁 등이 설치되어 있다. 하단의 비고란에는 임오(숙종 28년, 1702) 10월 29일자의 순력행사로 조방장 김삼중(金三重), 성정군(城丁軍) 423명, 군기집물(軍器什物), 목자(牧子)·보인(保人) 합계 87명, 말 505필이 기록되어 있다.

이원조의『탐라록(耽羅錄)』신축(헌종 7년, 1841) 9월 19일자에 "조천은 해방(海防)의 제일의 승지(勝地)이다. 여가(閭家) 300호가 산을 등지고 바다에 면하여 있으니, 문 앞이 모두 선창(船艙)이다. 공마(貢馬)는 반드시 이곳에서 싣는데, 그 포구가 광활하기 때문에 뭇 선박이 일제히 출항한다. 연북정은 암록(巖麓) 위에 있는데, 뒤로는 끝없이 넓은 바다가 보이고 앞으로는 소라[螺] 모양으로 열 지어 우뚝 솟았으니, 넓고 끝이 없어 아름답다. 마음과 눈이 맑고 상쾌하다. 성은 작고 견고하며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선로(線路)만이 통하니, 참으로 천연적으로 험한 지세이다."라고 하였다.

한편『탐라지』제주목 향약(鄕約) 항목에는 향약의 시행단위로서 유면(儒面)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27개의 유면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또『남환박물(南宦博物)』지문(誌文) 항목에는 행정면(行政面)과 유면(儒面)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먼저 지지(誌地) 항목을 보면, 삼읍(三邑)의 협주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제주는 산북(山北)에 있다. 읍내(邑內)가 3리이고, 동면(東面)이 34리, 서면(西面)이 53리, 남면(南面)이 5리이며, 합하여 95리이다. 연호(烟戶)는 7,319호이다.(이하 생략)"라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행정면을 나열한 것이다. 그러나 지문(誌文) 항목에는 이들 행정면과는 달리 동중면(東中面)·서중면(西中面)·별방면(別防面)·엄장면(嚴壯面)·애월면(涯月面)·예음비면(輗音飛面)·명월면(明月面) 등 유면도 나열되어 있다.

이『남환박물』의 지지 항목에 따르면, 당시의 면(面)은 동·서·남 등의 방위명(方位名)을 붙

- 35 -

여 동면·서면·남면이라 불렀다. 이렇듯 면에 방위명을 붙이는 경향은 조선시대에 와서 면·리제(面里制)의 정비과정에서 나타나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호구단자 (戶口單字)나 준호구(準戶口)) 등의 고문서를 참조해 보면, 동·서면이 좌·우면으로 개편된 시기는 조선 숙종 4년(1678)부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으로 보면,『남환박물』의 기사는 이미 편제된 사실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영조 41년경 편찬된『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제주목 면촌(面村) 항목에는 행정면과 유면이 다음과 같이 혼성(混成)되어 있다.

즉, 제주목은 좌면(左面)·중면(中面)·신우면(新右面)·구우면(舊右面) 등 4개의 대면(大面, 行政面) 안에 12개의 소면(小面, 儒面)이 편제되어 있다, 그 중 좌면에 소속된 유면은 신촌면(新村面)·조천관면(朝天舘面)·김녕면(金寧面)·별방면((別防面) 등 4면이다. 그리고 대면에는 풍헌(風憲)이 각 1인이고, 소면에는 약정(約正)이 각 1인이다. 81리에는 경민장(警民長)·권농(勸農)·기찰장(機察官)·포도(捕盜)·존위(尊位)·동장(洞長)·이임(里任)·색장(色掌)·지심(指審)·유사(有司)가 각각 1인이 있어서 함께 서무를 관장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때 조천리(朝天里), 함덕리(咸德里), 고여지리(古與池里), 선흘리(先訖里), 북포리(北浦里) 등 5개의 리가 좌면(大面; 행정면)의 조천관면(小面; 유면)에 속해 있었다. 유면은 향약의 시행 단위로서 행정면의 보조 역할도 하였다. 이와 같이 유면은 행정면과 함께 조선 말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편 행정면의 경우, 정조 10년(1786)경에 씌어진『제주읍지(濟州邑誌)』방리(坊里) 항목에는, 제주목이 중면·좌면·신우면·구우면 등 4면으로 정리되고 있다.『증보탐라지』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좌면(左面)은 신촌리(新村里), 천미리(泉味里), 와호흘리(臥乎屹里), 대흘리(大訖里), 교래리(橋來里), 와호산리(臥乎山里), 조천리(朝天里), 함덕리(咸德里), 북포리(北浦里), 선흘리(先訖里), 김녕리(金寧里), 무주포리(無注浦里), 어등포리(於等浦里), 괴리(怪里), 평대리(坪代里), 하도의리(下道衣里), 상도의리(上道衣里), 세화리(細花里), 송당리(松堂里) 등 19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조천리는 "동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는데, 민호(民戶)가 168호, 인구는 남자가 492명, 여자가 535명(남녀합계 1,027명)"이라고 하였다(朝天里 東距三十里 民戶一百六十八 男四百九十二 女五百三十五). 기록상으로는 처음으로 나타나는 조천리의 인구이다.

이후 정조 13년(1789, 己酉式年)에 전국의 인구자료를 모아 정리해 놓은 인구통계집인『호구총수(戶口摠數)』에 와서는 대면과 소면의 구별 없이 유면(儒面)만 나열되고 있다. 제주목의 경우, 신촌면.김녕면.중좌면.주중면.중우면.귀일면.애월면.명월면.판을포면 등 9개면이 기록되어 있다.『증보탐라지』에 보였던 조천관면은 신촌면에, 별방면은 김녕면에, 엄장면은 애월면에 각각 병합된 것이다. 이때 신촌면에는 신촌리(新村里), 천미리(泉味里), 와호흘리(臥乎訖里), 대흘리(大訖里), 와호산리(臥乎山里), 교래리(橋來里), 조천리(朝天里), 함덕리(咸德里), 선흘리(先訖里), 북포리(北浦里) 등 10개의 리가 소속되었다. 이 10개 리의 원호(元戶)는 885호, 인구는 남자가 2,136명 여자가 3,228명으로 합계 5,364명이었다. 그러나 좌면은 고종 11년(1874)에 구좌면(舊左面)과 신좌면(新左面)으로 분리되면서 좌면에 소속되었던 19개의 리도 두 면 중 어느 하나로 소속이 바뀌게 된다.

이후 고종 32년(1895) 5월 26일에 칙령(勅令) 제98호로 지방제도를 개정하여 전국을 23개의

 - 36 -

부(府)로 나눔에 따라 제주도에도 23부의 하나로 제주부(濟州府)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종래의 고을 명칭을 군(郡)으로 단일화시킴에 따라 제주목과 대정현.정의현이 모두 제주군.대정군.정의군의 3군으로 개편되어 제주부의 관할 구역이 되었으며, 목사와 두 현감도 모두 군수로 바뀌어 제주부의 관찰사에 소속되었다. 그러나 23부제는 약 1년이 지나 폐지되고 곧 13도제기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에는 목(牧)을 설치하여 목사(牧使)로 하여금 대정.정의 두 군을 관할케 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인 광무 원년(1897) 9월에 제주목 외에 따로 제주군이 설치되면서 행정구역은 1목(제주목) 3군(제주군・대정군・정의군)이 된다.

그리고 광무 8년(1904) 정월에 작성된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摠冊)』은 '존안책(存案冊)'과 '상납총(上納摠)'으로 나누어 편집되었는데, '존안책'에는 제주군(濟州郡; 濟州牧이라 표기한 것은 착오임)의 신좌면(新左面)이 북촌리(北村里), 선흘리(先屹里), 함덕리(咸德里), 조천리(朝天里), 신촌리(新村里), 대흘리(大屹里), 와산리(臥山里), 와흘리(臥屹里), 교래리(橋來里) 등 9개 리로 구성되었다. 그 중 조천리(朝天里)의 마을 형세는 연가(煙家)가 580호에 인구는 남자가 748명, 여자가 823명 합계 1,571명이고 와가(瓦家)가 61칸, 초가(草家)가 1,700칸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후자의 '상납총'(9개 마을은 같음)에는 조천리(善屹里)의 연가가 480호에 인구는 남자가 633명, 여자가 687명 합계 1,320명이고 와가는 61칸, 초가는 1,700칸으로 합계 1,761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뒤 광무(光武) 10년(1906) 9월 24일자로 제주목사제(濟州牧使制)가 폐지되면서 그 사무는 전라도 관찰사에게 인계되었다. 이리하여 제주도는 같은 해 10월 1일자로 제주군・대정군・정의군의 3군(郡) 체제로 바뀌면서 그대로 전라도에 소속된다. 1914년 4월 1일에 와서는 군・면(郡面) 폐합에 따라 제주군과 대정군.정의군의 전 지역 및 완도군(莞島郡)의 추자면을 통폐합하여 총 13면으로 개편하였다. 여기에 제주군을 따로 두어서 제주도 일원을 관할하게 하는 체제였다. 당시 13면은 제주면(濟州面)・구좌면(舊左面)・신좌면(新左面)・구우면(舊右面)・신우면(新右面)・정의면(旌義面)・동중면(東中面)・서중면(西中面)・우면(右面)・대정면(大靜面)・중면(中面)・좌면(左面)・추자면(楸子面) 등이다. 이때의 신좌면은 신촌, 와흘, 조천, 함덕, 대흘, 북촌, 와산, 교래, 선흘 등 10개의 리로 구성되었다.(『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참조)

1915년 5월 1일에는 도사제(島司制)가 실시됨에 따라 제주군수(濟州郡守)를 없애고 제주도사(濟州島司)를 두었다. 1916년 10월에는 면제도(面制度)의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이장을 구장(區長)으로 개칭하였다. 구장은 읍・면장의 보조기관으로서 특기할 만한 것이었다. 즉, 구장은 읍・면의 사무 중 동리에 관한 것을 보조하였다. 동리에 1명을 두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2개 이상의 동리에 1명, 또는 1개 동리에 둘 이상의 구장을 둘 수 있었다. 구장은 명예직이며, 그 동리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임명하였다. 1929년에 작성된 『생명실태조사(生命實態調査)』(其二)에 의하면, 당시 조천리의 호수는 700호, 인구는 2,835명(남자 1,380명, 여자 1,455명)으로 1904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1931년에는 제주면이 읍(邑)으로 승격되었다. 1935년 4월 1일부터 조선총독부 전라남도령 제7호에 의해, 제주도(濟州島) 관내의 면(面)의 명칭을 개정하여 시행한다는 지침에 따라 면(面)의 명칭이 소재지의 이명(里名) 등을 따서 오늘날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신좌면이 조천

(朝天), 구우면이 한림(翰林), 신우면이 애월(涯月), 정의면이 성산(城山), 동중면이 표선(表善), 서중면이 남원(南元), 우면이 서귀(西歸), 중면이 안덕(安德), 좌면이 중문(中文)으로 각각 개칭된 것이다.

1946년 8월 1일에는 군정법령(軍政法令) 제94호에 따라 제주도(濟州島)를 도(道)로 승격시켜 도제(道制)가 실시됨에 따라 제주도 지역은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으로 구획되었다. 이때 조천면은 북제주군에 편제되었으며, 1985년 10월 1일에 읍으로 승격하였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 지역이 단일 행정구조로 광역시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초 자치제로서의 위상을 지녔던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북제주군 등의 행정단위가 폐지되고, 대신 2개의 행정시에 해당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만이 남아 각각 종래의 남제주군과 북제주군 지역을 흡수, 통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천읍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속하게 되었다.

2. 조천진(朝天鎭)의 역사와 현황



사진 1. 조천진 전경(항공사진 북에서)

조선후기 제주도에는 9개의 진성(鎭城)이 있었다. 화북(禾北)·조천(朝天)·별방(別防)·수산(水山)·서귀(西歸)·모슬(摹瑟, 東海에서 옮김)·차귀(遮歸)·명월(明月)·애월(涯月) 등지의 진성이 그것이다. 이들 진성에 대해서 1938년 10월에 일본인 세키노 타다시(關野 雄)가 『考古學雜誌』(28권-10호)에 쓴 '濟州島に於ける遺蹟'에 의하면, "이들 진성은 둘레 1정(町) 정도의 조천진성으로부터 십수정(十數町) 정도의 명월진성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가 가지각색이다. 형태도 네모꼴이 있고, 타원형이 있는가 하면 반원형(半圓形)도 있어서 일정하지가 않다. 성벽은 모두 석축(石築)으로 흑색 화산암의 자연석을 쌓아 올렸는데, 비교적 평탄한 면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서 가지런히 쌓았다. 또 명월진의 남문지(南門址), 별방진의 서문지(西門址)에는 옹성(甕城)의 흔적도 확인된 바 있다. 이들 진성은 수산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안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이 특색이라 하겠다. 즉, 해구(海寇; 倭寇)에 대비한 것이다. 현재 진(鎭)의 건물이 남아 있는 것(연북정인 듯함)은 조천진뿐이다."라고 하였다.

조선초기 제주도 지역에 설치되었던 방어시설로는 방호소(防護所, 뒤에 鎭)와 수전소(水戰所), 봉수(烽燧)와 연대(烟臺)가 있었다. 『세종실록(世宗實錄)』 21년(1439) 2월 초4일(임오)자에

- 38 -

는, “도내(島內)에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은 본 고을 동쪽에 있는 김녕(金寧)과 조천관(朝天舘), 서쪽에 있는 도근천(都近川)·애월(涯月)·명월(明月), 대정현(大靜縣) 서쪽에 있는 차귀(遮歸), 동쪽에 있는 동해(東海), 정의현(旌義縣) 서쪽에 있는 서귀(西歸), 동쪽에 있는 수산(水山) 등지로서 모두 왜구의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요해지로, 이전에는 모두 방어소(防禦所; 防護所)를 두었다(道內軍人屯守之處 則本州 東則金寧·朝天館 西則都近川·涯月·明月 大靜縣 西則遮歸 東則東海 旌義縣 西則西歸 東則水山等處 竝是倭寇泊船要害之處 前此皆置防禦所).”고 하였다.



사진 2. 조천진 모습(동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주목 관방 항목을 보면, 조선 초기의 방어시설로서 제주목 관내에, 조천관 방호소·김녕포 방호소(뒤에 별방으로 옮김)·도근천(都近川; 外都) 방호소·애월포 방호소·명월포 방호소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어체제는 고려 말부터 정비되어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수전소는 좌·우방(左右舫)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조선 초기의 경우, 좌방(左舫)에는 건입포(巾入浦) 수전소, 조천관포구 수전소, 김녕포구 수전소가 있었고, 우방(右舫)에는 벌랑포(伐郎浦; 龍潭) 수전소, 도근천포구 수전소, 애월포구 수전소, 명월포구 수전소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수전소도 이후 어느 때부터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그 위치가 바뀌어 지고 있다.

『탐라지(耽羅志)』(효종 4년, 1653 간행) 제주목 수전소 항목에 의하면, 좌방은 화북포·조천포·어등포로 바뀌어졌으며, 우방도 애월포.명월포로 축소되었다. 좌방은 종전의 건입포가 화북포로, 김녕포구가 어등포(魚登浦; 杏源)로 대체되었으며, 우방은 벌랑포와 도근천포구가 혁파된 것이다. 따라서 선장 등 배속된 군사나 사변에 대비하기 위한 양곡의 비치면에 있어서는 이전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역할에 있어서는 대동소이 했던 것 같다. 즉, 이들 수전소에는 모두 전선(戰船)이 있었고 또 군사가 있어서 번갈아가며 나누어 지켰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 공납하는 물건과 선물(膳物)도 이들 수전소에서 번갈아가며 배에 실어서 바다를 건넜다(古有軍卒 立番分守 凡貢膳之物 輸輸渡海). 내용 중 좌·우방(左右舫)의 방(舫)은 방수군(防守軍)의 약어, 즉 배를 타는 수군의 뜻이다. 조천리(朝天里)에는 조선 초기에 방호소와 수전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전라도 대정현 항목에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배가 모두 제주의 애월포(涯月浦)와 조천관(朝天舘)에 이른다고 하였고, 『남사록(南槎錄)』 신축(辛丑, 선조 34년, 1601) 10월 12일(병자)에는, “본도(本島)는 바로 남해 가운데 있어서 왕래하는 배가 북풍을 만나면 들어오고, 동풍을 만나면 나간다. 조천관(朝天舘)은 바로 고을의 동북 경계에 있어서 육지로 나가는 배는 모두 관(舘) 아래나 별도포(別刀浦)에서 순풍을 기다린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전에는 순풍을 기다리는데 일정한 장소가 없어서 동쪽에서는 별도포·어등포

(於等浦)·조천관에서 동풍을 만나 육지로 향하면 백도(白島; 康津)·관두(舘頭; 海南)·진도(珍島) 등지에 정박하고, 서쪽에서는 도근천(都近川)·애월포에서 서풍을 만나 육지로 향하면 어란포(於蘭浦; 靈巖)·관두·진도·초도(草島; 진도에 속함) 등지에 정박하였다.'고 한다.

을묘년(乙卯年, 명종 10년, 1555) 이후부터 사선(私船)이 임의로 출입하므로 섬 안에서 역(役)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따금 배를 타고 육지로 도망하였다. 그 때문에 조천·별도 두 포구에서만 배를 출항시키도록 허락하고, 배를 출항시키는 날에는 목사 소속의 군관 1인이 장부를 가지고 대조하며 점검하는데, 이것을 출선기(出船記)라고 하였다. 비록 1인 1마(馬)라고 하더라도 감히 몰래 숨길 수 없었다. 방간(防奸)하는 법규가 상세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에 성(城)을 쌓아 방호소(防護所)를 설치하였는데, 성의 둘레는 430여 척이고 높이는 10척이다. 성 안에는 우물이 없고 다만 동문만 있는데 문 위에 초루(譙樓)가 있다. 둘리어진 바닷물로 호(壕)를 삼았다. 방수(防守)하는 제도가 애월과 같았다."고 하였다. 조천포가 별도포와 함께 관항(官港)의 구실을 했던 것이다.

또 (신축 10월 12일자) "곧 조천포로 향하였다. 연북정(戀北亭)에 앉아서 쉬었다. 정자의 이름은 예전에 쌍벽(雙碧)이라 하였는데 목사 이옥 때에 세웠다. 전 목사 성윤문이 중수하고 옛 제도를 자못 늘려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편액하였다."고 하였다.

『탐라지』 제주목 성곽 항목에는 "조천성(朝天城)은 조천포에 있다.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428척 7촌, 높이가 9척 1촌이며 동쪽에 문이 하나 있다."고 하였다. 또 방호소 항목에는 "조천소(朝天所)의 성 안에 조천관(朝天舘)과 주구(廚廐).군기고(軍器庫)가 있고, 동성(東城) 위에는 쌍벽루(雙碧樓)와 연북정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조천관에 대해서는 교수(敎授) 곽기수(郭期壽)의 중창기(重創記)가 수록되어 있다.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관(舘)은 탁라(乇羅; 제주) 동쪽의 25리쯤 되는 바다 어귀[海口]에 있다. 곧 육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순풍을 기다리는 곳이다. 조천으로 이름을 지어 <조천관>이라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절제사(節制使) 이옥(李沃) 후(侯)가 부임한 다음 해는 곧 경인년(선조23년, 1590)이다. 이 후(李侯; 李沃)는 막부(幕府)의 여러 사람들과 상의하고, 아전(衙前)과 주민들에게 묻고 나서 이르기를, '조천이 관(舘)이 된 것은 실로 적(賊)이 왕래하는 요충지이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머무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성(城)이 비좁고 건물은 낡아 허물어졌으니, 어찌 농한기에 고쳐 지어 웅장하고 화려하게 하지 않겠는가?' 하자, 모두 '동의합니다.' 하였다. 이에 휘하의 전(前) 부장(部將) 서만일(徐萬鎰)에게 지시하여 그 일을 주관하여 부지런히 힘써 거행하게 하였다. 마침내 여러 재능 있는 일꾼들을 모아 10월에 시작하여 12월에 공사를 마쳤다. 성곽은 동북쪽으로 물려 쌓고 성 위에 초루(譙樓)를 설치하여 그 이름을 쌍벽(雙碧)이라 하였다. 건물은 중앙에 청사(廳事; 大廳)을 두었고, 삼면으로는 회랑(回廊)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당(堂)이 있고, 무기고가 있고, 주방이 있다. 제도가 완전히 구비되었고, 규모도 알맞아 높지도 낮지도 않았으며 사치스럽지도 검소하지도 않았다. 덩그렇고 환하게 되었으니 장로(張老)의 칭송을 드릴 만하고, 제겨딛는 듯하고 꿩이 나는 듯하니 사간(斯干)의 시(詩)를 읊조릴 만하다. 훗날 편안히 거처하는 자가 상방(上房)에서 비바람을 피하고, 추위와 더위에 따라 당.실(堂室)을 달리하게 하였다. 더욱이 조정(朝廷)에 대한 돈독한 정성과 있는 힘을 다한 충성은

반드시 여기에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이것은 곧 이 후[李沃]의 업적이요, 서 공[徐萬鎰]의 공적이 아님이 없다. 아, 이 후[李沃]가 나랏일에 마음을 다하여 수고로움을 꺼려하지 않음이 이와 같았고, 서 공[徐萬鎰]이 절제사의 뜻을 능히 받들어 그 공적을 이룩함이 이와 같으므로, 글로 적어 성대한 일을 후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부족함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이에 이 기(記)를 쓴다."

敎授 郭期壽 重創記, 舘在乇羅之東 二十五里許海口 乃出陸人候風之所也 命名曰朝天以此也 節制使李侯沃 剖符之明年 卽庚寅歲也 李侯謀於幕府諸公 問于吏民曰 朝天之爲館 實賊路之要衝 使命之所舍 而若是乎 城子迫隘 屋宇凋殘 盍於農隙改搆 而壯麗焉 皆曰諾 於是 命麾下前部將徐萬鎰 主其事擧勤幹也 遂掄群才役子來 經始於良月 告訖於季冬 城子則退築東北 上安譙樓 其名雙碧 屋宇則中置廳事 三面爲廊 而有堂焉 有武庫焉 有庖廚焉 制度極備 規模得宜 不高不卑 匪侈匪儉 輪焉奐焉 可獻張老之頌 如跂如翬 宜詠斯于之詩 使後之攸寧者 蔽風雨於上傍 異堂室於凉煥 而益篤拱北之誠 思效盡瘁之忠 未必不由於此 則莫非李侯之事 而徐公之功也 噫 李侯之盡心國事 而不憚勞如此 徐公之剋承帥意 而底其績也如此 不可不筆於書 使盛事傳於後 余不揆剪薄 於是乎記.

숙종 5년(1679)에 제주에 어사로 왔던 이증(李增)의『남사일록(南槎日錄)』에는 "성 안에 조천관·군기고가 있고 동성 위에는 쌍청루(雙淸樓)·연북정이 있다. 섬을 사방으로 돌아가며 모두 암석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 포구도 지세가 높고 험하여 배를 댈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조천포는 뱃길이 평안하고 순탄할 뿐 아니라 포구를 사면으로 둘러싸고 있어 배를 감추기에 아주 좋다. 성의 둘레는 428척, 높이는 9척이다. 단지 남문(南門)이 있을 뿐인데, 문 위에는 초루(譙樓; 門樓)가 있다.…다만 조천포 안팎에는 우물이 없어서 위아래 갯마을이 거의 2백 호에 이르나 항상 봉천수를 저장했다가 마시니 이것이 흠이다." 하였다.『남사일록』에서는 쌍벽루(雙碧樓)를 쌍청루(雙淸樓)로 표기하였다.

영조 41년(1765)경에 편찬된『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구진(九鎭) 항목에는 "조천진의 성 안에는 샘이 없고 성 밖 수십 보쯤에 샘이 셋이 있다. 또 승수천(升水泉)이 있는데 그 맛이 아주 달아서 성 밖 사람들이 길어다 사용한다. 조천관.연북정이 있는데 이옥(李沃) 목사 때에 성 안으로 옮겨 들였다. 예전에는 쌍벽(雙碧)이라 편액하였는데, 성윤문(成允文) 목사가 중수하고 연북(戀北)으로 고쳐 편액하였다." 하였다.

정조 5년(1781)에 제주에 순무어사(巡撫御史)로 왔다가 돌아가 복명한 박천형(朴天衡)의『제주순무어사서계(濟州巡撫御使書啓)』조천방호소에는, "진(鎭) 터가 바다 속으로 쑥 들어가 있어 배가 출항하는 데에 아주 편리하다. 그러므로 진상 물종을 실은 배는 대부분 이 진에서 출항하고 육지에서 들어오는 선박도 대부분 이 곳에 도착하여 정박하므로, 섬 안의 요로(要路)가 된다. 그러나 성 안에는 우물이 없고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도 없어서 외적이 침입했을 때에 성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정조 10년(1786)경에 편찬된『제주읍지(濟州邑誌)』제주목 진보(鎭堡) 항목에는 "조천진의 성 안에는 객사(客舍)·군기(고)가 있고 동성 위에는 쌍벽루·연북정이 있다." 하였다. 여기서

 - 41 -

객사라 한 것은 조천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헌종 때(7년 3월~9년 6월) 제주목사였던 이원조(李源祚)의『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진보 항목에는 “조천진은 삼면이 바다로 막히고 한 곳으로만 통행하였다. 문 위에는 초루를 설치하였고 성 안에는 조천관, 연북정, 군기고가 있다. …연북정은 곧 객사(客舍)이다. 예전에는 성 밖에 있었는데, 선조 23년(1590, 경인)에 이옥(李沃) 목사가 성을 수리하고 동성 위에 세워서 쌍벽(雙碧)이라 편액하였다. 그 뒤 선조 32년(1599, 기해)에 성윤문(成允文) 목사가 중수하고 연북(戀北)으로 고쳐 편액하였다.

헌종 때(14년 3월~철종 원년 6월) 제주목사였던 장인식(張寅植)의『탐라지(耽羅誌)』제주목 방호소 항목에는 “조천진의 성 안에는 조천관.주구(廚廐).군기고가 있고 동성 위에는 연북정 곧 객사가 있다.…” 하였다.

이상의 읍지류(邑誌類)의 내용을 종합하면, 조천진성(朝天鎭城)은 둘레가 428척, 높이가 9척이었다. 3면이 바다로 둘러 있고 동문(東門) 하나만이 있어서 이곳으로 통행하였다. 9개의 진성 중 가장 작은 진성이었다. 성 안에는 조천관.주구(廚廐).군기고가 있었고 동성 위에는 초루(쌍벽루)와 연북정이 있었다.

다음 표 1은 읍지류의 내용을 정리한 도표이다.

 - 42 -

文獻	周	高	城內	東城上	門	門上	備　　考
南槎錄	428尺	10尺			東文	譙樓	
耽羅志	428尺 7寸	9尺 1寸	朝天舘 廚廐 軍器庫	雙碧樓 戀北亭	東門		* 郭期壽重創記 城子則退築東北 上安譙樓 其名雙碧
南槎日錄	428尺	9尺	朝天舘 軍器庫	雙淸樓 戀北亭	南門	譙樓	
知瀛錄	428尺	9尺					
增補 耽羅誌	428尺	9尺	朝天舘 戀北亭				朝天舘.戀北亭 牧使李沃時 移入城內
濟州邑誌			客舍 軍器庫	雙碧樓 戀北亭			
濟州大靜 旌義邑誌	240步	9尺					
耽羅誌 草本	240步	9尺	朝天舘 戀北亭 軍器庫			譙樓	戀北亭卽客舍 舊在城外 宣祖 庚寅牧使李沃 修建于東城上扁 以雙碧 成允文重修改扁曰戀北
耽羅誌	428尺 7寸	9尺 1寸	朝天舘 廚廐 軍器庫	戀北亭			戀北亭卽客舍 宣祖庚寅 牧使李沃建 扁以雙碧 己亥 成允文重修 改扁曰戀北
耽羅紀年							牧使李沃重刱朝天舘 建雙碧亭 牧使成允文 雙碧亭改題戀北

표 1. 조천진 및 연북정 관련 읍지류

< 참고문헌 >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 關防, '朝天館防護所 在州東二十六里'

○『南槎錄』'十二日丙子 …卽向朝天舘 坐戀北亭 亭名舊扁雙碧 牧使李沃時所建 前牧使成允文重修 頗增故制 改扁今名云'

○『耽羅志』濟州牧 城郭, '朝天城 在朝天浦 石築周四百二十八尺七寸 高九尺一寸 東有一門' 防護所, '朝天所 城中有朝天館.廚廐.軍器庫 東城上有雙碧樓.戀北亭' 水戰所, '朝天浦 有板屋戰船一隻 待變粮三石 格軍一百二十八名 射砲二十一名'

○『南槎日錄』'朝天浦 距州二十五里 城中有朝天館.軍器庫 東城上有雙淸樓.戀北亭 在禾北東環島皆亂石 嵯峨於浦口 不得泊船 而此浦非徒船路平順 浦口環抱 藏船極好矣 城周四百二十八尺 高九尺餘 只有南門 門上有譙樓…但朝天浦內外 無井泉 上下浦村 將至二百戶 而每儲奉天水

 - 43 -

而飮是可欠也’

○『增補耽羅誌』九鎭, ‘朝天鎭…在州東二十五里 設鎭未知在何年 朝天之名 盖久矣 高厚高淸航海朝新羅時 自此發船 故名云 城周四百二十八尺 高九尺 城丁軍二百名 雉摠二 助防將一人 良防軍七十五名 書記八名 砲手十名 弓人九名 矢人十名 城內無泉 城外數十步許 有三泉 又有升水泉 其味甚甘 城外人家汲用 有朝天館.戀北亭 牧使李沃時 移入城內 舊扁雙碧 牧使成允文重修 改扁戀北’

○朴天衡『濟州巡撫御使書啓』朝天防護所, ‘朝天防護所 在濟州東三十里 鎭基斗入海中 放船最爲便捷 故凡係進上物種 裝載之船多放於此鎭 陸地入來之船 亦多到泊 此亦島中之要路 而但城內無泉井無倉儲 外寇雖來 有難守城是白齊’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鎭及烽煙臺, ‘朝天鎭 自州東距三十里 助防將一人 兼城將 雉摠二人 防軍七十五名 每番十二名或十三名 每朔五日立番 中省記分把外 餘數番除 書記七名 每番一名或二名 每朔五日立番 放砲手十名 每番一名或二名 每朔五日立番 弓人九名 每番一名或二名 每朔五日立番 矢人九名 每番一名或二名 每朔五日立番 伺候船一隻 沙工一名 裨大廳在城外浦頭’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朝天鎭 助防將一人 雉摠二人 城丁軍九十二名 留直軍一百三名’

○『濟州邑誌』濟州牧 鎭堡, ‘朝天鎭 城中有客舍·軍器 東城上有雙碧樓戀北亭 鎭將一人 雉摠二人 書記十二名 防軍七十五名 放砲手十名 弓人十名 矢人十名 城丁軍一百七十名’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牧 鎭堡, ‘朝天鎭 在州東三十里 石城 周二百四十步 伺候船一隻 書記七名 防軍一百十八名’

○李源祚『耽羅誌草本』鎭堡 ‘朝天鎭 在州東二十五里 城周二百四十步 高九尺 三面阻海 只通一 門上設譙樓 城內在朝天館.戀北亭.軍器庫 助防將一人 雉摠二人 防軍六十七名 伺候船一隻 戀北亭卽客舍 舊在城外 宣祖庚寅 牧使李沃 修建于東城上 扁以雙碧 成允文重修 改扁曰戀北’

○張寅植『耽羅誌』濟州牧 城郭. ‘朝天城 在朝天浦 石築 周四百二十八尺七寸 高九尺一寸 東有一門 <防護所> 朝天鎭 在州東三十里 城中有朝天館·廚廐·軍器庫 東城上有戀北亭卽客舍 宣廟庚寅 牧使李沃建 扁以雙碧 己亥成允文重修 改扁曰戀北 助防將一人 雉摠二名 書記十二名 城丁軍一百三十名 差備十名 防軍一百五十一名 伺候船一隻 <水戰所> 朝天浦 有板屋戰船一隻 待變粮三石 格軍一百二十八名 射砲二十一名’

○『北濟州郡의 文化遺蹟』(Ⅰ)-先史.歷史-, 歷史遺蹟(1998).



삽도 1.『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의 조천조점(1702년)

3. 연북정(戀北亭)의 역사와 현황



사진 3. 연북정 모습

연북정은 조천리 바닷가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정자이다. 1971년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지금의 건물은 1973년에 보수한 것이다. 보수 당시 '龍 嘉慶二十五年庚辰二月十五日　　辰時入柱上樑虎'라 한 기문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연북정은 가경(嘉慶) 25년, 즉 순조 20년(1820)에 보수했던 듯하다. 이 정자가 세워져 있는 조천포구는 화북포와 함께 관원이나 도민들이 본토를 왕래하는 관문(關門)이었을 뿐만 아니라 순풍을 기다리며 머무는 휴식처이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이 정자가 경찰관주재소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연북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탐라지초본형등에, "연북정은 곧 객사(客舍)이다. 예전에는 성 밖에 있었는데, 선조 23년(1590, 경인)에 이옥(李沃) 목사가 성을 수리하고 동성(東城) 위에 세워서 쌍벽(雙碧)이라 편액하였다. 그 뒤 선조 32년(1599, 기해)에 성윤문(成允文) 목사가 중수하고 연북(戀北)으로 고쳐 편액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탐라지형에 "동쪽에 문이 하나 있고(城郭 朝天城 항목), 성 안에는 조천관·주구(廚廐)·군기고가 있으며, 동쪽 성 위에는 쌍벽루(雙碧樓)·연북정이 있다(防護所 朝天所 항목)." 하였고, 또 교수 곽기수의 '중창기'에는 "성을 동쪽으로 물려서 쌓고 성 위에 초루(譙樓; 門樓)를 안치하여 그 이름을 쌍벽(雙碧)이라 하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의문은 <탐라지형앞의 도표 참조)의 '쌍벽루'와 '중창기'의 '쌍벽(루)'가 동일 건물이냐 하는 것이다. 만일 동일 건물이라 한다면, 뒤에 이옥 목사가 지었다는 쌍벽정은 문루의 편액을 그대로 땄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옥 목사의 쌍벽정은 쌍벽루(문루) 그 자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탐라지형와 이후의 읍지류에 한결같이 쌍벽루·연북정을 나란히 별개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송정규(宋廷奎) 목사의 기문에는 선조 33년(1600, 경자)에 정자가 창건되었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성윤문 목사 때의 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년의 차이가 있다. 송정규 목사의 기문(記文)을 풀이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관(舘)에 조천(朝天)으로써 이름을 지어 <조천관>이라 한 것은 한 섬의 공적(公的)인 행차(行次)와 사적(私的)인 행차를 위해서다. 무릇 바다를 건너 도성(都城)으로 가는 자는 반드시 이곳에서 순풍을 기다린다. 성(城)은 포항(浦港; 浦口) 사이에 있는데, 동남 모퉁이의 높은 곳

- 46 -

에 정자(亭子)를 세워서 연북정(戀北亭)이라 호칭하였다. 이 정자에 오르면, 하늘과 바다가 한 없이 넓어서 끝없이 보인다. 그러나 북쪽 육지의 여러 산들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할 수 없는 가운데 어렴풋이 나타났다 숨었다 한다. 사인(使人)이 개연히 감회가 일어나 "내 좋아하는 사람을 하늘 한 쪽에 그려보노라(望美人兮天一方)" 하는 시를 읊으며, 이따금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다.

정자는 만력(萬曆) 경자년(선조 33년, 1600)에 창건하였는데, 백여 년이 지난 갑신년(숙종 30년, 1704)에 무너지고 그 이듬해가 지나서 조방장(助防將) 고상원(高尙元) 군(君)이 나를 찾아와 말하기를, '연북정은 섬 안의 이름난 정자입니다. 지금은 터만 남았으니, 조천관은 명목이 없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농한기에 고쳐 짓지 않습니까?' 하였다. 나는 승낙하고 곧 번졸(番卒)을 덜어 내어 공료(公料)를 지급하고 그 일을 감독하였다. 고 군(高君)이 동말(冬末; 12월)에 일을 시작하여 몇 달 안 되어서 공사를 마쳤다. 또 주방과 회랑[廚廊] 8칸을 짓고 모두 기와로 덮으니 환하게 새로워졌다. 모양새가 이전에 비해 추가되니, 성두(城頭)는 꿩이 날개를 펴고 새가 깃을 치듯 아름다워 창주(滄洲)에 밝게 비치었다.

내가 보고 기뻐서 고 군(高君)을 돌아다보며 이르기를, '자네는 직무를 다하여 해이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잘하였다. 자네는 고을을 지키는 문호(門戶)가 맞이하고 보내는 일 뿐만 아니라 방어의 대비도 더욱 급하다. 지금 성 안에는 샘이 없다. 하루아침에 왜구(倭寇)가 이른다면, 자네는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니, 고 군(高君)이 말하기를, '적의 형세가 방어하기에 어려우면, 소규모의 수비로 병사들을 철수시켜 큰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이 섬의 방략(方略)입니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병가(兵家)의 법에, 땅에는 반드시 분쟁이 있다고 하였다. 적(敵)이 차지하면 우리에게 해롭고, 우리가 차지하면 적에게 해롭다. 대체로 적의 배가 침범해 오면, 반드시 먼저 점령하여 문득 닻을 내리고 곧 바다를 버리고 상륙할 것이다. 섬의 북쪽으로 향한 여러 포구에 배를 감춘다면, 이보다 더한 것이 없을 것이다. 이 섬의 득실과 한 고을의 안위는 여기서 결정된다. 비록 한 구역을 맡은 수령은 나라를 위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말라고 하였다. 오히려 두려운 것은 이 지역을 빼앗길까 하는 것이다. 하물며 뒤를 돌아보는 마음만을 믿고 적을 막을 수 있겠는가? 반드시 이를 포기해야 한다면, 어찌 성(城)으로 성(城)을 삼을 수 있겠는가? 샘이 없으니, 지지 않아도 스스로 깨어질 것이다.' 하였다. 고 군(高君)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성 동쪽에 샘이 있는데 거리가 10보도 안됩니다. 자그마한 개펄을 구하여 바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으니, 그리해도 좋다. 이 성을 보니, 3면이 바다로 둘려있고, 오직 동쪽에 있는 대(臺)가 높이 솟아 내려 굽어보고 있으니, 반드시 이를 아울러서 포괄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고 군(高君)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모든 관문이 모두 이와 같이 하여야 합당할 것입니다. 어찌 홀로 이 성 뿐이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여유 있게 행동하라고 하였다. 나 또한 임기가 만료되었다. 자네도 새로 사군(使君)이 부임하기를 기다려, 그와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하니, 이를 찬성하고 고 군(高君)은 유유이 물러갔다. 이에 그 말을 벽에 기록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보이노라."

- 47 -

4. 조천연대(朝天烟臺)의 역사와 현황



사진 4. 조천연대 모습

앞서 인용했던 세키노 타다시(關野雄)의 글에 의하면, “제주도에는 봉수와 연대가 많으며, 과거 5만분의 1지도에 실려 있는 것도 상당히 있다. 이들은 평지에 있는 것과 산정에 있는 것으로 그 구조를 달리하였다. 전자는 석괴(石塊)를 입방형(立方形)으로 쌓아 올려서 대(臺)를 만들었으나 후자는 이 석축(石築)으로 된 대(臺)가 현저하게 작은 대신에 별도로 3층으로 이루어진 원형에 토축(土築)의 기단을 가지고 있다. 양자는 해안에 가까운 조망하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였다.

봉수제도는 군사통신 수단의 하나로 변경의 긴급한 사정을 중앙이나 또는 변경의 다른 기지, 그리고 해당 지방의 주민에게 알려서 위급할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과거의 읍지류(邑誌類)에 의하면, 제주도 내에는 25개소의 봉수대와 38개소의 연대가 있었다. 나남환박물(南宦博物)형지봉(誌烽) 항목에는, “4면을 돌아가며 설치된 봉수와 연대가 63군데나 되는데, 여기에는 별장(別將)·망한(望漢)·봉군(烽軍) 등을 두어서 주야로 번갈아가며 지키고 동서로 서로 연락하여 영문(營門; 濟州營)에 도달케 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봉화는 평상시에는 한 개를 올리고, 황당선(荒唐船; 異樣船)이 모습을 드러내면 두 개, 지경에 가까워지면 세 개, 지경을 침범하면 네 개, 접전(接戰)을 하게 되면 다섯 개를 올린다고 하여, 정세의 완급에 따라 봉화수를 달리하였다. 즉, 밤에는 횃불로, 낮에는 연기로 올리는데,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며 만일 안개·구름·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봉화로써 신호가 통할 수 없을 때에는 봉수군이 다음 봉수대에까지 달려가 알린다(環四面燧燧烟臺 凡六十三處 各置別將.望漢.烽軍 晝夜守番 東西相准 以達於營門 常時一擧 荒唐舡現形二擧 近境三擧 犯境四擧 接戰五擧 夜炬晝烟 不敢差謬 若値雲暗 口傳相報 古有一烽於漢拏山腰及海南之白梁 以通緩急矣 海霧常冪今皆撤罷).”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 행해지는 것과 똑 같은 방법이었다.

또한 위책 지관방(誌關防) 항목에는, “사방의 둘레에 칼날 같은 돌들이 꼿꼿이 서 있어서 포구 주변에는 배를 댈 수 없기 때문에 예로부터 왜선(倭船)이 침범하여 노략질 하였으나 한 번도 이득을 얻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 뒤 화북·조천·어등(魚登)·애월·명월 등지의 포구에는 전선(戰船)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암초가 많아서 운용하기가 어려워 지금은 모두 훼파(毁破)되고 오직 9진에만 육군을 모아 조직하였다(四圍劒石束立 浦邊無可泊舟 自古倭舡之侵掠 無一得利者此也 中古禾北朝天魚登涯月明月等浦 各有戰艦 以其多礁難用 今皆毁破 只於九鎭團作

陸軍).”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봉화 두 개를 올리면 속오군병(束伍軍兵)이 각기 신지(信地)에 모여 대기하고, 세 개를 올리면 수첩군(守堞軍)이 성에 오르며 네 개를 올리면 화약을 장진하고 다섯 개를 올리면 접전을 하는데, 이는 예로부터 정해져 내려오는 약조(約條)라고 한 것이다. 더욱이 황당선이 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정(問情)을 마치기 전에는 거의 다 이와 같이 하며, 혹 연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야반에 장대(將臺)에서 각(角)을 불면 주성(州城) 내의 남녀노소가 무기를 들고 성에 오르는데 조금도 지체함이 없어서 방어의 치밀함을 엿볼 수 있다(烽火二擧 則束伍軍兵 各其信地聚待 三擧則守堞軍登城 四擧粧藥 五擧接戰者 自是約條 雖値荒唐舡漂到 未及問情之前 擧皆如此 或欲鍊習 夜半吹角於將臺 則州城中男女老少 執器登城 莫敢少緩 可見其防禦之密也).”고 하였다.

그런데 순조 때에 오면 많은 연대가 폐지되는 것으로 기록에는 나타난다. 즉, 『순조실록(純祖實錄)』형 11년(1811) 3월 30일자에 의하면, 비변사(備邊司)에서 “제주 세 고을의 긴요하지 않은 연대(烟臺)를 폐지하도록 청원한 데 대하여, 적당히 헤아려서 남겨둘 것은 남겨두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관찰사에게 지시하여 다시 제주목에 공문을 보내어 당장 폐지하여야 할 긴요하지 않은 것이 몇 곳인가 하는 것을 물은 다음 하나하나 따져서 지시를 받아 처리하게 하십시오.” 하고 보고하자,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고 했다.

또 같은 해 9월 7일자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형에도 비변사에서 “방금 전라감사 이상황(李相璜)의 장계를 보니, 전 목사 이현택(李顯宅)의 보고 내용을 낱낱이 들어 말하였는데, 그 내용이 이러하였습니다. 세 고을의 연대는 모두 38곳인데 그 중 30곳은 모두 요충으로 마땅히 남겨두어야 할 곳입니다. 그 밖에 8곳은 그다지 긴요할 것이 없는 데도 방치하여 쓸모가 없거나 남겨두어 폐해가 되고 있습니다. 줄이거나 없애달라는 민원(民願)은 세 고을에서 합심하여 말하였습니다. 제주의 연대와 봉수는 여러 곳에 널리 설치하였으나 조금도 방어하여 지키는 효과가 없고 단지 백성과 고을에 폐해가 될 뿐이라고 관찰사의 장계에서 고을의 보고를 낱낱이 들어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 고을 8곳의 연대는 긴요하게 여길만한 곳이 아닙니다. 모두 혁파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허락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19세기 중엽 이후 『탐라지초본』형 등 읍지류에 수록되지 않은 연대는 제주목의 함덕·좌가·귀덕·마두, 정의현의 소마로·종달, 대정현의 마희천(색포)·별로천 등 8곳이다.(고창석, 2009, ‘전근대의 역사유적’ 『表善面 歷史文化誌』형 제주특별자치도, 132~156쪽)

조천연대는 조천읍 조천리 2980번지에 위치해 있다. 조천진에 소속된 연대이다.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형 숙종 29년, 1703)에는 관곶연대(舘串烟臺)로 표기되었다. 기록상으로는 이 무렵부터 구체적으로 연대의 이름이 표기된다. 이전까지는 봉수와 연대의 구별 없이 봉수로만 표기되었다. 조천연대는 1976년 9월 9일에 제주도기념물 제23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조천리 일주도로에서 북쪽으로 가면 포구와 인접한 곳에 타원형으로 된 조천성과 함께 연북정, 비석거리가 있고, 그 북쪽으로 대략 300m 정도를 더 가면 해안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높은 언덕에 연대가 있다. 1975년에 복원되었으며, 주민들은 이곳을 연디동산이라 부른다. 연대에서 동쪽으로는 신흥리 해안, 서쪽으로는 원당봉 해안까지 바라다 볼 수 있다. 이 연대는 서쪽으로 별도(別刀) 연대, 동쪽으로 왜포(倭浦) 연대와 서로 연락을 취했었다.

- 49 -

<참고문헌>

○ 『增補耽羅誌』朝天鎭, '…所屬燧燧一[西山] 煙臺三[朝天.倭浦.咸德]' 烽燧,
○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鎭及烽煙臺, '朝天煙臺 自州東距三十二里 朝天所屬 別將所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所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朝天煙臺 東應倭浦 西應別刀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耽羅誌草本』燧燧, '朝天煙臺 在州東三十里 東應倭浦 西應別刀'
○ 『耽羅誌』燧燧, '朝天煙臺 在州東三十里 東應倭浦 西應別刀'
○ 『北濟州郡의 文化遺蹟』(Ⅰ)-先史·歷史-, 歷史遺蹟(1998).

5. 조천비석거리(朝天碑石路)의 역사와 현황



사진 5. 조천비석거리 전경

비(碑)는 어떤 사적(事蹟)을 후세에 오래도록 전하기 위해 나무나 돌·쇠붙이 따위에 글을 새겨 세워놓은 것을 말한다. 비석·빗돌·석비 등으로도 불리어진다. 비에 새겨 넣은 글을 금석문(金石文)이라 하는데, 대개는 사건 당시 또는 그와 가까운 시기에 기록되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된다. 비는 대개 비문을 새긴 비신(碑身)과 비신을 덮는 개석(蓋石; 冠石, 螭首), 비석을 받치는 대좌(臺座; 龜趺)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안치하기 위해 지은 건축물을 비각(碑閣)이라 한다. 그러나 요즈음 서민층의 묘소에는 이수와 귀부 없이 비신만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또 자연석의 일면을 갈아서 글을 새기고 위를 등글게 한 것을 갈(碣)이라 한다. 비는 재질에 따라 목비·석비·철비로 나누어지나 우리나라에는 목비로 현재 전하는 것은 없고, 철비가 간혹 있을 뿐 거의 전부라 할 정도로 석비가 많다. 비의 종류도 비문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 비의 경우, 선정비(善政碑)·사묘비(祠廟碑)·유허비(遺墟碑)·사적비(事蹟碑)·기공비(紀功碑)·정려비(旌閭碑) 등으로 일단 분류해 볼 수 있다.

선정비는 목사나 현감·판관들의 공적비가 이에 해당하는데, 대충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삼성혈과 향교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다. 이는 그곳과 관련이 있는 인물의 공덕을 칭송한 것으로, 이런 비를 송덕비(頌德碑) 또는 덕정비(德政碑)라 한다.

또 하나는 관청[지금은 주로 리사무소]의 입구나 도로변에 비석군을 이루거나 개별로 세워진 경우이다. 예전의 제주목 관내의 경우, 함덕・선흘・판포(예전에는 이들도 도로변에 세워졌을 것이다) 등지가 전자에 해당하며, 신촌・조천・김녕・구엄 등지가 후자에 해당한다. 이른바 비석거리를 말한다. 이런 비는 흔히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선정비・시혜비(施惠碑)・추모비(追慕碑)・애민비(愛民碑) 등의 이름을 갖는게 보통이다. 지방 수령을 칭송하는 이런 종류의 비는 한 때 크게 유행되어 지탄 받은 탐관오리의 비까지 세워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비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아니했으므로 조선시대 말기에는 수없이 세워졌다.

비문은 운문(韻文)으로 그 공적을 미화해서 표현하고 글 지은 이는 밝히지 않고 주로 세운 동리(洞里)를 밝히고 있는데, 한 마을, 두 마을 혹은 그 이상의 마을에서 공동으로 세운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석들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마멸 혹은 인위적인 작태에 의해 파묻히거나 깨어져버려 지금은 얼마 남아있지 않은 실정이다.

① 使相金公壽翼善政碑

이 비는 앞면에 '사상김공수익선정비(使相金公壽翼善政碑)'라 새겨져 있다. 비의 규모는 너비 34cm, 높이 75cm, 두께 14cm이다. 김수익 목사는 인조 27년(1649, 기축) 9월에 부임하고 효종 2년(1651, 신묘) 7월에 정의현감 안집(安緝)의 모함으로 파직되었는데, 백성들이 매우 애석히 여겼다고 한다.

② 使相李公源達去思碑

이 비는 앞면에 '사상이공원달거사비(使相李公源達去思碑)', 우측에 '삼재위치(三載爲治) 정다통하(情多通下) 일심구폐(一心捄弊) 사무유세(事務遺細)', 좌측에 '정유감일(丁惟減一) 적등구비(蹟登口碑) 역칙제사(役則除四) 서이조기(書以粗記)'라 각각 새겨져 있다. 비의 규모는 너비 36.5cm, 높이 73.5cm, 두께 14cm이다. 이원달 목사(문관)는 헌종 3년(1837, 정유) 11월에 부임하고 동왕 5년(1839, 기해) 3월에 사직하여 교체되었다. 재임 중 그는 곡식장부를 낱낱이 조사하여 비변사에 보고하였고, 평역미(平役米)는 8되를 감하였다. 사창(社倉)의 환모(還耗) 가운데 피곡(皮穀)으로 갑절이나 되는 수량을 받는 것은 영원히 혁파하였다. 각반(各班)의 요미(料米)는 평역고(平役庫)에 부치지 아니하고 이를 호고(戶庫)에 부쳤다. 영・목(營牧)의 군기마(軍器馬) 13필은 목장 말로 메어서 기르지 않고, 사창의 마료미(馬料米)로 말을 사서 각 청에 나누어주었다. 보민고(補民庫)의 원곡(元穀) 가운데 해마다 줄어드는 것은 사창에서 조사해 낸 곡식 3백여 섬과 진고(賑庫)의 모곡(耗穀) 150섬을 해당 창고에 옮겨 부쳐 산촌의 생마(生麻)와 해촌의 어물의 수봉(收捧)을 혁파하였다. 영・목의 관둔답(官屯畓)을 고쳐 측량하고 백미 150섬을 감해 주는 등 폐해를 제거한 것이 많았다. 기해(헌종 5년, 1839) 5월에 모흥단(毛興壇)의 삼신인(三神人)이 용출한 굴을 파려고 하자 삼성(三姓)이 굴 옆에 모여 곡을 하는 일이 있었다.

③ 使相李公宜植恤民善政碑

- 51 -

이 비석은 앞면에 '사상이공의식휼민선정비(使相李公宜植恤民善政碑)'라 새겨져 있다. 비의 규모는 너비 37.5cm, 높이 77cm, 두께 14cm이다. 이의식 목사(무관)는 헌종 12년(1846, 병오) 2월에 부임하고 동왕 14년(1848, 무신) 3월에 사직하여 교체되었다. 재임 중 그는 백성들의 원납전(願納錢)을 받아서 군기·기계를 크게 수리하였고, 금종(金鐘)을 부수어서 화로를 주조하였다. 남·서·우 3학당을 혁파하고 객사와 중인문(重仁門)을 중건하였다. 천일정(天一亭)을 창건하고 연무정(演武亭) 및 풍운뇌우단의 신실(神室)을 개조하였다. 중원문(中轅門)을 중건하고 삼성문(三城門)을 개수하였다. 간성(間城)을 더 쌓았고 성 전체의 여첩(女堞)을 개수하였다. 남수구(南水口)의 쌍홍예(雙虹霓)를 신축하였고 북성 밖 해변에 많은 잡목을 심어서 울타리로 삼았다. 삼재(三齋)의 수직생(守直生)을 낱낱이 조사하고 강(講)을 받아 승급시키거나 강등시켜 바로잡았으며, 각반(各班)을 고역(苦役)에 충당시켰다. 한정(閑丁)을 선발하여 20초(哨) 및 전. 후 두 보(部)를 더 설치하였고, 별아병(別牙兵)도 10초를 신설하고 삼읍민의 원전세(元田稅)로 바치는 콩과 가경전(加耕田)의 가막세(家幕稅)를 혁파하였다. 정의현 홍로촌에 과원을 신설하였다.

④ 使相白公希洙淸德善政碑

이 비석은 앞면에 '사상백공희수청덕선정비(使相白公希洙淸德善政碑)'라 새겨져 있다. 비의 규모는 너비 40cm, 높이 76cm, 두께 17cm이다. 백희수 목사(무관)는 철종 2년(1851) 7월에 부임하고 동왕 4년 12월에 교체되었다. 그는 부임하는 해 가을에 흉년이 들자 별저미(別儲米)와 내탕전(內帑錢) 1천 냥을 조정에 요청하여 빈궁한 백성들을 진휼하였다. 이 외에도 귤림당(橘林堂)의 개건과 유생(儒生) 강기석(姜琦奭)의 건의를 받아들여 '김충암유허비각(金冲庵遺墟碑閣)'을 세웠다.

⑤ 使相蔡公東健恤民善政碑

이 비석은 앞면에 '사상채공동건휼민선정비(使相蔡公東健恤民善政碑)'라 새겨져 있다. 비의 규모는 너비 29cm, 높이 61cm, 두께 17cm이다. 채동건 목사(무관)는 철종 6년(1855) 8월에 부임하고 동왕 8년 6월에 충청수사(忠淸水使)로 교체되어 갔다. 재임 중 그는 연상루(延祥樓)를 중수하였다.

⑥ 使相鄭公岐源永世不忘碑

이 비석은 앞면에 '使相鄭公□□(岐源)永世不忘□(碑)', 우측에 '決立盜□ 歷□□牧', 좌측에 '□□□□ 鮮見其徒'라 각각 새겨져 있다. 특히 앞면의 경우, 이름 부분은 공간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기원(岐源)으로 추정했다. 비의 규모는 너비 31cm, 높이 61cm, 두께 14cm이다. 정기원 목사(무관)는 철종 14년(1863) 정월에 부임하고 고종 원년(1864) 3월에 사직하여 교체되

었다. 재임 중 그는 임술민란(壬戌民亂)을 일으킨 강제검(姜悌儉).김흥채(金興采) 등을 체포하여 사형시켰고, 평역미(平役米)를 감면하여 금전(金錢)으로 대체하는 조치를 내렸다. 행정을 폄에 있어 청렴결백하고 강직하며 위엄이 있었다고 전한다.

⑦ 通判金公膺友善政碑

이 비석은 앞면에 '통판김공응우선정비(通判金公膺友善政碑)', 좌측에 '갑오십일월 일(甲午十一月 日)'이라 각각 새겨져 있다. 비의 규모는 너비 40.5cm, 높이 75cm, 두께 14cm이다. 이 비는 고종 31년(1894)에 건립되었다. 철종 정사년(1857)에 조천리에서 태어난 김응우 판관은 고종 29년(1892) 9월에 부임하고 동왕 30년 11월에 교체되었다. 정사가 청렴하고 부지런한 것으로 일컬어졌다.

⑧ 貢馬監官吳永救弊石

이 비석은 앞면 중앙에 '공마감관오영구폐석(貢馬監官吳永救弊石)', 우측에 '도회혁파(都會革罷) 자용명륵(玆庸銘勒)', 좌측에 '선인몽혜(船人蒙惠) 이전천사(以傳千祀)', 뒷면에 '기축육월 일(己丑六月 日)'이라 음각되어 있다. 비의 규모는 가로 31cm, 높이 83.5cm, 두께 12cm이다. 이 비석이 세워진 기축년은 1889년으로 추정된다.

6. 조천읍의 유적과 유물

가. 선사유적과 유물

1) 북촌리 바위그늘주거지 유적

지정번호 : 제주도 기념물 제42호
지정년월일 : 1990년 5월 30일
소재지 :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 275번지(속칭 고두기엉덕).

이 유적은 제주도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동굴을 그대로 이용한 선사시대(先史時代) 집자리 유적이다. 이 집자리는 이곳 지명으로 속칭 '고두기엉덕'이라 불리워진다. '엉덕'은 바위밑 그늘을 말하며, 그늘 부분이 곧 생활공간이 되는 셈이다.

바위그늘주거지는 정면의 폭이 11m, 높이 2.5m, 입구에서 안쪽까지 길이는 3m이며, 출입구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정남향으로 트여 있다. 동굴 내부는 커다란 암반으로 이루어진 평탄한 부분과 인위적으로 잡석을 깔아 고르게 만든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1986년 6월부터 2개월

간 발굴 조사한 결과, 잡석을 깔아 놓은 부분에서 토기, 나무열매, 조개껍질, 제분용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사진 6. 북촌리 바위그늘주거지 유적 모습

이 집자리에서는 여러 시기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가장 밑바닥 층에서는 한반도의 빗살무늬토기와는 다른 신석기시대 말기의 변형빗살무늬 토기가 나왔는데, 탄소 측정 결과 기원전 1,000년쯤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문화층의 탄소측정연대는 2950±25년이다. 이 시기에는 장기거주 흔적이 보이며, 이후 청동기시대, 탐라시대로 이어지면서 일시적인 집자리로 계속해서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닥면 서쪽은 천장에서 무너져 내린 큰 암반으로 평탄면을 이룬 반면, 동쪽은 무질서하게 천장에서 떨어져 내린 원래의 잔돌에 인위적으로 잡석을 깔아 면을 평탄하게 다듬었다. 여기에서 도구와 탄화된 좀피열매가 발견되어 이 구역에서 부엌일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의 존속시기를 판가름하는 것은 층위이다. 이러한 집자리는 일시적인 집자리이기 때문에 시기마다 좁은 공간 내에 층위와 평면상 위치를 달리한다. 총 5개 층위가 확인되었는데 각 층위별 시기와 유물 출토 상황은 각기 다르다.

① 제1층은 지하 15~25㎝까지의 표토층으로 비교적 많은 양의 조개 및 동물뼈 파편이 혼입된 흑갈색 토층이다. 근래에 버려진 유물도 포함된 교란층이나 원래는 삼국시대 문화층인 것으로 파악된다.

② 제2층은 갈색 사질토층(砂質土層)이다. 표토 아래 30~45㎝까지로 두께는 15~35㎝이다. 역시 조개 및 동물뼈 조각이 많이 섞여 있는 층위이다. 곽지패총 4지구 출토 적갈색 경질(硬質)의 심발형(深鉢形)토기와 같은 형식의 토기편이 다량 출토되었다. 층위 바로 밑과 제3층 사이에는 회갈색의 곱고 푸석푸석한 재층과 시꺼먼 목탄층이 3~6㎝ 두께로 일부 간층(間層)을 이루고 있다.

③ 제3층은 표토 아래 35~55㎝로 두께는 15~25㎝ 정도인 다소 밝은 흑갈색 점토층이다. 조개 및 동물뼈는 소량 혼입되어 있으며, 주로 곽지패총 5지구 출토 적갈색 항아리형 토기(곽지1식토기)가 출토되었다. 타지방의 유물로는 삼국시대전기(A.D 0~3000. 탐라전기)에 속하는 김해식(金海式) 토기의 손잡이 및 파편이 확인되었다. 적갈색 연질(軟質), 회색 와질(瓦質) 및 회청색 경질(硬質) 등 태토의 색깔과 경도(硬度)가 여러 가지이며, 손잡이편은 소뿔 모양을 납작하게 하고 가운데에 길쭉한 홈을 파낸 것으로 이 시대 남한 각지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김해식 토기 손잡이이다.

④ 제4층은 표토 아래 52~72㎝이고, 두께는 12~27㎝인 밝은 갈색 점토층으로 조개편이 제3층보다 다소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층에는 유물이 거의 없으나, 수점의 공렬토기편과 입술면

- 54 -

에 톱날장식이 있는 골아가리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⑤ 제5층은 맨 아래층으로 밝은 갈색의 사질토층이며, 조개편은 서로 엉켜 붙어 화석화 과정에 있는 고형질(固形質)로 되어 있는 층위이다. 표토 아래 67~83㎝까지이며, 그 두께는 25~37㎝이다. 신석기 시대 토기편이 원상으로 출토되는 층위로, 바로 밑바닥은 신석기시대 당시의 주거바닥으로 이어진다.

유물은 모두 신석기시대 토기로 구연부(口緣部) 아래에 3열 혹은 4열의 원형·삼각점렬무늬가 새겨진 점렬문토기, 구연이 이중으로 된 겹아가리토기, 조갯날 같은 돌자귀를 연속적으로 비스듬히 눌러 무늬를 장식한 어골(魚骨)무늬 토기 등과 함께 긴 관상(管狀)의 동물뼈를 세로로 쪼개고 갈아서 만든 긴 주걱 모양의 도구가 출토되었다. 이 중 신석기 시대 후기(B.C. 2000~1000)의 이중구연(二重口緣) 토기는 전남 흑산도패총, 경남 김해 수가리패총, 부산금곡동유적 등지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2) 다려도 제사유적

소 재 지 : 조천읍 북촌리 다려도
시　　대 : 탐라시대
지정사항 : 비지정

조천읍 북촌리 포구에서 전방 200m 앞에 놓인 다려도는 낚시장소로 유명하다. 500평 남짓되는 이 섬은 두 개의 작은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륙 안쪽의 섬에는 북촌리 주민이 만들어 놓은 팔각정이 자리하고 있다. 이 건물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토기편이 흩어져 있다. 아직 발굴조사를 행하지 않아 그 성격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일본 북구주의 예를 보면 이와 같은 성격의 제사유적이 존재하고 있어 참조가 된다.


사진 7. 다려도 원경

여기서 확인되는 유물은 전부 곽지1식 경질무문토기이다. 이곳의 문화층은 30cm 내외로 막바로 암반층과 연결된다. 즉 암반위에 유물이 흩어져 있는 셈이다.

- 55 -

3) 북촌리 유물산포지

소 재 지 : 조천읍 북촌리 포구 서편일대
시　　대 : 탐라시대
지정사항 : 비지정

북촌리 포구에서 서편으로 200m 지점의 바닷가에 위치한다. 북촌리 농협구판장에서 서편으로 난 소로를 따라가면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 부근의 해녀창고 주변이 유물산포지이다. 유물산포지의 범위는 대략 500여평 정도의 규모로 소규모 제3급 유물산포지에 해당된다. 이곳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경질무문토기편과 숫돌, 공이 등이다. 경질무문토기는 모두 자잘한 모래알갱이가 혼입되어 있고 기벽의 두께가 1cm미만으로 늦은 단계의 곽지 1식토기 속성을 갖고 있다.



사진 8. 북촌리 유물산포지 전경

4) 억수동 바위그늘집자리 (1)

소 재 지 : 조천읍 함덕리 산54번지(억수동 신성골프장내)
시　　대 : 탐라전기
지정사항 : 비지정

이 유적은 함덕리에서 선흘리로 올라가는 억수동 마을 입구 북쪽에 위치한다. 지금은 신성골프장 부지내 함덕리 산54번지내에 해당한다. 이곳의 지형은 크게 김녕~조천을 잇는 용암류 대지로 표토레벨의 굴곡이 심하고 토심이 매우 얕아 표토에 용암암반이 그대로 노출되는 지형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형여건으로 인



사진 9. 억수동 바위그늘집자리 (1) 모습

- 56 -

하여 이 지역은 화산 폭발 당시 용암이 대지 경사면을 따라 흘러 내리다가 식어 주름진 곳에 턱이 지면서 빈 공간이 마련되거나, 용암대지의 천장 부분의 두께가 얇아 시간이 지난 후 상부 압력에 의해 내려앉는 현상으로 인해 용암암반 천장하단에 바위그늘을 형성한 지점이 매우 많다.

유적의 정면은 아치형을 이루고 있으며 정면길이 5.2m, 높이 1.3m, 안쪽까지의 깊이는 3.25m이다. 트인 방향은 정남향을 가리키고 있다. 바위그늘 북쪽으로 돌담이 높이 1.5m, 길이 3m로 쌓여져 바위그늘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다. 바위그늘의 바닥상태는 돌담을 쌓을 당시 인위적으로 그늘 외부 흙을 가져와 20~30cm 가량 평평하게 다진 흔적이 보인다.

유물은 바위그늘 중앙부의 맨 안쪽 표토하 20cm에서 수습되었다. 유물은 곽지패총에서 출토되는 경질무문토기(곽지1식토기)편들이다.

5) 억수동 바위그늘집자리 (2)

소 재 지 : 조천읍 함덕리 억수동 신성골프장 내
시　　대 : 신석기시대
지정사항 : 비지정


사진 10. 억수동 바위그늘집자리 (2) 모습

이 유적은 앞서 바위그늘(1)에서 북쪽으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용암이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돌출되면서 식어 형성된 암반이 떨어져 내린 함몰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유적의 정면은 아치형을 이루고 있으며 정면길이 6.2m, 높이 1.4m, 안쪽까지의 깊이는 2.9m이다. 트인 방향은 정남향이고 내부에는 용암암반층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일부에만 20~30cm의 흙이 깔려 있어 문화층이 매우 얕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늘의 바깥은 상부 천정에서 떨어진 낙반석과 후대에 주변의 잡석을 이용, 본래는 뚝 떨어진 부분을 메우고 흙을 채워 놓은 상태이다. 유물은 내부 중앙의 암반바닥에서 신석기시대 토기편이 소량 수습되었다. 이 토기편은 그릇두께가 1cm 미만이며 그릇안쪽에 조흔문이 남아 있다. 이러한 조흔문은 북촌리, 사계리, 하모리의 신석기토기편에서 발견되는 후기신석기시대 토기편으로 이 동굴유적의 소속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

- 57 -

6) 억수동 바위그늘집자리 (3)

소 재 지 : 조천읍 함덕리 억수동 신성골프장 내
시　　대 : 탐라전기
지정사항 : 비지정


사진 11. 억수동 바위그늘집자리 (3) 모습

이 유적은 억수동 바위그늘집자리(2)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암암반층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자연적으로 그늘을 형성한 유형이다. 유적의 정면은 수평으로 들려져 있는 형태이고 정면길이 5.5m, 높이 1.2m, 안쪽까지의 깊이는 1.4m이다. 트인 방향은 남동향을 가리키고 있다. 유적의 바닥은 천장에서 떨어져 내린 낙석과 인근에서 인위적으로 들어온 할석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다. 토층은 대략 50cm 정도 쌓여 있으며 교란된 흔적이 없어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곽지1식토기)편이 확인되었다. 이들 바위그늘집자리는 바위그늘의 규모가 작고 유물이 소량인 점으로 보아 일시적인 주거형태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역사유적과 유물

1) 왜포연대

소 재 지 : 조천읍 신흥리 748번지
시　　대 : 조선시대
지정사항 : 제주도기념물 제23-13호(1996. 7. 18지정)

왜포연대는 조천읍 신흥리 784번지에 있으며, 조천진에 소속된 연대였다. 함덕종합고등학교에서 바다쪽으로 약 800m정도 떨어져, 포구와 가까운 서쪽 해안의 높은 언덕에 연대가 있다. 연대의 서쪽으로는 속칭 '엉장매동산'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함덕연대와 서산해안을 볼 수 있다. 조천연대와 왜포연대, 함덕연대는 거리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것은 주변 해안의 굴곡이 심하여 해상을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 58 -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대는 동쪽으로 함덕연대, 서쪽으로 조천연대와 서로 연락을 취했었다. 왜포란 이름은 지형이 바다 속으로 나아가 있기 때문에 '예개' '옛개「古浦」'라 하다가 왜포로 변했다는 설과 왜선이 정박했었기 때문에 붙여졌다는 설이 있다.



사진 12. 왜포연대 전경

2) 함덕리 유물산포지

소 재 지 : 조천읍 함덕리 1234번지 일대
시　　대 : 탐라시대
지정사항 : 비지정

이 유적은 함덕해수욕장 서편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다. 유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해당지번은 함덕리 1234번지 일대이다. 이 유적은 과거 강창언씨(전 제주대박물관)에 의해 최초로 소개된 유적으로, 당시에 통일신라시대의 陶器편으로 판단되는 유물이 수습·보고되었다.

또 사찰유적으로 문헌에 등장하는 江臨寺址가 있었던 곳으로 보고되어 있다. 청자·분청·백자편과 각종 수지문계통의 기와가 다량으로 분포하고 있다. 무문토기 등 선사시대 유물이 확인되지 않지만 이미 소개된 유물로 판단해 볼 때 지표하에 탐라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진 13. 함덕리유물산포지 전경(항공사진)

- 59 -

3) 북촌리 비석거리

소 재 지 : 북촌리 639-6번지(일주도로변 정지두께낭)
시　　대 : 조선시대
지정사항 : 비지정


사진 14. 북촌리 비석거리 모습

사상윤공구동청덕비 - 1815 목사 순조15년5월 순조17년10월 전출
사상윤공○○청백추사비 - 1815 목사 순조15년5월 순조17년10월 전출
목사김영수청덕비 - 1778 목사 정조2년12월 정조5년3월 교체
목사백공희수청덕선정비 - 1851 목사 철종2년7월 철종4년12월 교체
목사장공인식영세불망비 - 1848 목사 헌종14년3월 철종원년6월 사직
목사(파손)청덕비
사상이공(마멸)비

4) 환해장성

소 재 지 : 조천읍 북촌리 393-3번지
시　　대 : 조선시대
지정사항 : 제주도 기념물 제49-5호 (1998. 1. 7 지정).


사진 15. 북촌리 환해장성 모습

마을 동쪽 해안 동복리와의 경계선 인접까지 잔존해 있다. 지형은 대체로 안쪽이 높고 바깥쪽이 낮은 곳이며 지면은 다소 들어가거나 튀어나온 곳이다. 성의 상태는 허물어진 곳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하게 남아 있다. 성의 잔존 높이는 외벽이 1.8m, 내벽이 1.5m 내외이고 너비는 하단부가 약 1.2m, 상단부가 1.0m 정도이며, 길이는 256m정도이다.

- 60 -

5) 서산봉수

소 재 지 : 조천읍 북촌리 2683번지
시　　대 : 조선시대


사진 16. 서산봉수터 모습

서산봉수는 조천읍 함덕리와 북촌리의 경계를 이루는 해발 111m의 서산에 있었으며, 조천진에 소속된 봉수였다. 지번상으로는 조천읍 북촌리 2683번지에 해당한다. 서산은 서모, 서산악, 서우봉이라고도 불리워지며, 봉수대는 산 정상으로부터 해안선에 접한 해발 86m의 북쪽 봉우리에 위치했었다.

봉수대가 있던 정상은 사방이 탁트인 곳으로, 동쪽으로는 묘산오름과 입산봉, 서쪽으로는 함덕연대와 조천연대, 그리고 원당봉이 바라다 보인다. 봉수대를 낮은 곳에 축조한 이유는 주위 지형이 해안보다 안으로 들어가 있는 서우봉 정상에 비해 해안선보다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북쪽 봉우리가 해안을 감시하기에 용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서산봉수는 동쪽으로 입산봉수, 서쪽으로 원당봉수와 서로 연락을 취했었다. 현재 봉수대가 있었던 자리에는 해안경비 초소가 있어서 봉수대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

6) 평사동 와요

소 재 지 : 조천읍 함덕리 평사동 '와막팟'
시　　대 : 조선시대 중기경
수　　량 : 1기
지정사항 : 비지정

조천읍 함덕리 평사동 속칭 '와막팟'이라 불리는 지경에 있다. 동쪽에는 해발 111.3m의 서우봉이 있다. 요(窯)는 서우봉의 원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곳에 동서로 길게 만들어져 있다. 크기는 전체길이 1,100cm(훼손 240cm 포함), 너비 280cm, 높이 166cm이고, 내부 높이 158cm, 내부 너비 215cm이다. 가마는 현무암과 진흙을 빚어서 축조하였다. 지금은 화구 부분이 유실되었는데 1984년부터 1990년까지는 화구 우측(남쪽) 벽 일부가 남아 있었다. 뒷면

- 61 -

굴뚝 부분은 묻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성실(燒成室)은 뒤로 갈수록 높혀져 있는 듯한데 그 경사는 10°내외가 될 듯하다. 내부는 다른 시설물 없이 양쪽 벽에서 천장까지 반원을 이루고 있고 앞뒤로 길다. 가마의 좌우쪽에는 작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평지가 있으며, 여기에 많은 기와들이 산포되어 있다. 이 요에서 생산된 기와는 관아·사찰·주택 등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암키와·수키와 등의 평기와들이며, 암막새나 숫막새 등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사진 17. 평사동 와요 원경

기와의 종류는 '날기와(형태를 만들고 굽지않은 것)'와 '군기와(가마에서 구워진 것)'가 있다. 문양은 '어골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무문·어골사각문·어골원문·어골격자문·복합문' 등이 있다. 구전에는 가마를 '와막'·'와막팟'·'왯굴'이라고 한다.

- 62 -



도면 1. 조천읍 일대 유적분포도(국토지리정보원 1/25,000 참고)

Ⅳ. 조천진과 연북정 현황조사

1. 조천진[朝天鎭城] 현황조사

1) 문헌에 기록된 성곽 시설물

《世宗實錄》, 世宗21年 閏2月 壬午條에 보면, 도내에 군이 주둔하는 곳은 본주의 동쪽은 金寧, 朝天館이고(《世宗實錄》, 世宗21年 閏2月 壬午條:濟州都安撫使 韓承舜啓曰 (中略) 道內軍人屯戍之處 則本州東則 金寧, 朝天館(後略).)

ㄴ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형 : 을묘년(乙卯年, 명종 10년, 1555), "- 중략- 성(城)을 쌓아 방호소(防護所)를 설치하였다, 성의 둘레는 430여 척이고 높이는 10척이다. 성 안에는 우물이 없고 다만 동문만 있는데 문 위에 초루(譙樓)가 있다. 둘리워진 바닷물로 호(壕)를 삼았다. 방수(防守)하는 제도가 애월과 같았다."고 하였다. 조천포가 별도포와 함께 관항(官港)의 구실을 했던 것이다.

ㄴ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형(신축 10월 12일자) "곧 조천포로 향하였다. 연북정(戀北亭)에 앉아서 쉬었다. 정자의 이름은 예전에 쌍벽(雙碧)이라 하였는데 목사 이옥 때에 세웠다. 전 목사 성윤문이 중수하고 옛 제도를 자못 늘려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편액하였다."고 하였다.

ㄴ탐라지형 제주목 성곽 항목에는 "조천성(朝天城)은 조천포에 있다.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428척 7촌, 높이가 9척 1촌이며 동쪽에 문이 하나 있다."고 하였다. 또 방호소 항목에는 "조천소(朝天所)의 성 안에 조천관(朝天舘)과 주구(廚廐)·군기고(軍器庫)가 있고, 동성(東城) 위에는 쌍벽루(雙碧樓)와 연북정이 있다."고 하였다.

정조 10년(1786)경에 편찬된 ㄴ제주읍지(濟州邑誌)형 제주목 진보(鎭堡) 항목에는 "조천진의 성 안에는 객사(客舍)·군기(고)가 있고 동성 위에는 쌍벽루·연북정이 있다." 하였다. 여기서 객사라 한 것은 조천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헌종 때(7년 3월~9년 6월) 제주목사였던 이원조(李源祚)의 ㄴ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형 진보 항목에는 "조천진은 삼면이 바다로 막히고 한 곳으로만 통행하였다. 문 위에는 초루를 설치하였고 성 안에는 조천관, 연북정, 군기고가 있다. …연북정은 곧 객사(客舍)이다. 예전에는 성 밖에 있었는데, 선조 23년(1590, 경인)에 이옥(李沃) 목사가 성을 수리하고 동성 위에 세워서 쌍벽(雙碧)이라 편액하였다. 그 뒤 선조 32년(1599, 기해)에 성윤문(成允文) 목사가 중수하고 연북(戀北)으로 고쳐 편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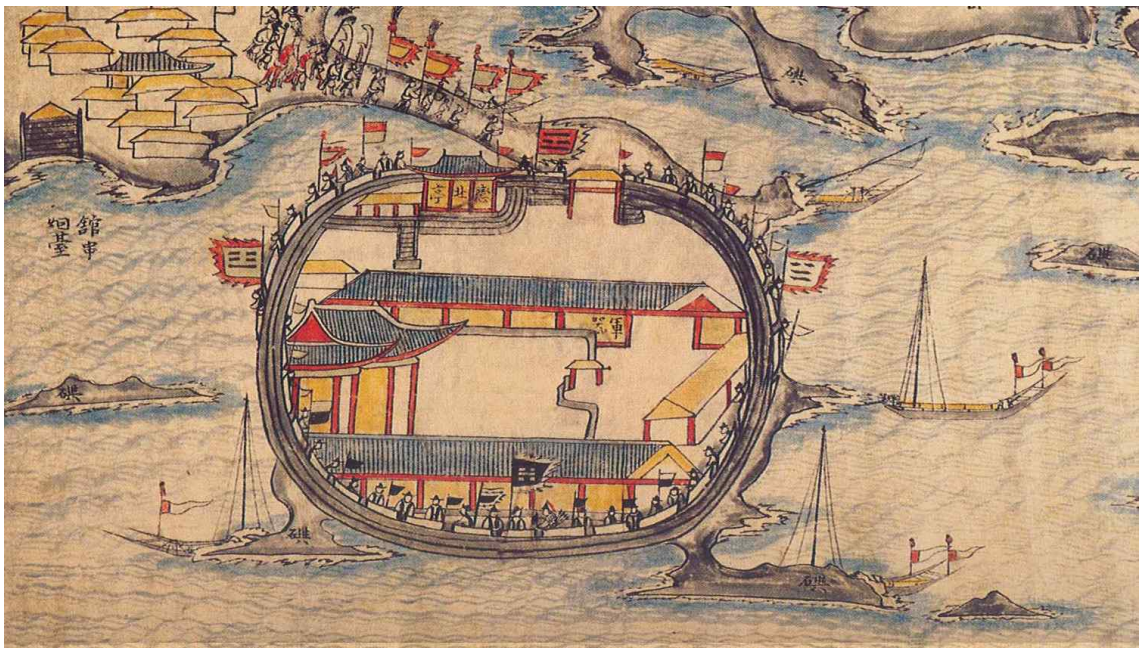
李益泰, 《知瀛錄》, 朝天館條를 보면, 사면이 바다에 둘러 海潮가 물러 가면 한쪽은 육지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거교(擧橋)를 만들어 이것으로 성문을 통했다. 그리고 많고 적은 사람들이 항해하여 왕래할 때 待風하는 곳이다. 그래서 방호소가 설치되었고, 조방장을 두었다. 성 주위

- 64 -

는 428척, 높이가 9척이다.(李益泰, 《知瀛錄》, 朝天館條: 四面環海 海潮退則 一方連陸 因作擧橋 以通城門此乃 大小人員 航海往來時待風所也 設防護所置助防將 城周四百二十八尺 高九尺.)

이를 요약하면, 조천 진성은 절제사 李沃候이 부임한 다음 해인 宣祖 23년(1590) 여러 공들과 협의하여 개축하였다. 그 일은 전 부장 徐萬鎰이 맡아 10월에 착공하여 겨울에 마쳤는데, 성곽을 동북쪽으로 퇴축하고 譙樓를 축조하였다. 결국 조천진성은 宣祖 23년(1590) 이전에 축조되었고, 이 때 성곽을 동북쪽으로 확장하면서 성내의 건물을 축조하는 등 재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ㅂ탐라지(耽羅志)형 ㅂ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형의 기록에 등장하는 성곽내의 건물은 조천관(朝天舘, 客舍, 迎賓舘)과 주구(廚廐)·군기고(軍器庫) 등이 있고, 동성(東城) 위에는 쌍벽루(雙碧樓, 譙樓)와 연북정이 등장한다.



삽도 2. ㅂ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형1702년)에 그려진 성내 건물지 현황도

1702년에 이형상목사가 화공 김남길에게 시켜 제작된 ㅂ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형에 의하면 조천관[객사], 주구, 군기고, 쌍벽루[초루], 연북정과 더불어 동편에 연대, 해안에 정박한 사후선[官船]이 잘 묘사되어 있다.

덧붙여 성곽에 거교(擧橋)가 시설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李益泰, 《知瀛錄》, <朝天館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성 주위가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서 이를 건너기 위한 교량 시설로 추정된다. 지금은 주변 지형이 심하게 형질 변경된 상태여서 그 흔적도 찾을 수 없다.

- 65 -

2) 문헌에 기록된 성곽의 규모

진성의 규모 및 시설에 대한 각종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하면 ①《南槎錄》: 周 430餘尺, 高10尺, 東1門,②《耽羅志》: 周 428尺7寸, 高9尺1寸 東1門, ③《濟州邑誌》: 周 428尺, 高7尺, 南置 1門, ④《濟州大靜旌義邑誌》: 周 240步 ⑤《耽羅誌草本》; 周 240步, 高9尺, 1門 ⑥《耽羅誌》: 周 428尺7寸, 高9尺1寸 東門1門, ⑦《濟州郡邑誌》: 周 428尺7寸, 高9尺1寸 東門1門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를 검토해 보면, 진성 개축 후 가장 빠른 기록인《南槎錄》에는 성곽의 규모는 둘레가 430尺, 높이가 10尺으로 되어 있다. 그 후에는 성곽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濟州大靜旌義邑誌》와《耽羅誌草本》에는 성곽의 둘레가 240步, 높이가 9尺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用尺의 차이로 인한 것이지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성문도 축조 때부터 東門 1門만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데,《濟州邑誌》에 '南置一門'이라고 한 것은 동문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3) 현장조사

조천진성은 해발 1~2m의 완만한 경사면에 南高北低의 지형 위에 위치하고 있고, 성곽의 북측은 해안에 접해 있다. 조천진성의 지적도와 현지조사에 의하면, 성의 평면 형태는 남북을 장축으로 한 타원형이다. 조천진성의 성벽 내부면적은 2,472㎡이며, 성벽의 둘레는 약 128m이다. 또 남서쪽에 위치한 성문을 기준으로 하여 연북정을 포함한 둘레는 약 180m이다.

성곽은 대부분이 원형대로 남아 있다. 이 성곽의 남측 성벽 위에는 북녘의 한양을 바라보며 연군의 정을 기린다는 戀北停이 있다. 성문은 축조당시에 동문 1문으로 되어 있는 바, 지금도 東門址가 남아 있다. 성곽은 외벽 높이가 2.2~4.3m, 상부 폭이 1.6~3.1m이다.

축조방식은 제주도 현무암을 거칠게 다듬어 허튼층 쌓기로 협축하였고, 외벽의 기울기는 거의 직선형 성벽으로 단경사를 이루고 있다.

朝鮮朝 肅宗 28년(1702) 목사 李衡祥이 조천 진성을 순례할 때 그린《耽羅巡歷圖》의「朝天操點」에는 성 중에 객사[조천관], 연북정, 군기고 등 모두 5동의 건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연북정을 제외한 당시 건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다.

2. 연북정(戀北亭) 현황조사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바닷가에 위치한 조선시대 정자이다.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 있다. 연북정은 客舍로 원래 朝天鎭城 밖에 지었다고 하나 창건 연대는 미상이며, 1590년(선조23)에 李沃 節制使가 성을 동북쪽으로 물려 쌓고 그 위에 옮겨 세워 雙碧亭이라 하였다. 그리고 1599년(선조 32)에는 成允文 목사가 그 건물을 중수하고 임금을 사모한다는 뜻으로 戀北亭이라 개칭하였다. 지금의 건물은 1973년에 보수한 것인데, 보수 당시 "龍嘉慶二十五年庚辰(순조 20년, 1820)二月十五日 辰時入柱上樑 虎"라 한 명문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연북정은 1820년(순조 20)에 마지막으로 보수된 듯하다.

이 정자가 세워져 있는 조천포구는 화북포와 함께 관원이나 도민들이 본토를 왕래하는 관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순풍을 기다리며 머무는 휴식처이기도 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이 정자가 경찰관주재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연북정은 원래 높이 14척의 축대위에 남동향으로 정면(正面) 3칸, 측면(側面) 2칸으로 전후좌우퇴(左右退)가 있는 제주 민가형 건물이다. 지붕이 합각지붕으로 된 것만이 민가와 다르다. 방형주초에 각주를 세우고 기둥머리에 퇴보를 놓고 여기에 직각으로 장여를 보내어 도리를 받쳤는데 사괘 맞춤한 기둥이 도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바닥은 퇴칸이 토상(土床)이고, 내진(內陣)에는 우물마루로 해서 사방이 정자처럼 틔어 있으나 예전에는 석축벽(石築壁)을 둘러서 사용한 적이 있다.

중창기에 위하면 성벽위에 초루를 세워 이름을 '쌍벽(雙壁)이라 하고 무기고, 창고, 당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진내의 중심 건물로 지은 것으로 보인다. 내진고주의 보아지와 판대공의 투박한 마무리와 낮은 물매의 지붕, 단청도 없는 간결함이 이 건물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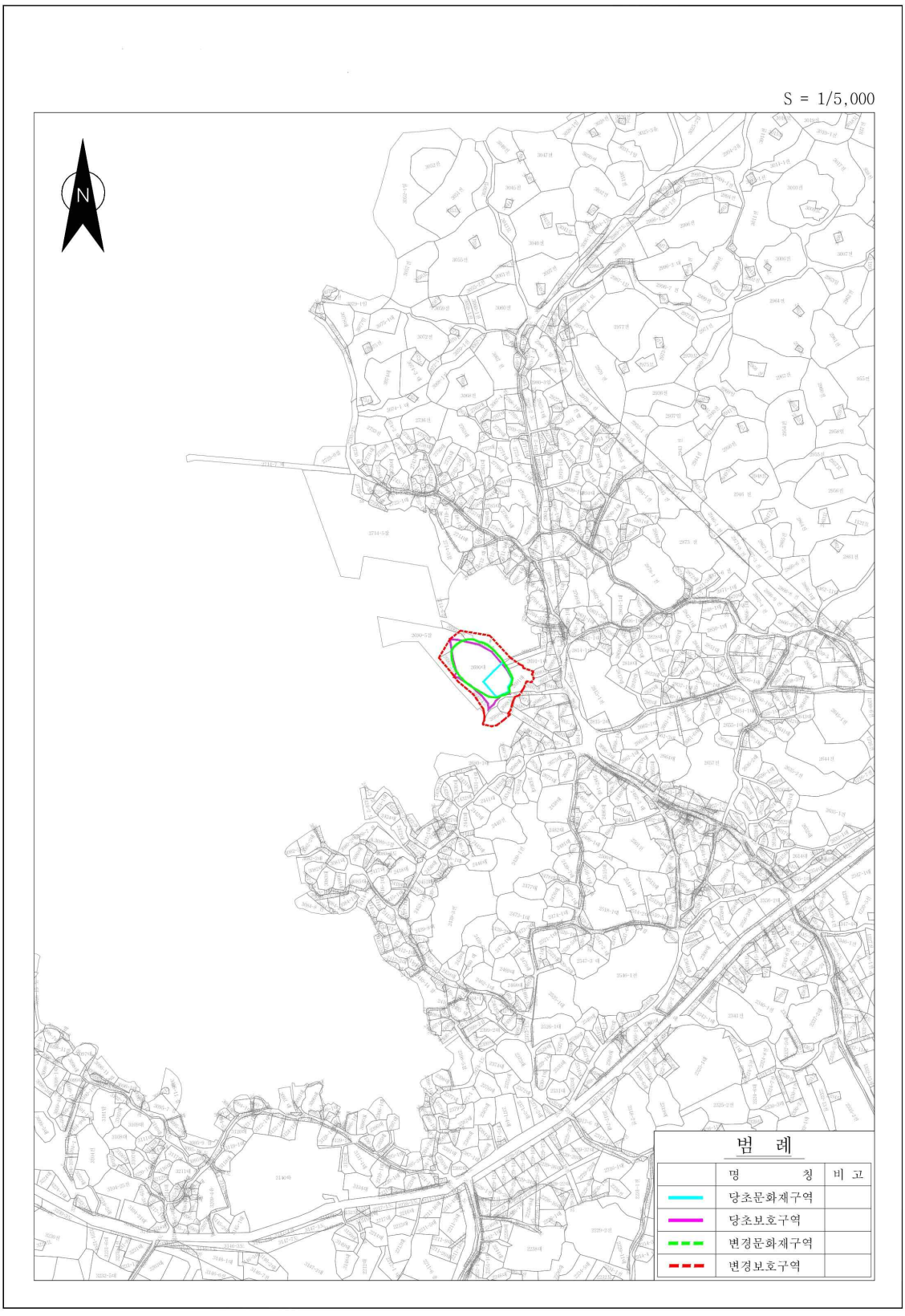
삽도 3. 1960년대의 조천진성내 연북정(북제주군, 1997, 北齊州郡 半世紀, 181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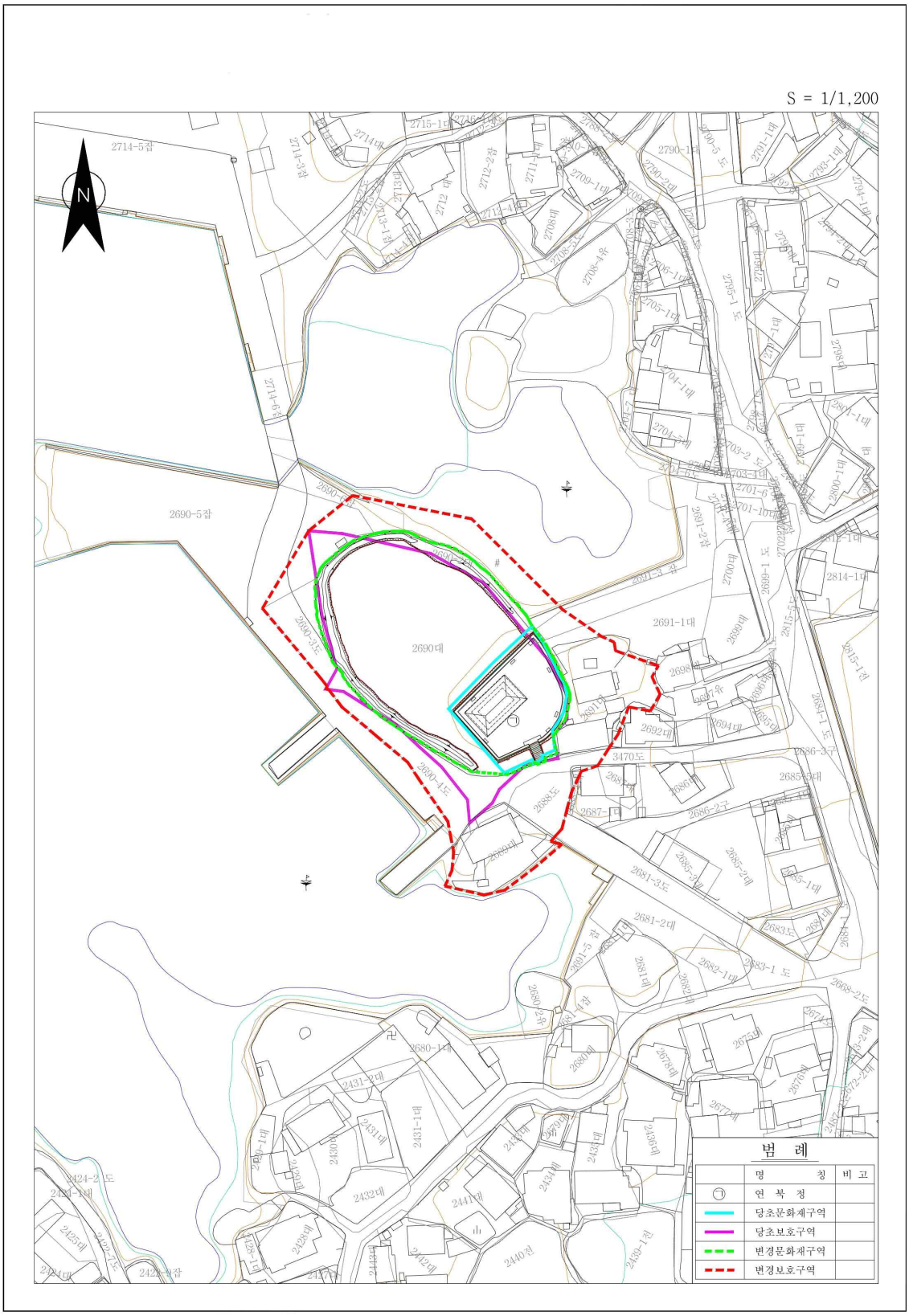
삽도 4. 1971년 조천진성내 연북정(북제주군, 1997, 北齊州郡 半世紀, 181쪽 참조)



삽도 5. 1996년의 조천진성내 연북정(북제주군, 1997, 北齊州郡 半世紀, 181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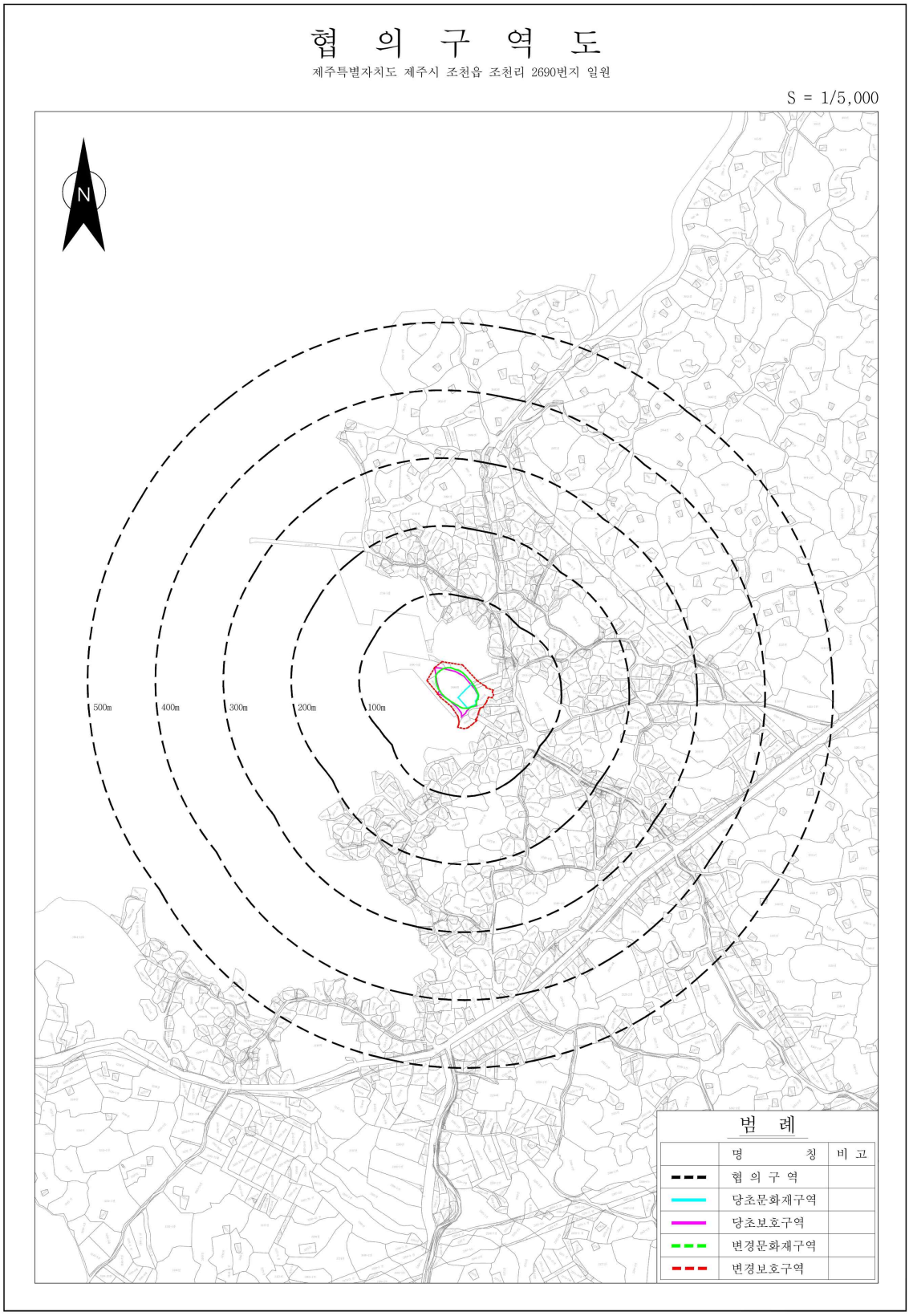


도면 2. 조천진 및 연북정 현황측량도(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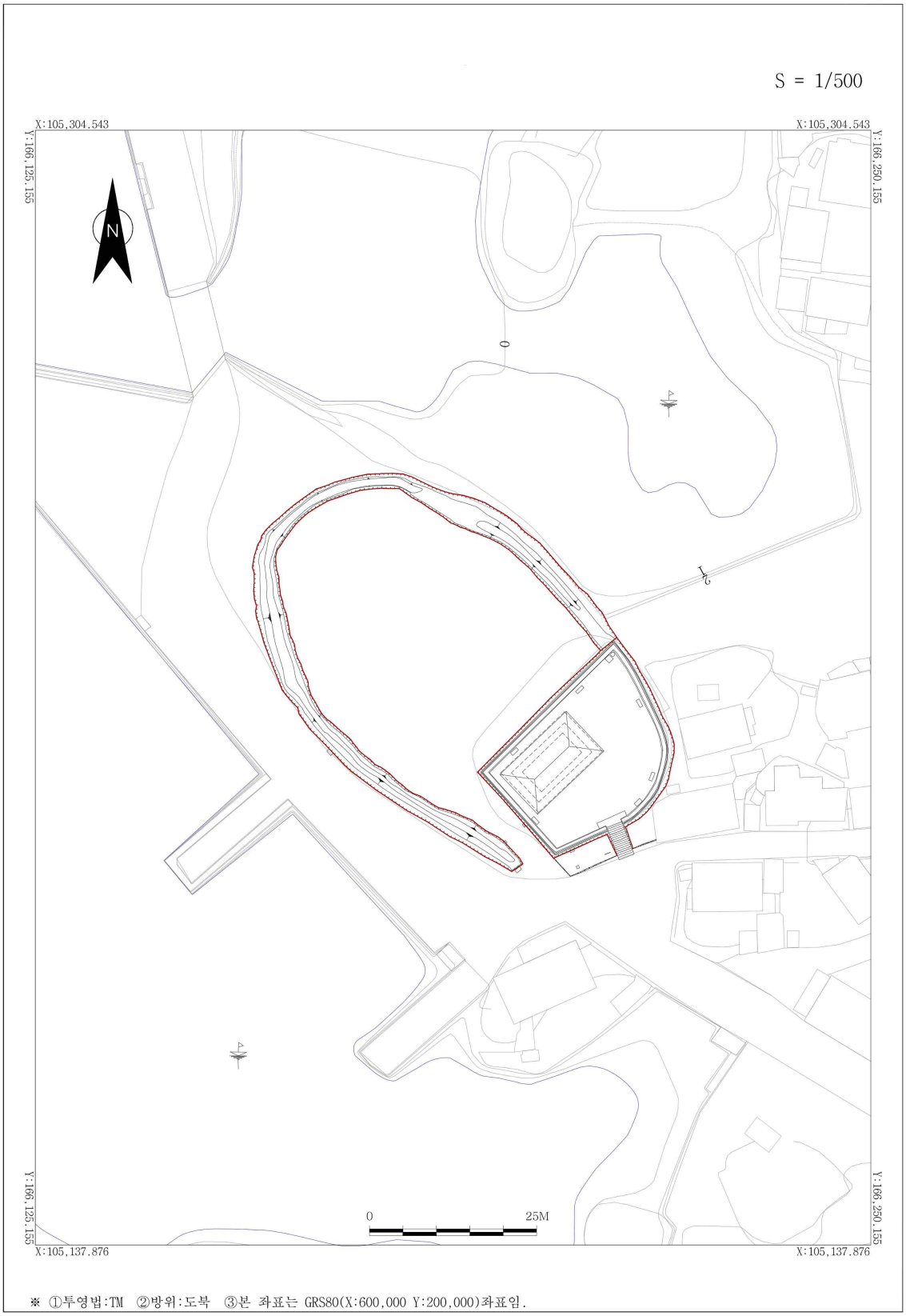
도면 3. 조천진 및 연북정 현황측량도(1/1,200)

- 7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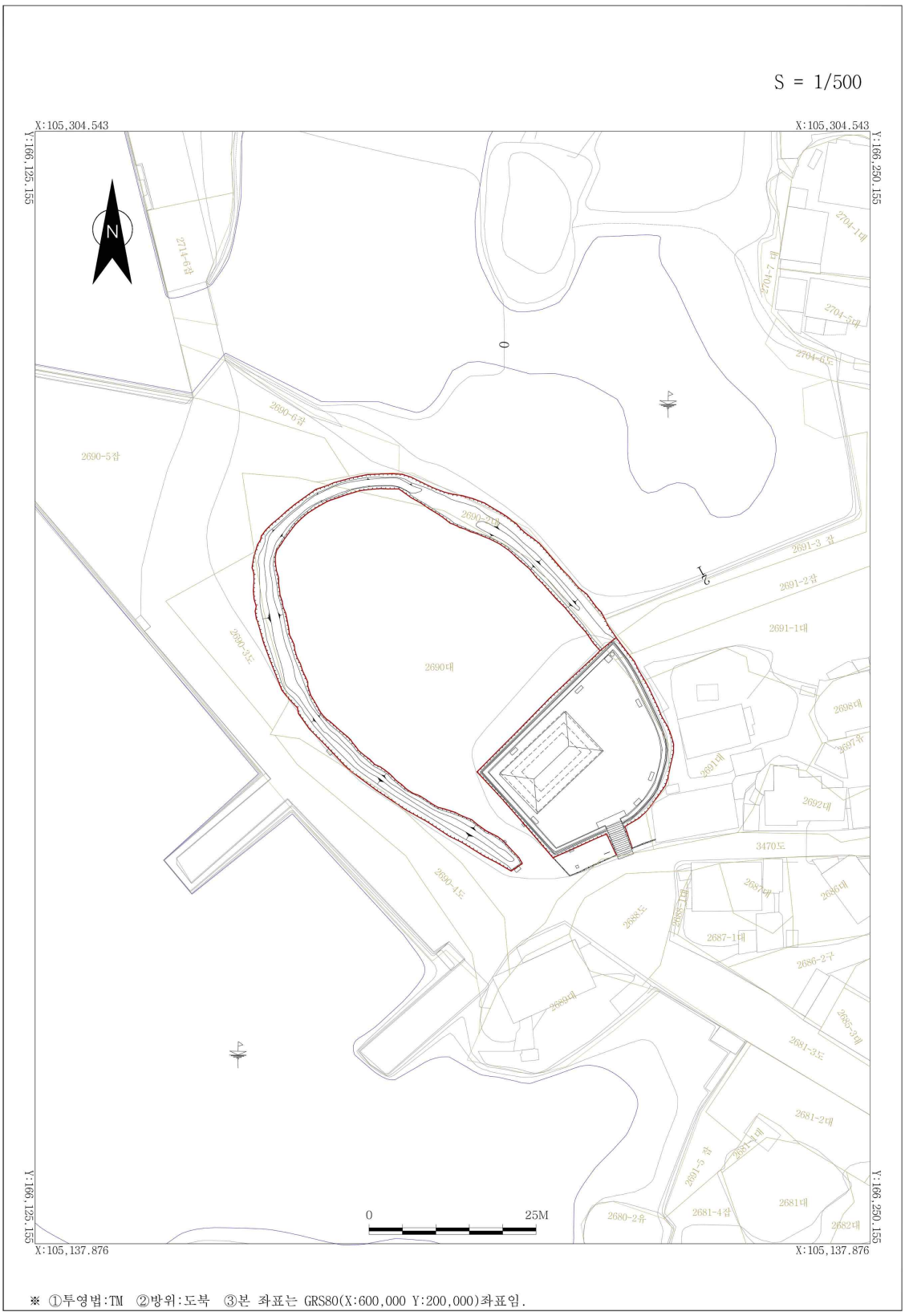


도면 4. 조천진 및 연북정 문화재 지정 협의구역도(1/5,000)

- 71 -



도면 5. 조천진 및 연북정 현황 지형측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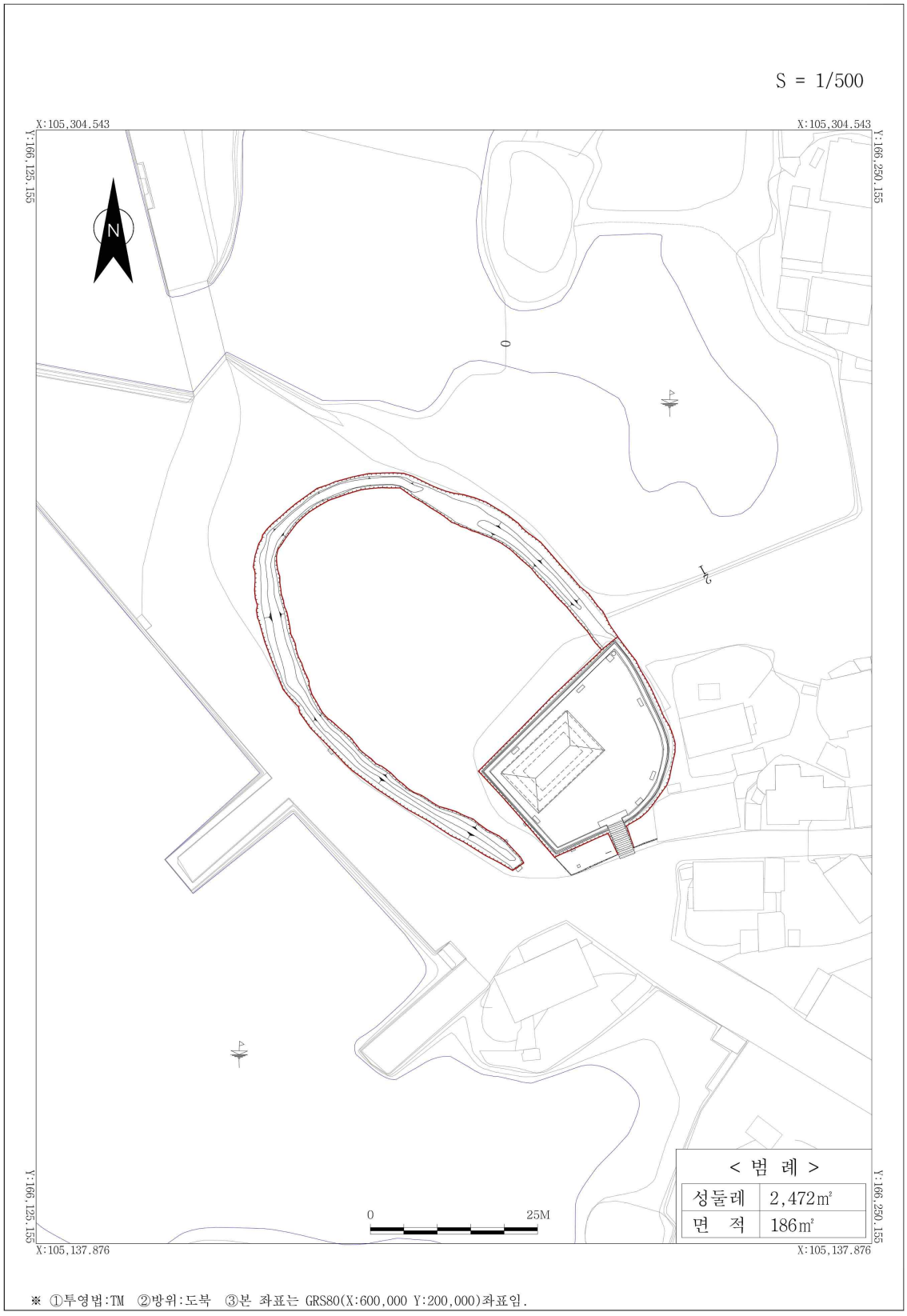


※ ①투영법:TM ②방위:도북 ③본 좌표는 GRS80(X:600,000 Y:200,000)좌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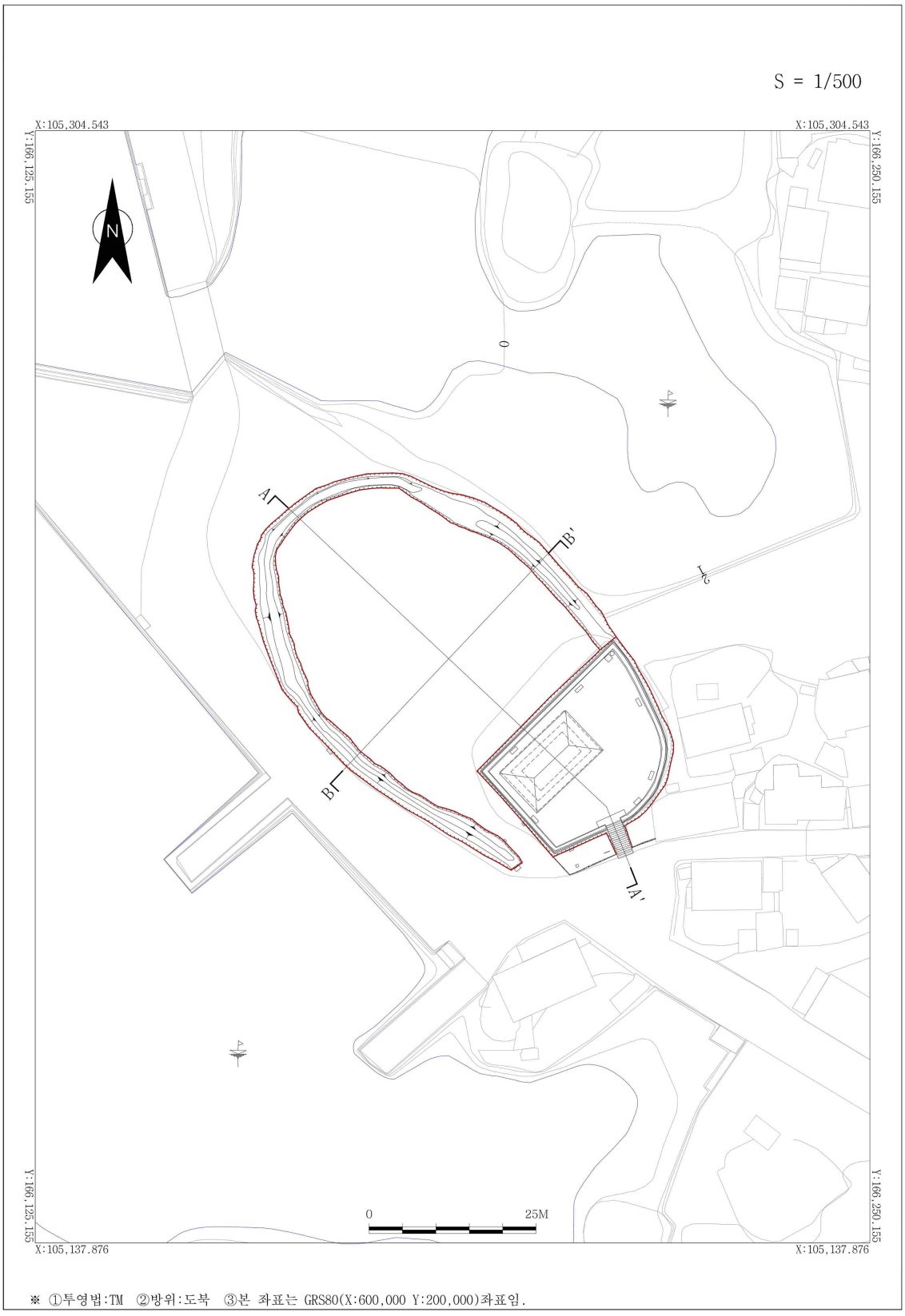
도면 6. 조천진 및 연북정 지형도+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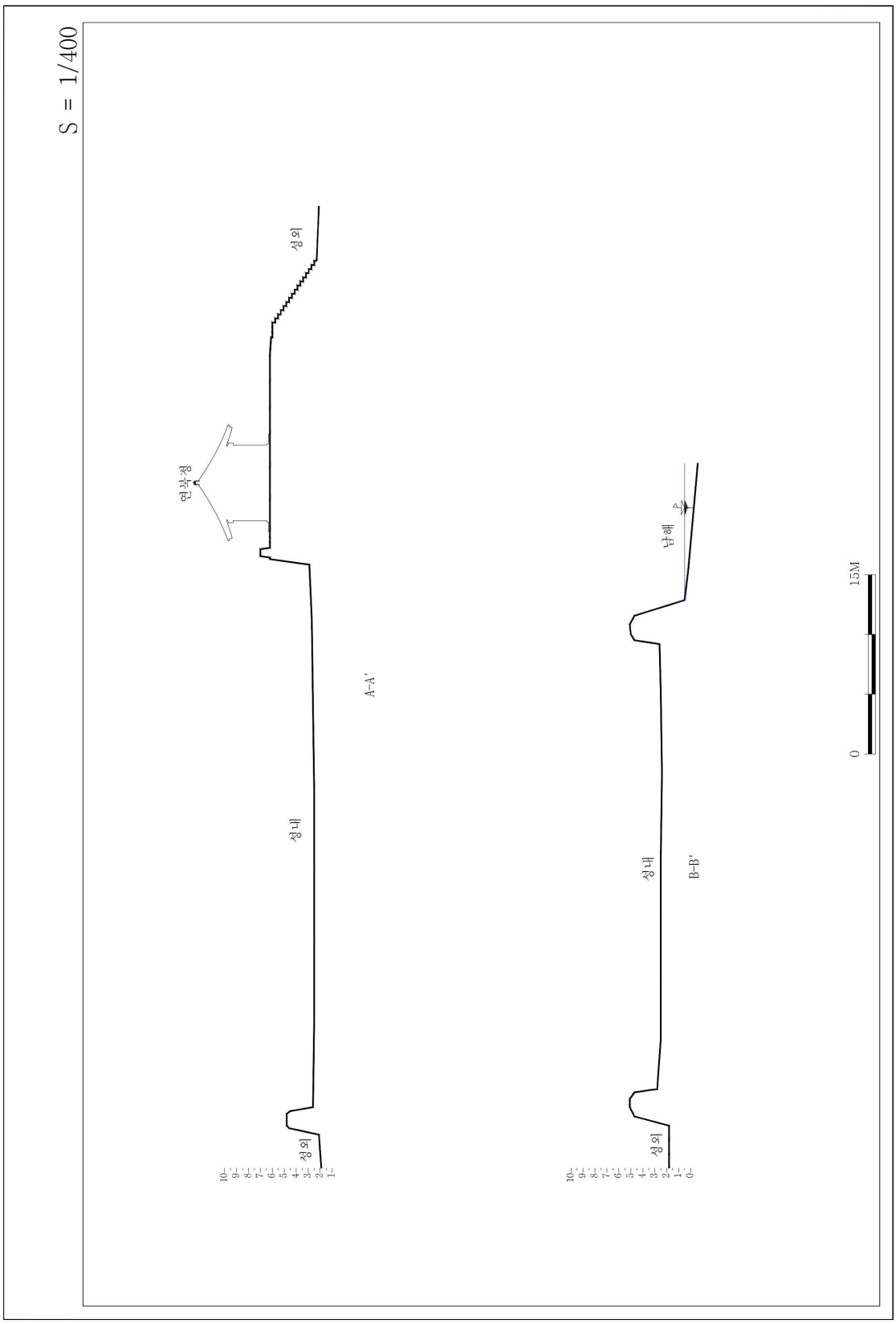
도면 7. 조천진 및 연북정 지적도



도면 8. 조천진성 측량도(면적,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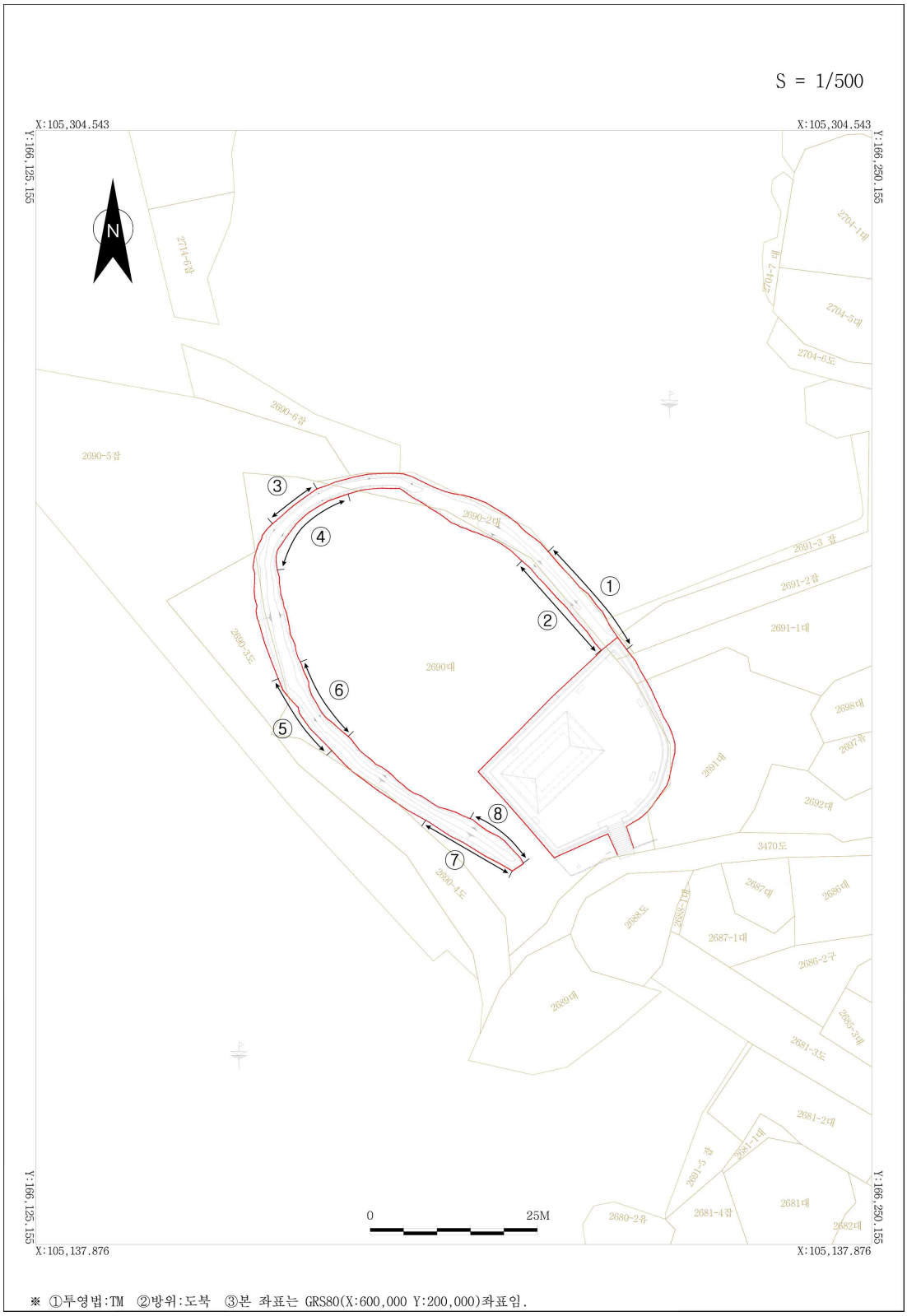


도면 9. 조천진 및 연북정 단면 측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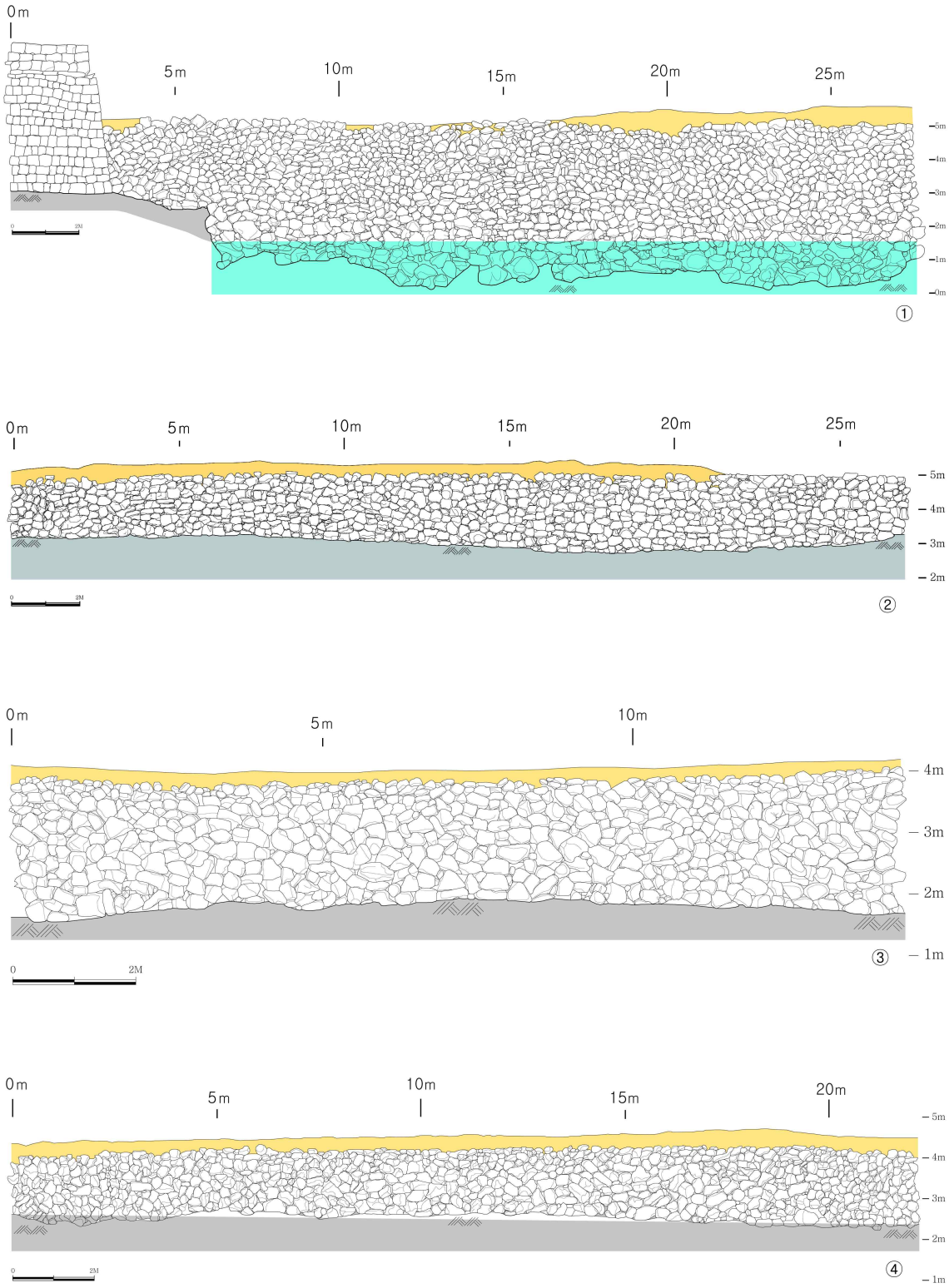


도면 10. 조천진 및 연북정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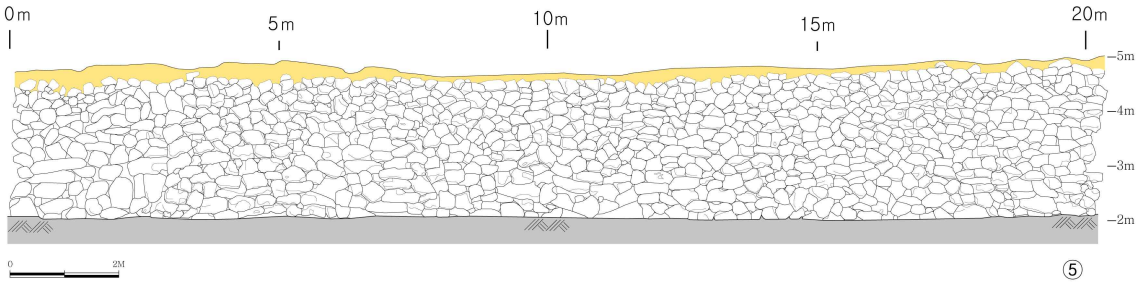
- 7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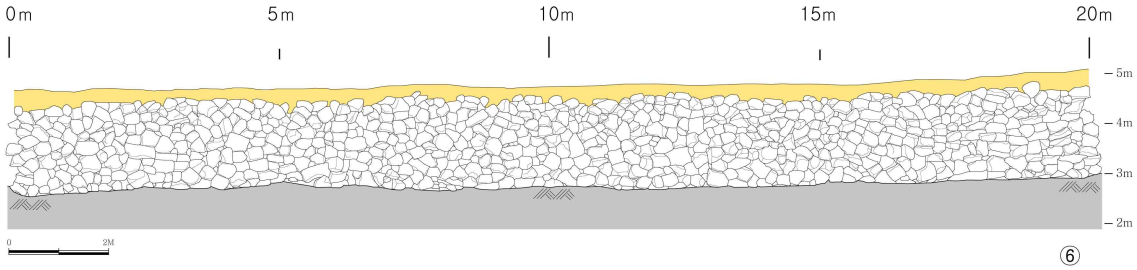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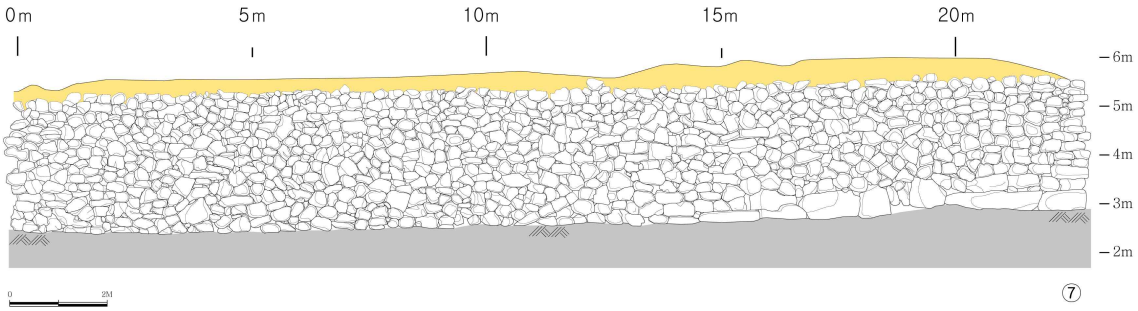
도면 11. 조천진성 성벽 측량도(○안 번호는 측량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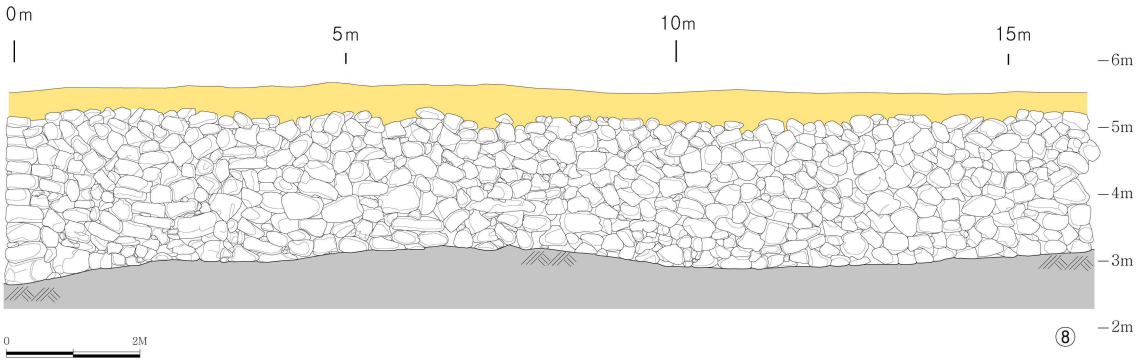


도면 12. 조천진성 성벽 측량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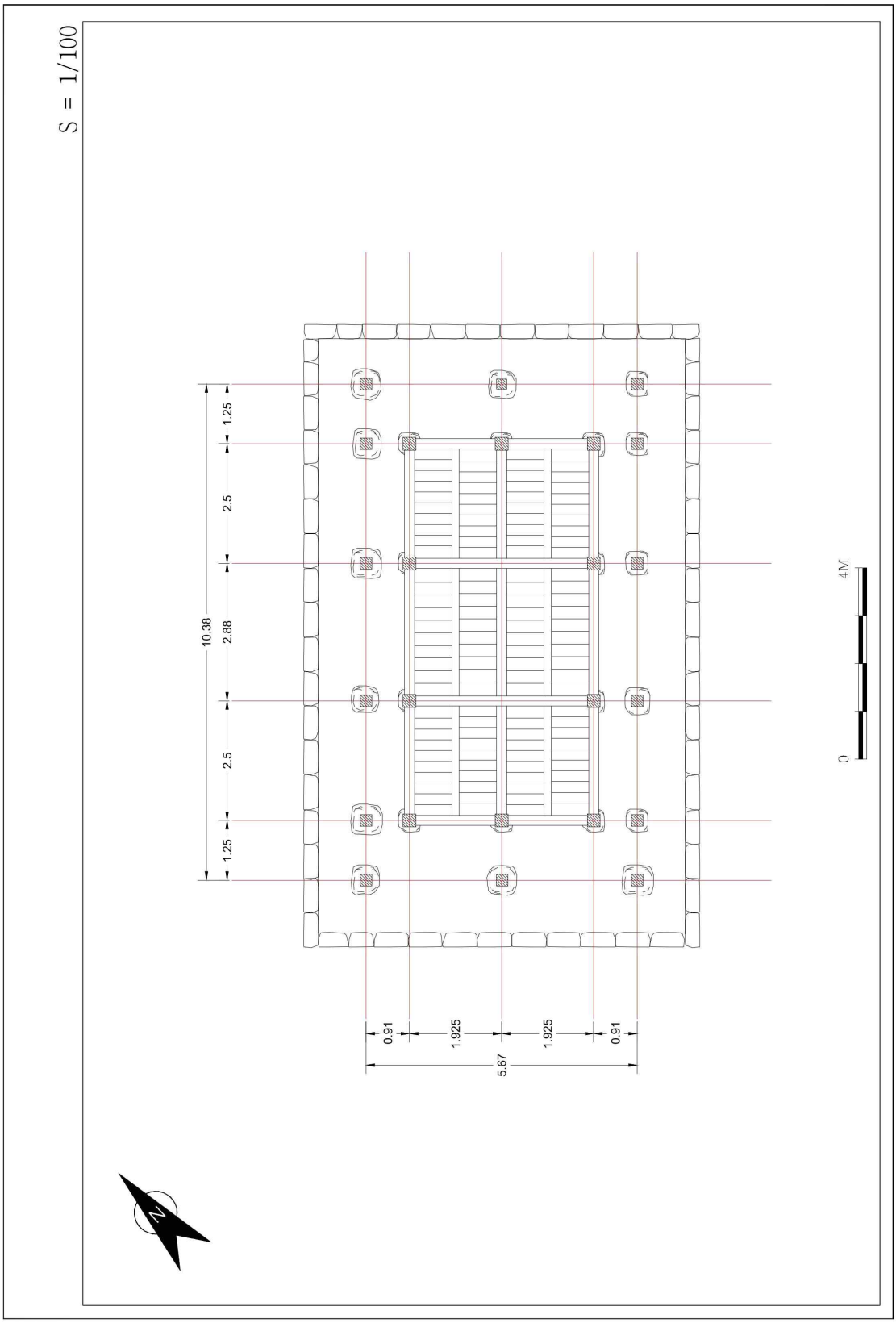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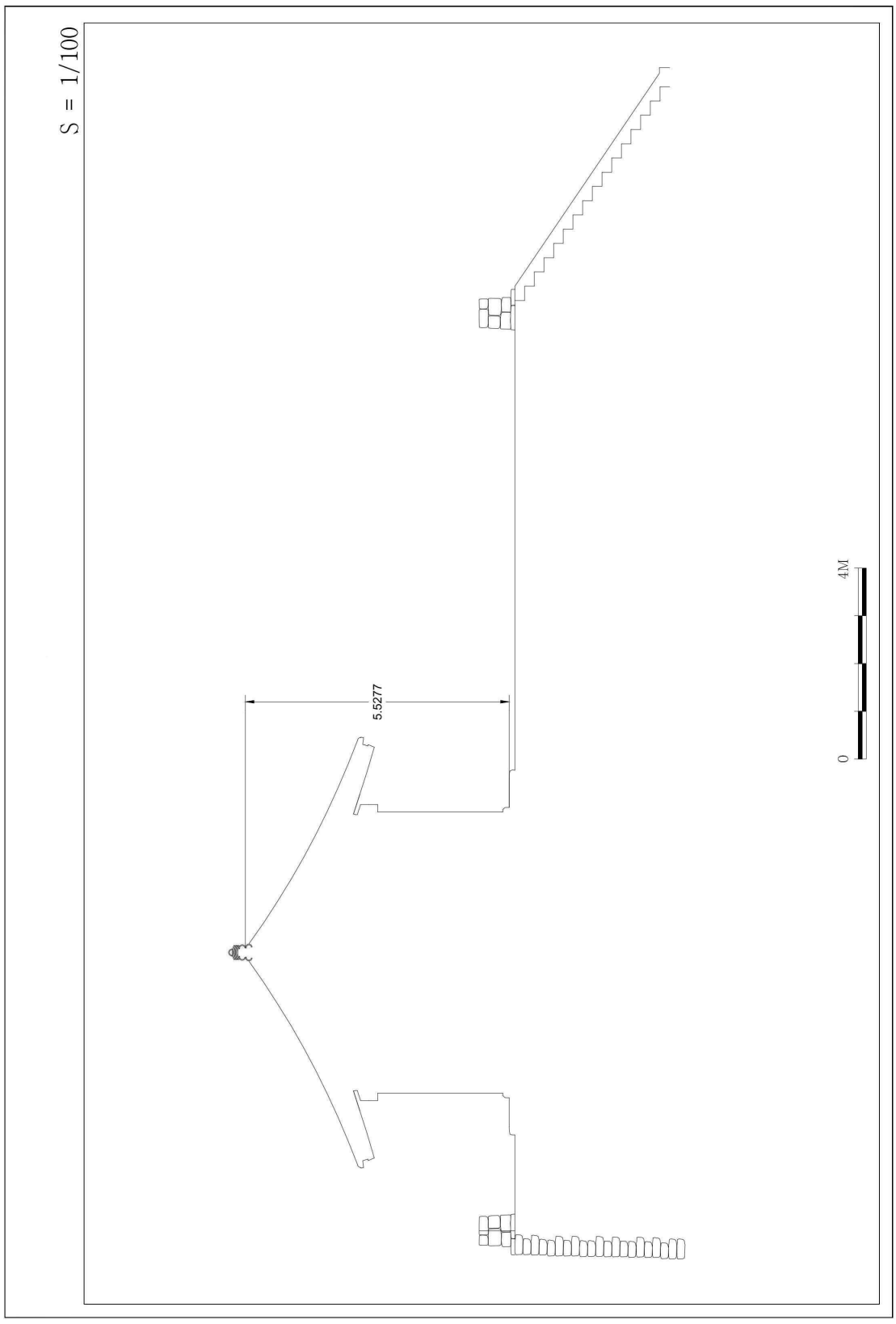


도면 13. 조천진성 성벽 측량도(2)

- 80 -



도면 14. 연북정 평면도



도면 15. 연북정 측면도



사진 18. 조천진 및 연북정 항공사진(북에서)



사진 19. 조천진 및 연북정 항공사진(동에서)

 - 83 -



사진 20. 조천진 및 연북정 항공사진(남에서)



사진 21. 조천진 및 연북정 항공사진(서에서)

- 84 -



사진 22. 조천진 및 연북정 항공사진



사진 23. 조천진 및 연북정 항공사진(직상)

- 85 -



사진 24. 조천진 및 연북정 전경(북에서)



사진 25. 조천진 및 연북정 항공사진 세부

- 86 -



사진 26. 조천진 북면 세부모습



사진 27. 조천진 서쪽 성벽 근경

- 87 -



사진 28. 조천진 동쪽 성벽 원경



사진 29. 조천진 성벽 단면 모습

- 88 -



사진 30. 연북정 정면 모습(남쪽)



사진 31. 연북정 측면 모습(동쪽)

- 89 -



사진 32. 연북정 현판 근경



사진 33. 연북정 내부 모습

- 90 -



사진 34. 연북정 내부 추녀



사진 35. 연북정 외부 추녀 근경

- 91 -



사진 36. 연북정 기둥 모습



사진 37. 연북정 기둥 세부모습

- 92 -

Ⅴ. 유사 유적 사례 분석

1. 진도 남도석성 답사와 사례분석

유적명	남도석성	
개요	위치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남도길 8-8 (남동리 149)
	구성	석성, 남문, 성내부시설인 관아(동헌) 및 객사군기
	지정사항	국가지정 제127호(지정일:1964년 6월10일)
	홈페이지	http://tour.jindo.go.kr
유적성격	남도 석성은 고려 원종때 배중손 장군이 삼별초군을 이끌고 진도로 남하하여 대몽항쟁의 근거지로 삼고 최후까지 격전을 벌인 석성이라고 전한다. 이 성은 조선시대 수군진영의 진지로서 그 보존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남도석성에 있는 쌍교와 홍교는 석성의 외곽으로 건너 다니기 위하여 축조한 것인데, 편마암의 자연 석재를 사용한 것으로는 전국적으로 보기 드물어 학계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려시대 고종 이후 시작한 왜구의 침범이 연해 지방을 노략질 함으로써 충정왕 2년 (1350)에는 진도의 관부와 백성들은 내륙 영암지방으로 옮겨 조선시대 세종 19년(1437년)까지 피난생활을 하다 다시 귀향하기도 했다. 이 성의 축성 연대는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가장 불리한 경상도 및 전라좌수영 관하의 수군진들이 1488년 (성종 19년)에서 1490년(성종 21년)까지 3년간에 걸쳐 축성되고 전라우수영 관하의 수군진들이 연산군 - 중종 연간에 축성된 점으로 미루어 볼때 성종 - 연산군 연간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현황	남도석성 본래의 규모는 그 둘레가 1,233자, 높이가 8자, 샘과 우물이 각각 1개씩 있었다. 현재 성지는 거의 원형적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동문, 서문, 남문터가 있다. 현재 성의 총 길이는 610m, 높이는 5.1m다.	
복원 및 정비 현황	성벽과 남문지는 복원되었으며 내부 건물지(관아[동헌]와 객사군기)도 일부 복원되어 있다. 발굴조사가 일부 진행됨. 내부 민가에서 주민들이 생활함.	
유적 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	진도군에서 관리 성 내부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원 및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음 주변에 위치한 선소(船所)유적과 사대(射臺)활터가 국가사적으로 추가지정됨 성 외곽에 흐르는 세운천에 세워진 단홍교과 쌍홍교가 특징적임.	
사례분석 결과		
비고	남도석성 및 주변정비기본계획-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진도 남도석성 발굴조사보고서-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사진 1. 남도석성 전경(합성)



사진 2. 남도석성 전경(합성)



사진 3. 남도석성 원경



사진 4. 남도석성 원경



사진 5. 남도석성 남문과 옹성



사진 6. 남도석성 남벽



사진 7. 남도석성 남문



사진 8. 남도석성 남문



사진 9. 남도석성 관아



사진 10. 남도석성 만호 비석군



사진 11. 남도석성 서문



사진 12. 남도석성 서문 초석

- 95 -

2. 강진 전라병영성 답사와 사례분석

유적명	전라병영성	
개요	위치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137번지 일원
	구성	성곽, 성문, 내부건물지 발굴조사중
	지정사항	국가사적 제397호
	홈페이지	http://tour.gangjin.go.kr
유적성격	전라병영성(全羅兵營城)은 조선 태종 17년(1417년)에 설치되어 고종 32년(1895년) 갑오경장까지 조선조 500여 년간 전라남도와 제주도를 포함한 53주 6진을 총괄한 육군의 총지휘부이다. 그러나 1894년 갑오농민전쟁(동학)을 맞아 병화로 소실되었고, 이어 1895년 갑오경장의 신제도에 의해 폐영되고 말았다.	
유적현황	병영성 성곽의 총 길이는 1,060m이며, 높이는 3.5m, 면적은 93.139㎡(28.175평)이다. 병영성 내의 당시 건물이나 유적은 소실되고 없으나 성곽은 뚜렷이 남아 있어, 그 역사적 의의를 고려하여 정비, 복원 중이다.	
복원 및 정비 현황	한울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 진행중 성벽은 복원완료(기존 성벽을 허물지 않고 그 위로 보존하여 원래 성벽과 복원된 성벽이 명확히 구분됨) 현재 출입시설인 성문을 복원하고 있음	
유적 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	현재 북문과 서문이 복원중이며 남문과 동문은 복원이 완료됨 내부 건물지(전체면적의 1/4가량) 발굴조사 중 : 한울문화재연구원 주변관광지 및 연계 문화재 : 병영비자나무, 홍교, 석장승, 하멜기념관 특히 병영성은 서양에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소개했던 하멜이 1656년 강진 병영으로 유배되어 7년 동안 살면서 노역했던 곳으로 주변의 '하멜 기념관'과 함께 하멜 관련 역사문화 유적지로서의 역할도 크다. 병영면 비자나무는 천연기념물 제 39호로 지정된 수령 850여 년의 노거수다.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면 소리를 내어 운다고 하여 신목으로 불린다. 지방유형문화재 제 129호로 지정된 병영 홍교(일명 무지개 다리)는 보존 상태가 완벽한 병영의 명물이다. 하단부 중앙에는 정교한 용머리 조각이 새겨져 있다	
사례분석 결과	앞으로의 성곽복원 방향을 제시하는 복원사례(기존 성곽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새롭게 복원된 부분과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게 함) 내부 건물지 조사가 완료되면 건물지 복원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비고	1991년 목포대학교박물관 : 『강진 병영성』학술총서 1999~2003년 5차에 걸친 성문지, 옹성, 체성, 치성 등 성벽조사 :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08년 (재)마한문화재연구원 - 동쪽 성문지, 남쪽 체성부 발굴조사	



사진 13. 전라병영성 전경(합성)



사진 14. 전라병영성 전경(합성)



사진 15. 전라병영성 남문과 옹성



사진 16. 전라병영성 남벽



사진 17. 전라병영성 남서쪽 치성



사진 18. 전라병영성 서벽

- 97 -



사진 19. 전라병영성 남문



사진 20. 전라병영성 남문



사진 21. 전라병영성 동문



사진 22. 전라병영성 동문



사진 23. 전라병영성 남벽



사진 24. 전라병영성 남벽 복원 모습



사진 25. 전라병영성 동벽



사진 26. 전라병영성 비석군

- 98 -

3. 나주 만호정 답사와 사례 분석

유적명	만호정	
개요	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343-1
	구성	정자, 안내판
	지정사항	전라남도 기념루 제145호(지정일 : 1992년 11월 30일)
	홈페이지	www.hwasun.jeonnam.kr
유적성격	만호정(挽湖亭)은 고려시대 초기에 건립되었다고 전해지며 이때는 무송정(茂松亭)이라고 하였다 한다. 그후 어느 때인가 무송정은 쾌심정(快心亭)으로 개칭되었다가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영평정(永平亭)이라 개칭하였으나 정자가 퇴폐(頹廢)됨에 따라 1601년(선조 35)에 중수하면서 만호정으로 개칭하여 중수를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 정자에서 향약(鄕約) 및 동규(洞規)를 시행하였는데 내용이 정사기(亭史記)와 철야대동계안(鐵冶大同契案)에 전하고 있다. 경관이 수려한 덕용산(德龍山) 아래에 철야마을이 펼쳐지고 느티나무 노거수(老巨樹)와 연못들로 이루어진 이 마을의 입구에 장굉(壯宏)한 모습의 만호정이 자리하고 있다.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인 이 정자는 동규 등을 논의하는 아정동각(芽亭洞閣)으로, 그 성격이 중합된 영풍정자(詠風亭子)로서는 그 규모가 큰 개활무실형(開豁無室形)정자이다.	
유적현황	마을입구의 평탄한 대지에 허튼층 막돌 토방을 다진 후 그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고졸(古拙)한 두리기둥으로 정면 어간은 좁게 퇴문은 넓게, 측면은 등문으로 기둥을 세웠다. 주두결구(柱頭結構)는 창방, 평방 위에 연꽃무늬를 초각(草刻)한 절충식 이익공을 짰다. 그리고 그 위에 대들보, 종, 중보를 두고 측면에는 홍예보 위에 판대공을 설치하여 칠량가를 형성하였다. 천장은 연등천장이고 지붕은 팔작와가(八作瓦家)이며 처마에는 부록(附錄)을 달아 장려함이 더하다. 이 정자는 동리형성(洞里形成), 성씨세장(姓氏世庄)의 목조정자로서 비록 여러 차례 중건, 중수과정을 거쳤으나 건축양식이 고졸장대(古拙壯大)하며 영풍정자적(詠風亭子的) 성격과 아정(芽亭)으로서 휴식적 성격 및 향약시행 등의 규범적 성격이 중합된 마을의 다기능 정각(亭閣)으로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복원 및 정비 현황	기둥과 마루 등 목재의 부식이 심함	
유적 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	주변 문화재 : 나주 철천리 마애칠불상(보물 제461호) 나주 철천리 석조여래입상(보물 제462호) 나주 용곡리 이팝나무 주변에 지석묘가 위치하고 있음	
사례분석 결과	만호정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예로 목재의 부식과 좀벌레에 의한 훼손이 심함 현재는 마을 정자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임 -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비고		



사진 27. 나주 만호정 정면



사진 28. 나주 만호정 측면



사진 29. 나주 만호정 측면



사진 30. 나주 만호정 내부



사진 31. 나주 만호정 처마



사진 32. 나주 만호정 내부 현판

- 100 -

4. 화순 송석정 답사와 사례 분석

유적명	송석정	
개요	위치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강성리 754
	구성	정자 및 한옥(관리동)
	지정사항	지정사항 없음
	홈페이지	
유적성격	송석정은 강가에 튀어나온 기암괴석과 소나무, 대나무에 가려져 있다. 조선조 선조때 훈련원첨정(종4품)을 지낸 양인용이 광해군때 당쟁으로 정계가 혼란해지자 벼슬을 버리고 홀연히 고향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시문으로 벗들과 담소하며 유연자약한 여생을 즐긴 곳이다. 양인용의 한시 외에도 김창흡, 조희일, 정방, 안방준 등의 시가 있다.	
유적현황	화순읍에서 19km 남쪽에 위치한 입교(갓다리)를 건너서 냇둑을 따라 북쪽으로 500m지점에 바위군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모습이 보이며, 그 뒷편으로 소나무 숲 사이에 송석정이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 8평 넓이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이 정자는 주변의 강물과 바위와 산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복원 및 정비 현황		
유적 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	최근까지 관람객을 위한 쉼터로 개방하였음 앞의 한옥집을 관광객과 연계한 찻집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관광객의 감소로 현재는 관리동으로 이용됨 제주양씨 문중에서 새롭게 단청하여 산뜻하기는 하나 고풍스런 맛이 없어짐	
사례분석 결과		
비고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에서 태어난 학포 양팽손의 증손인 양인용(梁仁容)은 광해군이 등극한 후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시키고 인목대비를 서궁으로 유폐시키자 이의 부당함을 충간했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1613년에 건립한 정자이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팔작지붕 정자이다	



사진 33. 화순 송석정 원경



사진 34. 화순 송석정 전경



사진 35. 화순 송석정 근경



사진 36. 화순 송석정 처마



사진 37. 화순 송석정 내부



사진 38. 화순 송석정 비석

- 1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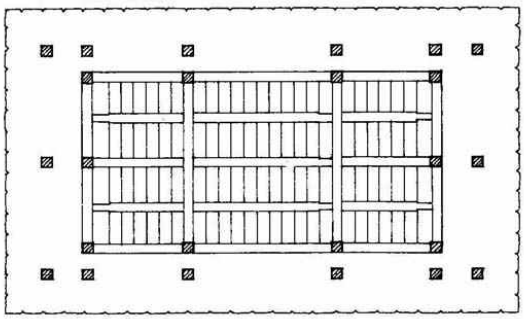
Ⅵ. 조천진과 연북정의 정비와 복원 계획

1. 연북정 보수정비 현황 및 건물 특징

연북정은 원래 조천진성 외부에 있었던 객사로 알려져 있으며 최초 축조연대는 정확하지 않다. 1590년(선조23년) 절제사 이옥이 진성을 동북쪽으로 물려 타원형의 진성을 쌓았는데 이것이 제주의 해안방어용으로 축조된 9진의 하나인 조천진성이며 진성위에 건물을 옮겨 세우고 쌍벽정이라 불렀다. 이후 1599년(선조32년) 제주목사 성윤문이 건물을 보수하고 연북정이라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객사형식으로 지면에 있었다가 진성축조 이후에 성곽위로 옮겨져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연북정은 1973년 보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림 115> 조천진 및 연북정 전경



<그림 116> 연북정 평면

조천진성의 높이는 14척으로 그 위에 세워져 있는 연북정은 조천포구를 비롯하여 바다와 주변경관을 즐길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동남향의 좌향(坐向)을 하고 있으며(그림1) 전면3칸 측면2칸으로 전후, 좌우에 퇴가 있어 제주민가형식에 가까운 평면(그림2)이며 합각지붕형식을 취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건축물은 특별한 장식 없이 투박한 편이다. 간결한 마감형식 뿐만 아니라 다듬어진 주초위에 각기둥을 세운 후 기둥머리 부분을 퇴보와 장혀 등으로 처리한 간결한 구조도 특징적이다.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으나 툇간은 흙바닥으로 되어 있고 사면 모두 개방되어 있으며 낮은 물매의 지붕도 특이하다. 1971년 8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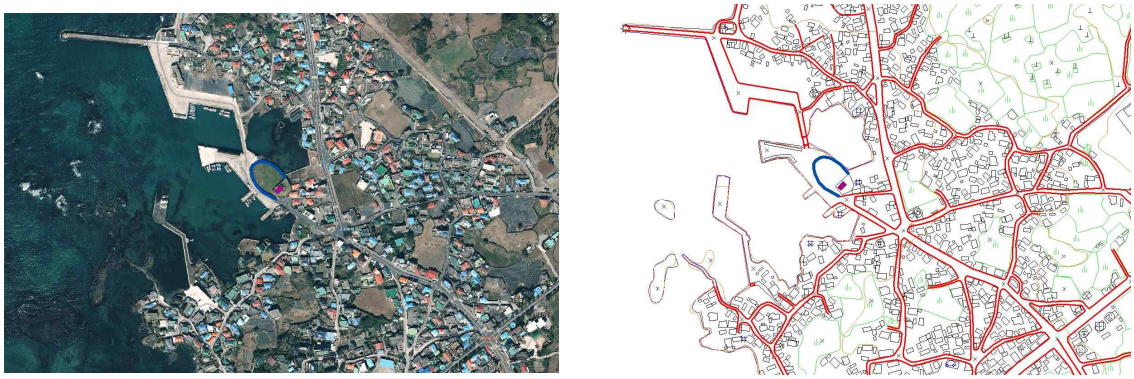
2. 조천진 및 연북정 복원범위

1) 주변현황 분석

조천포구를 중심으로 바닷가가 매립되어 확장되는 등의 변화와 더불어 일주도로에서 비석거리 및 해변도로로 이어지는 도로의 확장 등 지형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그림3)

- 103 -

조천진 주변에는 20여 채의 건축물이 있으나 아직 5층 이상의 건축물은 없어 환경 경관이 이전에 비해 많이 변화되었으나 여전히 경관상의 조건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4).



<그림 117> 조천진 및 연북정의 주변 현황



<그림 118> 포구에서 본 주변 건축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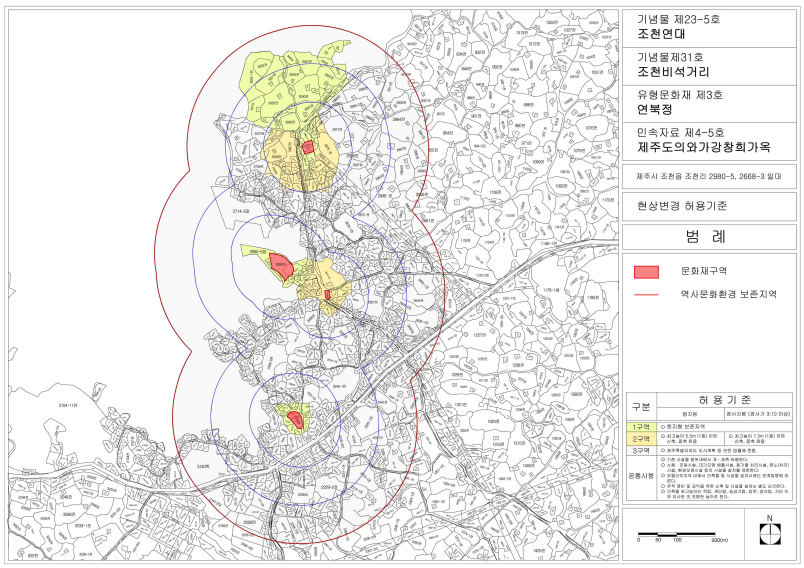
2)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과 범위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복원의 범위와 제거대상 검토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현재 조천지역의 도지정문화재는 연북정을 비롯하여 조천연대, 조천비석거리, 황씨종손가옥(강창희가옥) 4건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5).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3]을 살펴보면 조천진 및 연북정의 경우에는 조천진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주변지역은 1구역으로, 비석거리 주변은 2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그림6).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소재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2011년 12월.



<그림 119> 문화재분포 및 문화재구역 현황



<그림 120>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과 범위

3) 복원 범위 및 제거대상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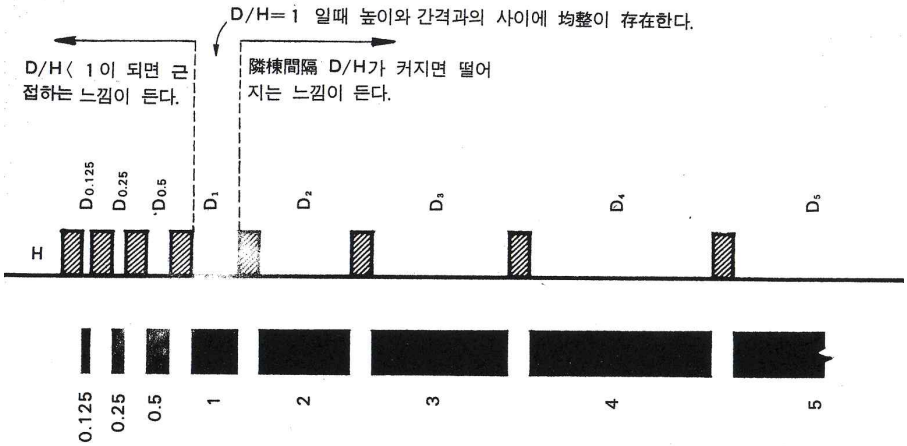
(1) 문화경관형성을 위한 축성에서의 적정 이격거리 검토

본 연구에서는 지형적 지리적 특성을 지닌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전통건축물의 고도에 따른 역사경관형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건조물의 크기와 조망하는 사람과의 거리(距離)를 염두에 둔 역사경관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조천진이 정비 복원되었을 때 진입도로 부분을 중심으로 건조물을 여유있게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축성으로부터 최소한의 이격거

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건조물을 여유있게 바라볼 수 있는 앙각은 27°~30°이며 이를 기준으로한 산출식은 tanθ=H/D이다.

따라서 조천진성 높이는 14척 즉, 4.24m(H)이며 앙각θ을 30°로 하였을 때 적절한 이격거리(D)는 D=H/tanθ 즉, D=4.24m/tan(30°)≒7.45m로 산출된다. 즉, 축성으로부터 최소한 7.45m 이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보다 여유있게 복원구조물을 감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7.45m가 끝부분에서 감상하는 최소한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D=H/tan(30°)는 개별건축물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군집의 건축으로 볼 경우는 tanθ=1/3 θ=18°가 적절하며 이것을 고려할 때 적당한 이격거리(D)는 13.23m가 된다(그림7).



<그림7> 구조물의 높이와 간격에 의한 개방감(출처 : Yoshinobu Ashihara, 김정동 역(1985), 건축의 외부공간, 기문당, P.52)

(2) 복원범위

1914년의 지적 및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바다 매립과 도로 확장에 의한 변화 이외에는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그림8), 복원의 범위와 복원방법에 따라 양호한 문화경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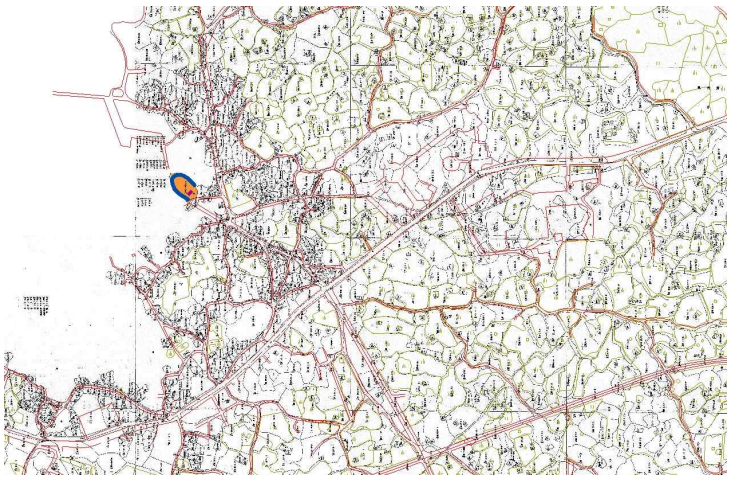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과 범위, 앙각적용 등 여러 기준으로 복원의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법규상의 규제와 민원 등 현실성을 고려하여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과 범위를 토대로 검토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앞서 검토 제시된 이격거리 13.23m는 문화재를 바라보기 위한 적절한 이격거리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 및 주변경관을 시야에 넣을 경우 좀 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제시된 이격거리의 1.5배~2배정도 즉, 19.85m~26.46m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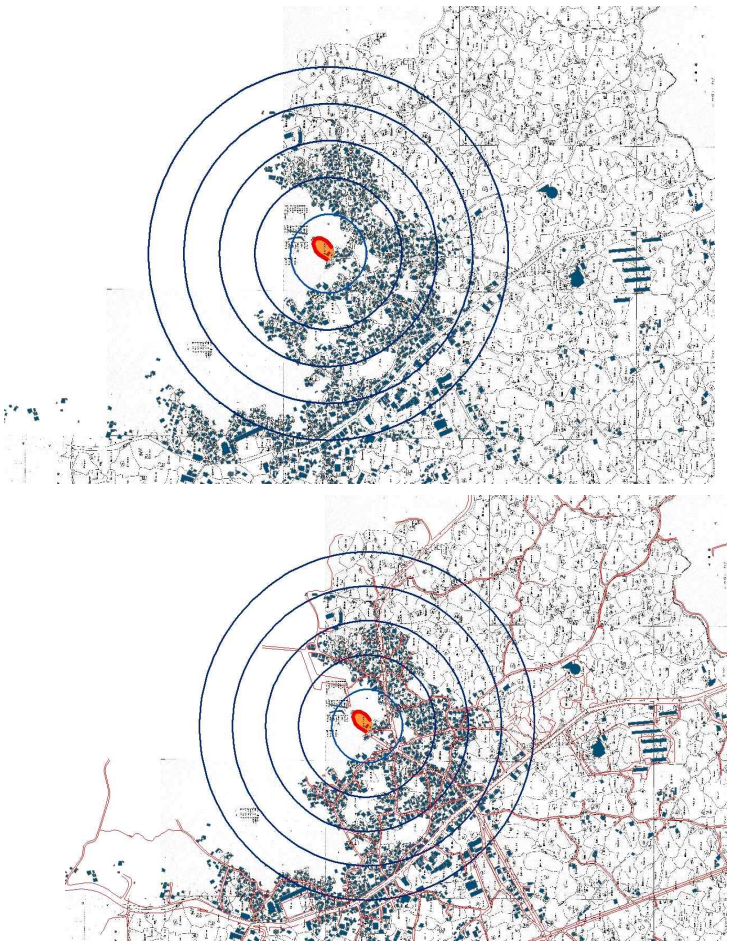
따라서 이러한 제반 조건들을 고려할 때 원지형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경 100m이내(그림6 참조)를 중심으로 복원정비 및 관리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우선적으로 반경 25m이내를 집중적으로 복원정비하고, 반경 25m~50m 지역과 50m~100m 지역으로 구분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복원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림9).

---

4) Yoshinobu Ashihara, 김정동 역(1985), 건축의 외부공간, 기문당, P.52



<그림 122> 1914년 지적도와 현재 도로 체계 비교



<그림 123> 1914년 지적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 현황(위)과
도로 현황(아래) 분석(주: 원반경 100m임)

- 107 -

(3) 제거대상

앞서 언급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고려할 때 1구역은 원지형보전지역이어서 사유재산권의 침해소지가 많다. 그러나 복원범위에서 제안하였듯이 반경 25m이내의 집중적 복원정비지역에 있어서는 조천진 및 연북정의 역사경관 조성 및 복원사업 등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어서 1차 제거대상으로 판단된다(그림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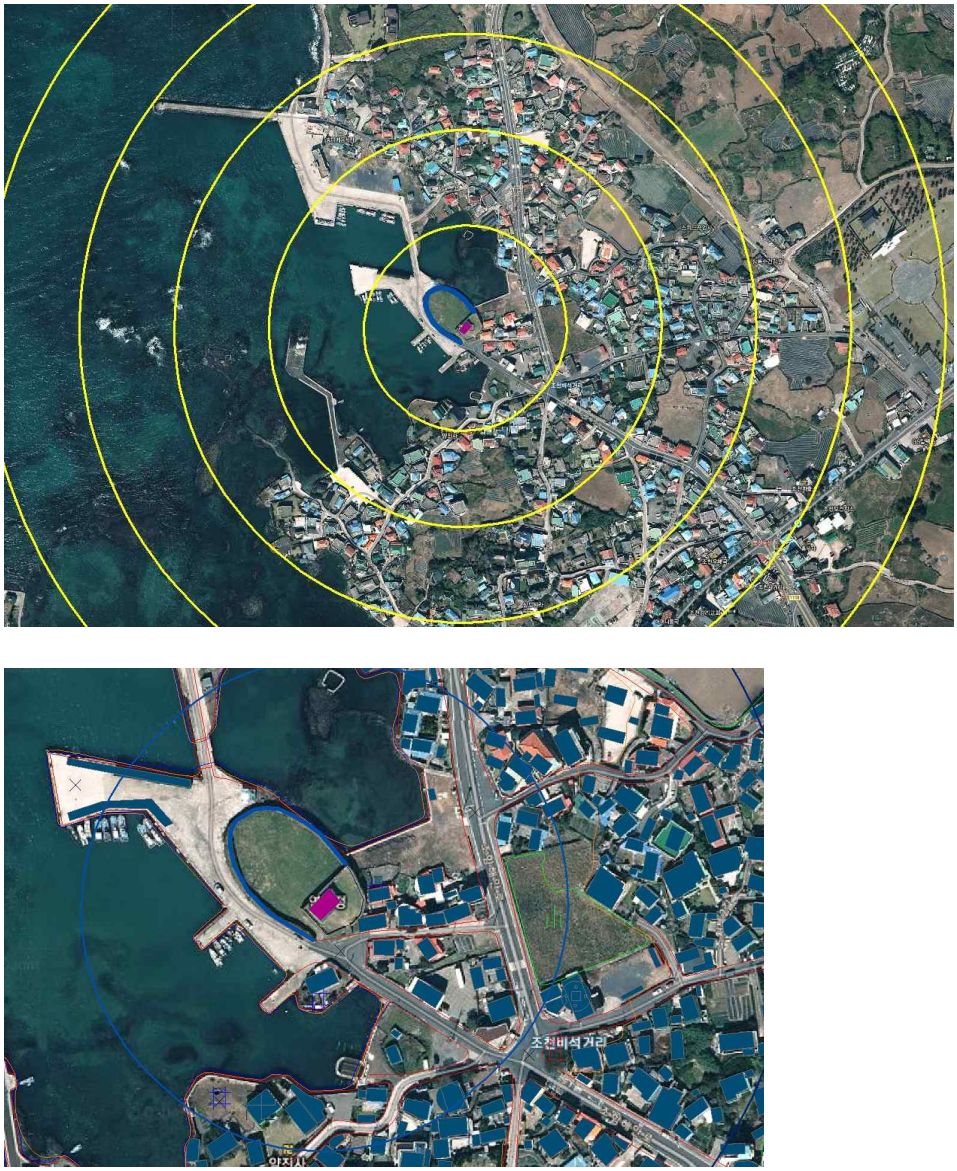
조천진성 주변의 건축물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접해 있는 2개의 블록이 제거대상의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며 개별건축물의 경우 조천진성벽에 밀착된 형태의 건축물 2동, 근접배치된 건축물 대략 9동 정도가 우선적인 제거대상으로 생각된다(그림10 참조).



<그림 124> 조천진성의 주요 진입구에서 본 주변건축물 현황(아래 왼쪽 사진으로부터 각각 (1)과 (2)진입구에서 바라본 현황)

현황조사와 아울러 Arc GIS를 이용해 연북정을 중심으로 문화재구역을 중심으로 300m범위 내를 분석한 결과, 대략 100m범위 내에는 13채의 건축물이 있으며 이들 건축물 역시 1차 제거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그림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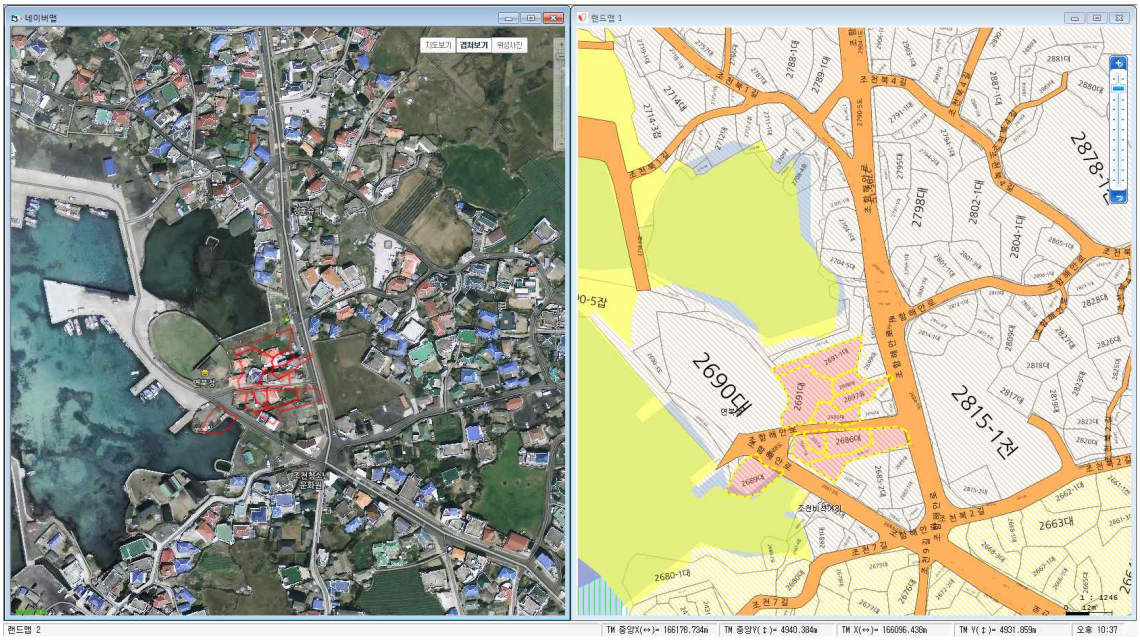
 - 108 -



<그림 11> 집중적 복원정비구역에서의 제거대상 분포 현황(주: 원반경 100m임)

따라서 제거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차적으로는 반경 25m이내의 집중적 복원정비지역 범위 내의 건축물(그림12, 표1 참조), 2차적으로는 100m범위 내의 건축물(그림13, 표2 참조)을 중심으로 제거해야 한다. 또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을 중심으로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부지매입과 함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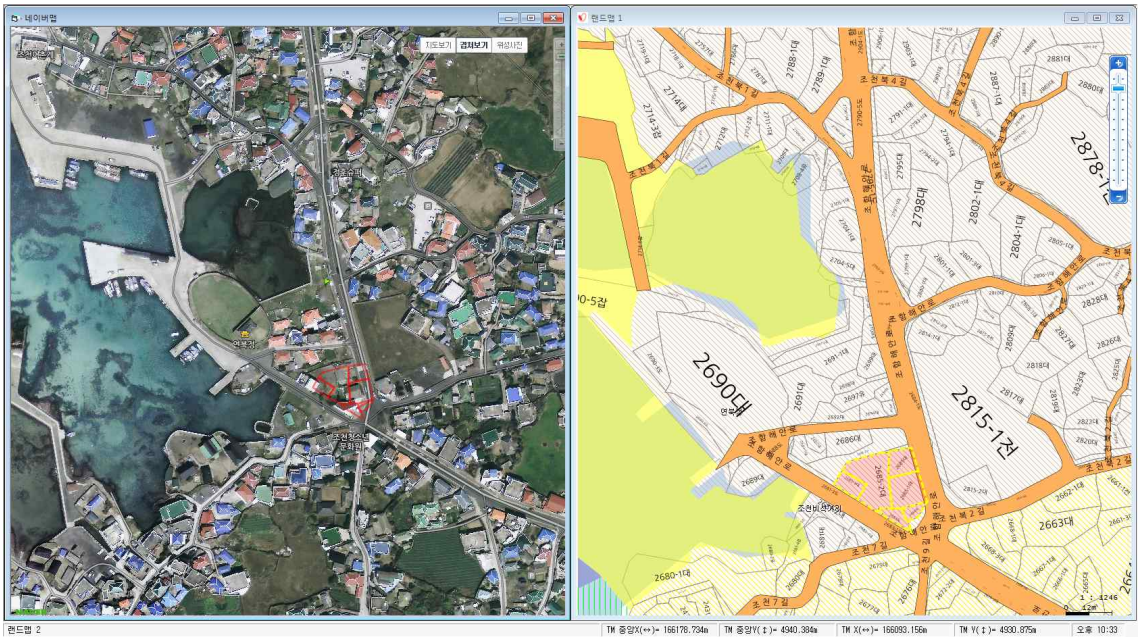
 - 109 -



<그림 12> 1차 제거대상 분포

<표 11> 1차 제거대상 부지면적

주 소	지목	면 적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1-2잡	잡종지	약 126평 (약 417m²)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1-1대	대지	약 125평 (약 414m²)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8대	대지	약 38평 (약 125m²)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1대	대지	약 155평 (약 511m²)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89대	대지	약 97평 (약 320m²)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87대	대지	약 27평 (약 90m²)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87-1대	대지	약 40평 (약 132m²)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86대	대지	약 74평 (약 247m²)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86-2구	구거	약 116평 (약 385m²)	



<그림 13> 2차 제거대상 분포

<표 12> 2차 제거대상 부지 면적

주 소	지목	면 적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85-3대	대지	약 34평 (약 113m²)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85-2대	대지	약 127평(약 419m²)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85대	대지	약 48평 (약 159m²)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85-1대	대지	약 76평 (약 250m²)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83도	도로	약 25평 (약 82m²)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84대	대지	약 18평 (약 60m²)	

3. 조천진 및 연북정 인근 정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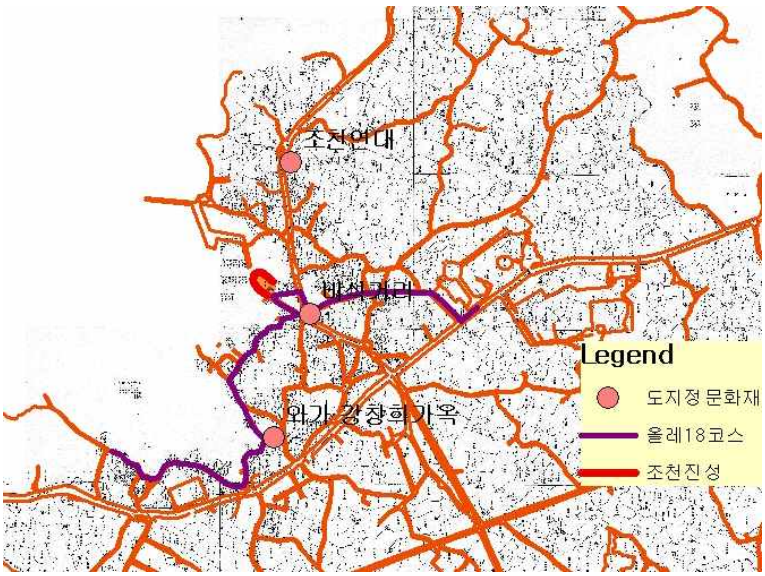
1) 정비 기준

정비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1 : 탐라순력도 등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조천진 및 연북정의 위치를 파악하고 관련문헌에 근거하여 초루의 위치와 양식을 검토한다.

원칙2 : 조천진 축성 정비는 다른 진성의 축성방식을 참고하고 아울러 양호하게 보전되어 있는 조천진 축성 부분을 측량하여 비교 검토한다.

원칙3 : 주변환경 정비는 1차적으로 조천진에 근접해 있는 건축물을 제거하고 2차적으로 도지정문화재 변경 허용기준의 2구역에 포함된 인접블록내의 건축물을 제거한다.



<그림 14> 1914년 지적도의 옛길과 올레 18코스로 보는
옛길 정비 범위

원칙4 : 가능한 한 옛길을 복원하고 옛길을 중심으로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 조천비석거리, 조천연대, 황씨종손가옥(강창희가옥)으로 연결되는 보행자 중심의 길을 자연스럽게 정비한다. 특히, 옛길 복원 검토 시에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올레 18코스가 인접해 있는 조천연대를 제외한 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올레 18코스를 중심으로 옛길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되, 조천연대로 이어지는 길도 포함하여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그림14).

원칙5: 옛길 정비는 도로포장 제거와 같은 토목공사 중심의 과도한 정비가 되지 않도록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어 최소한의 정비가 되도록 한다.

2) 정비범위

정비내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한다.

1단계 : 반경 100m 이내를 범주에 두고 조천진 축성정비 및 연북정의 진입부 위치 수정, 조천진 인접 건축물의 제거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2단계 : 옛길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고 보행환경 정비에 집중하면서 반경 200m~300m 범주내의 역사경관조성을 위한 환경 및 안내판 등을 정비한다.

3단계 : 옛길 살리기를 중심으로 조천 지역내에 분포하는 도지정문화재와 연결하고 아울러 화북포구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한다.

3) 문화재 안내소의 위치

연차적인 정비와 아울러 조천 마을내 문화재를 일반인에 홍보하는 안내소 설치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절한 위치를 검토한 결과 대략 3곳의 후보지가 가능하다.

그 위치는 (1)만세동산 주차장 인근지역, (2)비석거리 앞 지역, (3)와가 황씨종손가옥(강창희가옥) 인근지역으로 3곳 모두 올레 코스가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그림15).

(1)만세동산 주차장 인근지역의 경우, 올레18코스와 19코스의 시작점이자 끝점이라는 점에서 방문하는 올레꾼들 뿐만 아니라 조천만세동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비석거리 앞 지역은 조천 마을내 문화재 분포의 중간지점에 해당하며 해안도로와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특히, 조천진성 주변의 건축물이 정비되고 역사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조천진성을 효율적으로 홍보 안내할 수 있고, 이곳을 지나가는 올레꾼 및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조천연대, 환해장성 등을 거쳐 조천만세동산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와가 황씨종손가옥(강창희가옥) 인근지역의 경우 잘 알려지지 않은 황씨종손가옥(강창희가옥)을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올레꾼 이외의 일반인 방문객은 방문하지 않고 있어 조천진성 및 주변 문화재를 홍보하기에는 불리한 지역으로 생각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역사공원으로 조성 정비되는 비석거리 앞 지역에 문화재 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5> 문화재 안내소 설치 위치 제안

 - 113 -

4) 녹지공간의 범위와 위치

조천진성 정비 계획에 따라 역사경관을 훼손하는 건축물을 제거하게 되면 빈터로 남게 된다. 이 구역은 최소한의 주차장과 편의시설, 그리고 문화재 안내소 등이 설치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작은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녹지공간은 철거대상 건축물로 제시되었던 2개의 블록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그림16). 녹지공간의 조성면적은 대략 1,356평(4,494㎡)으로 예상된다.



<그림 16> 녹지공간 조성위치와 범위

4. 조천진 및 연북정 여타 활용방안

1) 조천진성-조천포-화북포의 연계 정비 제안

고려 말 이후 제주에 유민들이 유입되어 인구가 크게 늘어났으나 조선 말에는 잦은 왜구의 침입으로 방어를 위한 군역과 부역의 의무가 과중해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육지로 도피하는 자가 많아지자 제주도민에게 출륙금지령이 내려졌고, 조천포과 별도포(지금의 화북) 오직 두 포구를 통해서만 육지부로 갈 수 있었다. 조천포과 별도포(지금의 화북)는 조선시대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2대 관문 중 하나였던 셈이다.

2대 관문으로서 중요한 포구였던 만큼 잦은 왜구의 침입에 대한 방어구축이 필수적이었다. 1439년(세종 21년)에 3성, 9진, 25봉수대, 38연대를 정비하여 방어시설을 강화하였고, 1510년(중중 5년) 삼포왜란을 겪으며 조천, 명월, 서귀포 등지에 방어소를 축성하고 연대 등이 증설되었다.

그리고 고려군이 삼별초와 대항하기 위해 쌓았던 환해장성도 남아 있어서 조천진성-조천포-화북포로 이어지는 해안에는 고려시대 말~조선시대의 다양한 역사유적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이를 역사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조천의 역사문화유적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조천진성-조천포-화북포구와 연계한 정비가 중요하다. 조천마을을 중심으로 정비를 하면서 3단계 사업에서 제시한 옛길 살리기 사업을 확대하여 조천진성-조천포-화북포를 역사문화 벨트화하는 정비방안을 올레 18코스를 중심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2) 조천진 및 연북정의 스토리텔링화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 형성된 조천마을에는 많은 유형 및 무형의 역사 문화유적이 남아있다. 이들 역사문화유적들을 스토리텔링화하고 공간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정비계획에 있어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조천진성과 연북정을 비롯, 마을 유래 등 유형 및 무형의 역사문화유적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개발 소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천마을 유래와 포구 이야기

조천이란 말은 임금님께 조공(朝貢)을 바치는 장소라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명사나 귀빈들이 머무르거나, 제주산 마필 등의 조공품, 생필품을 육지로 보내기 위해 공무를 보았던 장소였기 때문에 조천관(朝天館)으로 불리워졌다고 한다. 조천관은 부산·인천과 함께 삼관 중의 하나였다.

2) 조천진성

고려말부터 조선시대 내내 제주는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1439년(세종 21년)에 방어시설을 강화하여 3성, 9진, 25봉수대, 38연대를 정비하였고 이후 1510년(중중 5년)에 삼포왜란이 일어나자 조천, 명월, 서귀포 등지에 방어소를 축성하고 연대도 증설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탐라순력도「조천조점」에는 조천진성의 시설이 묘사되어 있는데 연북정·군기고 등 5개동의 건물이 있었다.

3) 조천연대

통신수단이었던 연대는 봉수대와는 달리 해변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조천연대는 동쪽으로 왜포연대, 서쪽으로 별도연대와 연락을 주고 받았던 곳이다.

4) 쌍벽정과 연북정

조천포에 조천석이라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배가 드나들 때 닻줄을 걸어 두는 용도로 이용되었다. 어느 날, 유명한 지관이 조천포를 지나가다 조천석을 본 후 “마을에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액운이 있는 바위이니 없애는 것이 좋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이 바위 주변에 흙과 돌을 쌓아 바위를 감추고 그 곳에 정자를 지은 후 쌍벽정(雙碧亭)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 후 1599년(선조32년) 제주목사 성윤문이 건물을 보수하고 연북정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북정은 말 그대로 한양을 바라보면서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의미이다. 아래 몇편 시조를 통해서도 유배인들의 충심과 외로움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115 -

<김상헌의 시조>
먼 객지에서 하루도 잊을 날이 없으니
하루의 고향생각 구추에 당하네.
취한 중에 돌아갈 길 잊고자 하고
꿈속에서도 이 몸이 떠있음을 깨닫도다.
우연히 최호의 연파구를 읊고 진경의 죽엽주를 환상하기 어렵도다.
멀리 이별함을 가볍게 생각마라
정자에 홀로 앉으니 저녁 수심만 절로 나네.

<우암(尤庵) 송시열의 시조>
늙고 병든 몸이 북향(北向)하여 우니노라
님 향한 마음을 뉘안 두리마는
달 밝고 밤 긴 절이면 나뿐인가 하노라

<정호승의 시조, 연북정(戀北亭)>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다 여기로 오라
내 책상다리를 하고 꼿꼿이 허리를 펴고 앉아
가끔은 소맷자락 긴 손을 이마에 대고
하마 그대 오시는가 북녘 하늘 바다만 바라보나니
오늘은 새벽부터 야윈 통통배 한 척 지나가노라
새벽별 한두 점 떨어지면서 슬쩍슬쩍 내 어깨를 치고 가노라
오늘도 저 멀리 큰 섬이 가려 있어 안타까우나
기다리면 님께서 부르신다기에
기다리면 님께서 바다위로 걸어오신다기에
연북정 지붕 끝에 고요히 앉은
아침 이슬이 되어 그대를 기다리나니
그대의 사랑도 일생에 한 번쯤은 아침 이슬처럼
아름다운 순간을 갖게 되기를
기다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느냐

5) 비석거리

조천마을은 조선시대 제주의 주요 관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관료들이 출입하였다. 당시 제주에 부임했던 지방관들은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 비석을 세웠다. 현재 7기의 선정비가 남아있는데 이 거리를 비석거리라 한다.

6) 만세동산과 항일기념관

조천의 3.1 만세운동은 서울보다 20일 늦은 3월 21일, 14명의 결사대를 중심으로 4일에 걸쳐 독립만세를 외치며 전개했다. 이후 서귀포로 전파됐고 제주해녀항일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후 만세운동이 벌어진 동산을 조천만세동산이라 부르게 됐으며 3.1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3.1독립운동기념탑과 제주항일기념관이 세워졌다. 그 밖에 '애국선열추모탑'과 제주출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위패가 봉안된 '창열사', 그리고 독립유공자를 추모하는 비석이 세워졌다.

 - 116 -

7) 야학당

과거 조천포구 입구에 야학당이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 모여 만세운동을 위한 교육과 실행 계획 등의 준비과정을 논의했다고 전해진다. 조천만세동산에서 시작된 3.1만세운동은 제주 전 지역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항일운동의 단초를 제공하였던 야학당이었던 셈이다.

8) 환해장성

조천연대를 지나면 조천환해장성을 확인할 수 있다.

9) 골목길과 용천수

조천마을 내 골목길은 일부 해안도로에 인해 사라지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과거의 골목길 흔적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 골목길에서 현대식 건축물로 변형되기는 했으나 좁은 지역에 옹기종기 모여 살았던 해안마을 가옥들의 배치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해안마을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용천수도 연북정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용천수는 여탕, 남탕으로 나뉘어 있고 해안에 위치해서 주변 집들과 어우러져 독특한 해안마을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 117 -

Ⅷ. 연차적 추진계획

조천진성과 연북정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과 전략을 기초로 하여 조천진성과 연북정 종합정비계획, 문화재 활용방안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추진 단계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 각 단계별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계별 추진계획(안)

가. 제1단계

1) 기간 : 2013. 1. 1. ~ 2014. 12. 31.
2) 추진 계획
가) 조천진 및 연북정 복원•정비 기본 실시설계 착수, 환경영향성 검토
나)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발굴조사 허가 신청,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 후 시굴조사 추진
다) 조천진성 내부 및 연북정 주변, 동문지 시굴조사 실시(2013년)
라) 조천진성 내부 및 연북정 주변, 동문지 시굴조사에 따른 본격적인 정밀 발굴조사 실시(2014년)

나. 제2단계

1) 기간 : 2015. 1. 1 ~ 2016. 12. 31.
2) 추진 계획
가) 발굴조사에 따른 조천진 내부 및 연북정 주변 복원 정비 방향 검토
나) 조천관[객사] 및 무기고 복원에 따른 실시설계 및 복원 사업추진
다) 연북정 계단시설 위치 변경 및 연북정 해체 복원 추진

다. 제3단계

1) 기간 : 2017. 1. 1 ~ 2018. 12. 31.
2) 추진 계획
가) 조천진성 동남쪽에 위치한 동문 복원에 따른 실시설계 및 복원사업 추진
나) 조천진성 부실성벽 기초 발굴조사와 이에 따른 부실 및 훼손 성벽 복원 추진
다) 조천관[객사]을 활용한 자료전시관 기본·실시계획 수립 및 자료전시관 건립추진

라. 제4단계

1) 기간 : 2019. 1. 1 ~ 2020. 12. 31.
2) 추진 계획
가) 조천진성 및 주변 문화유적 정비, 복원 사업 마무리 작업 추진
나) 문화재 경관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문화재 자원화[활용] 사업추진
다) 제주성[성안]-화북진-조천진과 연북정을 연결하는 문화재 네트워크 프로그램 추진

 - 118 -

2.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안)

총사업계획				사업량과 투자비(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량 (㎡)	사업비 (백만원)	1단계 (2013-2014년)		2단계 (2015-2016년)		3단계 (2017-2018년)		4단계 (2019-2020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10,244		644		5,900		2,000		1,500
기본 실시 설계 및 발굴 조사	소 계		2,644		594		-		1,050		1,000
	주변부 토지 매입	10,000	2,000					5,000	1,000	5,000	1,000
	조천진성·연북정 복원과 활용 기본 실시설계 용역	1식	100	1식	100						
	진성내 시굴조사	220㎡	24	220	24						
	진성내 발굴조사	2200㎡	400	2200	400						
	동문지 발굴조사	200㎡	70	200	70						
	성벽기초 유실부 발굴조사	100㎡	50					100	50		
조천진 연북정 문화재 정비· 복원	소 계		6,550		50		5,900		250		350
	조천관[객사]복원	165㎡	1,000		50	165㎡	1,000				
	군기고[주구]복원	627㎡	3,800			627㎡	3,800				
	조천진 동문복원	80㎡	400			90㎡	400				
	연북정 해체복원	100㎡	600			100㎡	600				
	연북정 계단복원	20m	100			20m	100				
	성벽부 해체복원	100m	500					50m	250	50m	250
	문화재안내판 정비	10개소	50	10개소	50						
	문화재안내소 건립	75㎡	100							75㎡	100
문화 자원화 계획 수립	소 계		1,050		-		-		700		150
	조천관[객사] 내부 전시자료관 실시 설계 용역	1식	50					1식	50		
	조천관[객사] 내부 전시자료관 건립	165㎡	500					165㎡	500		
	조천진 주변 문화재 및 녹지공간 정비	10,000㎡	300					5,000	150	5,000	150
	조천진과 연북정 스토리텔링 개발	1식	100						1식	100	
	성안-화북포-조천포 네트워크 코스개발	1식	100						1식	100	

※ 조천진성내 객사(영빈관)와 주요 건물의 복원비는 발굴조사 후 정확한 비용 산출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현재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그림을 참조할 때, 기와건물 2동의 복원 추정비는 대략 48억(792㎡(240평)>×2천만원)이다. 더불어 조천진성내 건물의 복원순서는 동문지가 우선 순위지만 성문이 협소하여 조천관과 군기고의 복원작업이 끝난 후 복원함이 타당하다.
※ 이 추진계획에 제시된 투자용역비는 초안작업이다. 따라서 용역기간 중 재검토와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조천진 및 연북정 복원 • 정비 계획 조감도(1안)



- 121 -

조천진 및 연북정 복원 • 정비 계획 조감도(2안)



- 123 -



- 125 -

Ⅷ. 종합 고찰

1. 조사 개요

본 용역의 명칭은 조천진 및 연북정 복원·정비계획 수립 용역이다. 용역의 목적은 현재 연북정 및 조천진성에 대한 현황을 측량조사하고 조천진 및 연북정 관련 문헌과 현장조사를 통해 문화재 지정 범위를 재검토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천진 및 연북정에 대한 보존 방안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는데 있다. 덧붙여 조천진 및 연북정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수립하고자 함이다.

용역의 시간적 범위는 조천진과 연북정의 조성시기 이전과 이후이고 공간적 범위는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0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이다. 용역 기간은 2012년 8월 7일부터 12월 30일이다.

본 연구의 조사단장[연구책임자]은 고창석(전 제주고고학연구소장,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역사학)이다. 연구원으로는 김태일(제주대학교 교수, 건축공학박사, 건축학)과 강창화(현 제주고고학연구소 소장, 고고학박사)가 참여하였다. 더불어 연구보조원으로 박근태(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부장, 박사과정 수료, 고고학), 보조원으로는 강성기(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교육전공 박사과정 수료, 인문지리학)와 이하나(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경주대 대학원 문화재보존과학과 석사과정 수료, 보존처리학)가 참여하였다.

더불어 본 용역의 자문위원으로는 신석하(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건축학박사, 건축학), 정광중(제주대학교 교수, 이학박사, 인문지리학), 권상렬(국립제주박물관장, 도문화재위원, 고고학)이 맡아 진행하였다.

본 용역은 과업지시에 따라 모두 5개의 주제와 추가로 1개의 연구 주제를 덧붙여 조사하였다. 연구 주제는 먼저 1) 조천리의 지리적 환경과 조천진성·연북정의 역사지리적 환경, 2) 조천진과 연북정, 그 주변 유적의 역사적 환경, 3) 조천진과 연북정 현황 및 실측조사, 4) 국내유적 중 유사유적 답사와 유적사례 분석, 5) 조천진과 연북정 정비와 복원계획, 6) 연차적 추진계획과 재원투자 계획(안)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부록으로 조천진과 연북정 문화재 지정 재검토 및 추가지정 제안, 조천진과 연북정 시굴 및 발굴조사 계획과 예산(안)을 제시하였다.

2. 조천리의 지리적 환경과 조천진성·연북정의 역사지리적 환경

① 조천진성의 중요한 역할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당시 주요 관문포구의 기능을 담당하는 조천포구와 주변 마을을 사수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주읍성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읍성을 방어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이다.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에서 조천진성의 입지적 특성이 드러난다.

 - 127 -

② 조천진성은 제주도내의 다른 진성과 비교하면 비교적 작은 진성에 속하지만, 위치적 중요성에 근거하여 일찍이 조선 초기부터 방어의 요충지로서 설진되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입지적 특성에서 주어진 제주읍성의 방어와 관포(官浦)로서의 기능유지 등과 관련된 특별한 임무는 다른 진성과는 크게 차별화되고 있었다

③ 연북정은 제주도내에서 조선시대의 여러 건물들 중 관덕정과 함께 매우 드문 정자 형태의 건물이다. 이 점은 건축학적으로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연북정은 규모면에서 관덕정보다는 작은 정자 건물이지만 쓰임새는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④ 연북정은 정자 형태의 건물이지만 제주도의 전통 주거 양식인 초가집의 칸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건물이다. 오늘날 확인되는 연북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 구조로 돼 있고, 바닥은 마루를 깔고 있다. 단지 지붕의 형태는 팔작지붕으로 육지부의 건물에 많이 나타나는 양식인 동시에 조선시대 관아건물에서 많이 취하는 양식이다.

⑤ 연북정은 심적(心的)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지방과 중앙, 즉 제주와 한양 사이를 연결하는 상징적 건물이다. 연북정은 제주에 있는 신하(경우에 따라서는 유배인)가 한양에 있는 임금과 심적으로 소통하고 싶은 갈망과 소원을 표현하는 장소로, 또 국운의 성대와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연북정에 올라서서 그러한 기분을 느낄 수는 없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제주라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미있고 신성한 공간이었음에 틀림없다.

⑥ 조천진성과 연북정은 역사지리적 측면에서 입지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조천진성이나 연북정은 단순히 문화재라는 차원을 떠나 현세대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역사자원이자 문화자원이다. 따라서 현세대의 입장에서는 조천진성과 연북정을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혹은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시대적 사명을 떠안고 있다.

3. 조천진과 연북정의 역사적 기록과 현황조사

① 문헌에 기록된 성곽 시설물과 연북정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世宗實錄》, 世宗21年 閏2月 壬午條에 보면 도내에 군이 주둔하는 곳은 본주의 동쪽은 金寧, 朝天館이고(《世宗實錄》, 世宗21年 閏2月 壬午條:濟州都安撫使 韓承舜啓曰 (中略) 道內軍人屯戍之處 則本州東則 金寧, 朝天館(後略).)

- 나남사록(南槎錄)형: 을묘년(乙卯年, 명종 10년, 1555), "- 중략- 성(城)을 쌓아 방호소(防護所)를 설치하였다. 성의 둘레는 430여 척이고 높이는 10척이다. 성 안에는 우물이 없고 다만 동문만 있는데 문 위에 초루(譙樓)가 있다. 둘리어진 바닷물로 호(壕)를 삼았다. 방수(防守)하는 제도가 애월과 같았다."고 하였다. 조천포가 별도포와 함께 관항(官港)의 구실을 했던 것이다.

- 나남사록(南槎錄)형신축년(辛丑年, 선조 34년, 1601년 10월 12일자) "곧 조천포로 향하였다. 연북정(戀北亭)에 앉아서 쉬었다. 정자의 이름은 예전에 쌍벽(雙碧)이라 하였는데 목사 이

옥 때에 세웠다. 전 목사 성윤문이 중수하고 옛 제도를 자못 늘려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편액하였다."고 하였다.

ㄴ탐라지형 제주목 성곽 항목에는 "조천성(朝天城)은 조천포에 있다.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428척 7촌, 높이가 9척 1촌이며 동쪽에 문이 하나 있다."고 하였다. 또 방호소 항목에는 "조천소(朝天所)의 성 안에 조천관(朝天舘)과 주구(廚廐)·군기고(軍器庫)가 있고, 동성(東城) 위에는 쌍벽루(雙碧樓)와 연북정이 있다."고 하였다.

- 정조 10년(1786)경에 편찬된 ㄴ제주읍지(濟州邑誌)형 제주목 진보(鎭堡) 항목에는 "조천진의 성 안에는 객사(客舍)·군기(고)가 있고 동성 위에는 쌍벽루·연북정이 있다." 하였다. 여기서 객사라 한 것은 조천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 헌종 때(7년 3월~9년 6월) 제주목사였던 이원조(李源祚)의 ㄴ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형 진보 항목에는 "조천진은 삼면이 바다로 막히고 한 곳으로만 통행하였다. 문 위에는 초루를 설치하였고 성 안에는 조천관, 연북정, 군기고가 있다. …연북정은 곧 객사(客舍)이다. 예전에는 성 밖에 있었는데, 선조 23년(1590, 경인)에 이옥(李沃) 목사가 성을 수리하고 동성 위에 세워서 쌍벽(雙碧)이라 편액하였다. 그 뒤 선조 32년(1599, 기해)에 성윤문(成允文) 목사가 중수하고 연북(戀北)으로 고쳐 편액하였다.

- 李益泰, 《知瀛錄》, 朝天館條를 보면 사면이 바다에 둘러져 海潮가 물러 가면 한쪽은 육지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거교(擧橋)를 만들어 이것으로 성문을 통했다. 그리고 많고 적은 사람들이 항해하여 왕래할 때 待風하는 곳이다. 그래서 방호소가 설치되었고, 조방장을 두었다. 성 주위는 428척, 높이가 9척이다.(李益泰, 《知瀛錄》, 朝天館條: 四面環海 海潮退則 一方連陸 因作擧橋 以通城門此乃 大小人員 航海往來時待風所也 設防護所置助防將 城周四百二十八尺 高九尺.)

- 이를 요약하면, 조천 진성은 절제사 李沃(候)가 부임한 다음 해인 宣祖 23년(1590) 여러 공들과 협의하여 개축하였다. 그 일은 전 부장 徐萬鎰이 맡아 10월에 착공하여 겨울에 마쳤는데, 성곽을 동북쪽으로 퇴축하고 譙樓를 축조하였다. 결국 조천진성은 宣祖 23년(1590) 이전에 축조되었고, 이 때 성곽을 동북쪽으로 확장하면서 성내의 건물을 축조하는 등 재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 ㄴ탐라지(耽羅志)형 ㄴ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형의 기록에 등장하는 성곽내의 건물은 조천관(朝天舘, 客舍, 迎賓舘)과 주구(廚廐)·군기고(軍器庫) 등이 있고, 동성(東城) 위에는 쌍벽루(雙碧樓,譙樓)와 연북정이 등장한다.

- 1702년에 이형상목사가 화공 김남길에게 시켜 제작된 ㄴ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형에 의하면 조천관[객사], 주구, 군기고, 쌍벽루[초루], 연북정과 더불어 동편에 연대, 해안에 정박한 사후선[官船]이 잘 묘사되어 있다.

덧붙여 성곽에 거교(擧橋)가 시설되었다는 사실을 李益泰, 《知瀛錄》, <朝天館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성 주위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건너기 위한 교량 시설로 추정된다. 지금은 주변 지형이 심하게 형질 변경된 상태여서 그 흔적도 찾을 수 없다.

② 진성의 규모 및 시설에 대해 각종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하면 《南槎錄》: 周 430餘尺, 高10尺, 東1門, 《耽羅志》: 周 428尺7寸, 高9尺1寸 東1門, 《濟州邑誌》: 周 428尺, 高7

 - 129 -

尺, 南置 1門,《濟州大靜旌義邑誌》: 周 240步,《耽羅誌草本》; 周 240步, 高9尺, 1門 《耽羅誌》: 周 428尺7寸, 高9尺1寸 東門1門,《濟州郡邑誌》: 周 428尺7寸, 高9尺1寸 東門1門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 이들 자료를 검토해 보면, 진성 개축 후 가장 빠른 기록인《南槎錄》에는 성곽의 규모는 둘레가 430尺, 높이가 10尺으로 되어 있다. 그 후에는 성곽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濟州大靜旌義邑誌》와《耽羅誌草本》에는 성곽의 둘레가 240步, 높이가 9尺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用尺의 차이로 인한 것이지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성문도 축조 때부터 東門 1門만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데,《濟州邑誌》에 '南置一門'이라고 한 것은 동문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③ 현장조사 결과, 조천진성은 해발 1~2m의 완만한 경사면인 남고북저(南高北低)의 지형 위에 위치하여 있고, 성곽의 북측은 해안에 접해 있다. 조천진성의 지적도와 현지조사에 의하면, 성의 평면 형태는 남북을 장축으로 한 타원형이다. 조천진성의 성벽 내부면적은 2,472㎡이며 성벽의 둘레는 약 128m이다. 다만 남서쪽에 위치한 성문을 기준으로 하여 연북정을 포함한 둘레는 약 180m이다. 성곽은 대부분이 원형대로 남아 있다. 이 성곽의 남측 성벽 위에는 북녘의 한양을 바라보며 연군의 정을 기린다는 戀北停이 있다. 성문은 축조당시에 동문 1문으로 되어 있는 바, 지금도 동문지가 남아 있다. 성곽은 외벽 높이가 2.2~4.3m, 상부 폭이 1.6~3.1m이다. 축조방식은 제주도 현무암을 거칠게 다듬어 허튼층 쌓기로 협축하였고, 외벽의 기울기는 거의 직선형 성벽으로 단경사를 이루고 있다. 숙종 28년(1702) 목사 이형상(李衡祥)이 조천 진성을 순례할 때 그린《耽羅巡歷圖》의「朝天操點」에는 성 중에 연북정, 군기고 등 5동의 건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연북정을 제외한 당시 건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다.

④ 연북정에 대한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바닷가에 위치한 조선시대 정자이다.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 있다. 연북정은 客舍로 원래 朝天鎭城 밖에 지었다고 하나 창건 연대는 미상이며, 1590년(선조23)에 李沃 節制使가 성을 동북쪽으로 물려 쌓고 그 위에 옮겨 세워 雙碧亭이라 하였다. 그리고 1599년(선조 32)에는 成允文 목사가 그 건물을 중수하고 임금을 사모한다는 뜻으로 戀北亭이라 개칭하였다. 지금의 건물은 1973년에 보수한 것인데, 보수 당시 "龍嘉慶二十五年庚辰(순조 20년, 1820)二月十五日 辰時入柱上樑 虎"라 한 명문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연북정은 1820년(순조 20)에 마지막으로 보수된 듯하다.

- 이 정자가 세워져 있는 조천포구는 화북포와 함께 관원이나 도민들이 본토를 왕래하는 관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순풍을 기다리며 머무는 휴식처이기도 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이 정자가 경찰관주재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 연북정은 원래 높이 14척의 축대위에 남동향으로 정면(正面), 3칸, 측면(側面) 2칸으로 전후 좌우퇴(左右退)가 있는 제주 민가형 건물이다. 지붕이 합각지붕으로 된 것만이 민가와 다르다. 방형주초에 각주를 세우고 기둥머리에 퇴보를 놓고 여기에 직각으로 장여를 보내어 도리를 받쳤는데 사괘 맞춤한 기둥이 도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바닥은 퇴칸이 토상(土床)이고, 내진(內陣)에는 우물마루로 해서 사방이 정자처럼 틔어 있으나 예전에는 석축벽(石築壁)을 둘러서 사용한 적이 있다.

- 중창기에 위하면 성벽위에 초루를 세워 이름을 '쌍벽(雙壁)이라 하고 무기고, 창고, 당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진내의 중심 건물로 지은 것으로 보인다. 내진고주의 보아지와 판대공의 투박한 마무리와 낮은 물매의 지붕, 단청도 없는 간결함이 이 건물의 특징이다.

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적 현황 및 실측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친진성 일정부분의 내외벽 실측 및 평면 및 단면 측량, 연북정 실측을 실시하였다.

4. 국내 유사유적 답사 및 유적복원 사례 분석

① 진도 남도석성 답사와 사례분석 :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남도길 8-8 (남동리 149)에 위치하며 석성, 남문, 성내부시설인 관아(동헌) 및 객사군기가 자리하고 있다. 국가지정 제127호(지정일:1964년 6월10일)이다. 성벽과 남문지는 복원되었으며 내부 건물지(관아[동헌]와 객사군기)도 일부 복원되어 있다. 발굴조사가 일부 진행되고 있고, 성 내부의 민가에는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성 내부에 민가가 있어 적극적으로 복원 및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변에 위치한 선소(船所)유적과 사대(射臺)활터가 국가사적으로 추가 지정된 상태이다. 성 외곽에 흐르는 세운천에 세워진 단홍교과 쌍홍교가 특징적이다.

② 강진 전라병영성 답사와 사례분석 :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에 위치한다. 사적 제397호이다. 현재 북문과 서문이 복원중이며 남문과 동문은 복원이 완료된 상태이다. 내부 건물지(전체면적의 1/4가량)는 (재)한울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중이다. 특히 병영성은 서양에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소개했던 하멜이 1656년 강진 병영으로 유배되어 7년 동안 살면서 노역했던 곳으로, 주변의 '하멜 기념관'과 함께 하멜 관련 역사문화 유적지로서의 역할도 크다. 병영면에는 천연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된 수령 850여 년의 노거수인 비자나무가 있다. 나라에 큰 일이 있을때면 소리를 내어 운다고 하여 신목으로 불린다. 지방유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된 병영 홍교(일명 무지개 다리)는 보존 상태가 완벽한 병영의 명물이다. 하단부 중앙에는 정교한 용머리 조각이 새겨 있다. 앞으로의 성곽복원 방향을 제시하는 복원사례(기존 성곽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새롭게 복원된 부분과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게 함)이다. 내부 건물지 조사가 완료되면 건물지 복원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나주 만호정 조사와 유적 사례 분석 :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343-1에 위치하며 정자 1동과 안내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라남도 기념물 제145호(지정일 : 1992년 11월 30일)로 지정되어 있다. 마을입구의 평탄한 대지에 허튼층 막돌 토방을 다진 후 그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고졸(古拙)한 두리기둥으로 정면 어간은 좁게 퇴문은 넓게, 측면은 등문으로 기둥을 세웠다. 주두결구(柱頭結構)는 창방, 평방위에 연꽃무늬를 초각(草刻)한 절충식 이익공를 짰다. 그리고 그 위에 대들보, 종, 중보를 두고 측면에서는 홍예보 위에 판대공을 설치하여 칠량가를 형성하였다. 천장은 연등천장이고 지붕은 팔작와가(八作瓦家)이며 처마에는 부록(附錄)을 달아 장려함이 더하다. 이 정자는 동리형성(洞里形成), 성씨세장(姓氏世庄)의 목조정자로 비록 여러 차례 중건, 중수과정을 거쳤으나 건축양식이 고졸장대(古拙壯大)하며 영풍정자적(詠風亭子的) 성격과 아정(芽亭)으로서 휴식적 성격 및 향약시행 등의 규범적 성격이 중합된 마을의 다기능

 - 131 -

정각(亭閣)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현재 만호정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예로 목재의 부식과 좀벌레에 의한 훼손이 심하다. 현재도 마을 정자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④ 화순 송석정 답사와 사례 분석 :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강성리 754번지에 위치한다. 정자 및 한옥, 안내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지정 문화재이다. 이 정자는 도곡면 월곡리에서 태어난 학포 양팽손의 증손인 양인용(梁仁容)이 광해군 등극 후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시키고 인목대비를 서궁으로 유폐시키자 이의 부당함을 충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1613년에 건립한 정자이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팔작지붕 정자이다. 최근까지 관람객을 위한 쉼터로 개방하였다. 앞의 한옥집을 관광객과 연계한 찻집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관광객의 감소로 현재는 관리동으로 이용되고 있다. 제주양씨 문중에서 새롭게 단청하여 산뜻하나 고풍스런 맛이 없어졌다.

5. 조천진과 연북정의 정비와 복원 계획

① 우선 조천진 및 연북정 복원 범위의 현황은 조천포구를 중심으로 바닷가가 매립되어 확장되는 등의 변화와 더불어 일주도로에서 비석거리 및 해변도로로 이어지는 도로의 확장 등 지형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조천진 주변에는 20여 채의 건축물이 있으나 아직 5층 이상의 건축물은 없어 환경 경관이 이전에 비해 많이 변화되었으나 여전히 경관상의 조건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복원의 범위와 제거 대상 검토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현재 조천지역의 도지정문화재는 연북정을 비롯하여 조천연대, 조천비석거리, 황씨종손가옥[강창희가옥] 4건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5]을 살펴보면 조천진 및 연북정의 경우에는 조천진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주변지역은 1구역으로, 비석거리 주변은 2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③ 문화경관형성을 위한 축성에서의 적정 이격거리 검토 : 본 연구에서는 지형적 지리적 특성을 지닌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전통건축물의 고도에 따른 역사경관형성에 초점을 두었다. 건조물의 크기와 조망하는 사람과의 거리(距離)를 염두에 둔 역사경관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조천진이 정비 복원되었을 때 진입도로 부분을 중심으로 건조물을 여유있게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축성으로부터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건조물을 여유있게 바라볼 수 있는 앙각은 27°~30°이며 이를 기준으로한 산출식은 $\tan\theta = H/D$이다. 따라서 조천진성 높이는 14척 즉, 4.24m(H)이며 앙각θ을 30°로 하였을 때 적절한 이격거리(D)는 $D=H/\tan\theta$ 즉, $D=4.24m/\tan(30^\circ)\fallingdotseq 7.45m$로 산출된다. 즉, 축성으로부터 최소한 7.45m를 이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보다 여유있게 복원구조물을 감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7.45m가 끝부분에서 감상하는 최소한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H/\tan(30^\circ)$는 개별건축물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군집의 건축으로 볼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소재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2011년 12월.

경우는 tanθ=1/3 θ=18°가 적절하며 이것을 고려할 때 적당한 이격거리(D)는 13.23m가 된다.

④ 복원범위 : 1914년의 지적 및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바다 매립과 도로 확장에 의한 변화 이외에는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그림8), 복원의 범위와 복원방법에 따라 양호한 문화경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과 범위, 앙각적용 등 여러 기준으로 복원의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법규상의 규제와 민원 등 현실성을 고려하여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과 범위를 토대로 검토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앞서 검토 제시된 이격거리 13.23m는 문화재를 바라보기 위한 적절한 이격거리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 및 주변경관을 시야에 넣을 경우 좀 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제시된 이격거리의 1.5배~2배 정도 즉, 19.85m~26.46m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조건들을 고려할 때 원지형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경100m이내를 중심으로 복원정비 및 관리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우선적으로 반경 25m이내를 집중적으로 복원정비하고, 반경 25m~50m 지역과 50m~100m 지역으로 구분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복원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주변 시설물 제거대상 : 법규상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고려할 때 1구역은 원지형보전지역이어서 사유재산권의 침해소지가 많다. 그러나 복원범위에서 제안하였듯이 반경 25m이내의 집중적 복원정비지역에 있어서는 조천진 및 연북정의 역사경관 조성 및 복원사업 등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어서 1차 제거대상으로 판단된다. 1차 제거대상의 면적은 9필지 798평(2,633㎡)이다. 조천진성 주변의 건축물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인접해 있는 2개의 블록이 제거대상의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며 개별건축물의 경우 조천진성벽에 밀착된 형태의 건축물 2동, 근접배치된 건축물 대략 9동 정도가 우선적인 제거대상으로 생각된다. 현황조사와 아울러 Arc GIS를 이용해 연북정을 중심으로 문화재구역을 중심으로 300m범위 내를 분석한 결과, 대략 100m범위 내에는 13채의 건축물이 있으며 이들 건축물 역시 1차 제거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거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차적으로는 반경 25m이내의 집중적 복원정비지역 범위 내의 건축물, 2차적으로는 100m범위 내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제거해야한다. 2차 제거대상은 6필지 328평(1,82㎡)이다. 또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을 중심으로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부지매입과 함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⑥ 조천진 및 연북정 정비 기준은 우선 원칙1(탐라순력도 등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조천진 및 연북정의 위치를 파악하고 관련문헌에 근거하여 초루의 위치와 양식을 검토한다.), 원칙2(조천진 축성 정비는 다른 진성의 축성방식을 참고하고 아울러 양호하게 보전되어 있는 조천진 축성 부분을 측량하여 비교 검토한다.), 원칙3(주변환경정비는 1차적으로 조천진에 근접해 있는 건축물을 제거하고 2차적으로 도지정문화재 변경 허용기준의 2구역에 포함된 인접블록내의 건축물을 제거한다.), 원칙4(가능한 한 옛길을 복원하고 옛길을 중심으로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 조천비석거리, 조천연대, 황씨종손가옥(강창희가옥)으로 연결되는 보행자 중심의 길을 자연스럽게 정비한다. 특히, 옛길 복원 검토 시에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올레 18코스가 인접해 있는 조천연대를 제외한 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올레 18코스를 중심으로 옛길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되 조천연대로 이어지는 길도 포함하여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 원칙5(옛길 정비는 도로포장 제거와 같은 토목공사 중심의 과도한 정비가 되지 않도록 하며 안전사고예방에 초점을 두어 최소한의 정비가 되도록 한다.)에 맞추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⑦ 조천진과 연북정 정비범위는 4단계로 추진한다. 우선 1단계로 반경 100m 이내를 범주에 두고 조천진 축성정비 및 연북정의 진입부 위치 수정, 조천진 인접건축물의 제거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다음 2단계로 옛길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고 보행환경정비에 집중하면서 반경 200m~300m 범주 내의 역사경관조성을 위한 환경 및 안내판 등을 정비한다. 이어지는 3단계는 옛길 살리기를 중심으로 조천 지역 내에 분포하는 도지정문화재와 연결하고 아울러 화북포구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한다.

⑧ 문화재 안내소의 위치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역사공원으로 조성 정비되는 비석거리 앞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재 안내판의 내용은 연구주제 2와 3(조천진과 연북정의 역사적 기록과 현황조사)에서 제시한 내용을 축약하여 별도 제작한다.

⑨ 녹지공간의 범위와 위치는 조천진성 정비 계획에 따라 역사경관을 훼손하는 건축물을 제거하게 되면 빈터로 남게 된다. 이 구역은 최소한의 주차장과 편의시설, 그리고 문화재 안내소 등이 설치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작은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녹지공간은 철거대상 건축물로 제시되었던 2개의 블록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녹지공간의 조성면적은 대략 1,356평(4,494㎡)으로 예상된다.

⑩ 조천진 및 연북정 여타 활용방안은 조천진성-조천포-화북포의 연계(네트워크) 코스개발, 조천진 및 연북정의 스토리텔링화 작업, 홍보책자의 발간 등이다.

6. 조천진과 연북정의 정비와 복원에 따른 연차적 추진 계획

① 조천진성과 연북정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과 전략을 기초로 하여 조천진성과 연북정 종합정비계획, 문화재 활용방안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추진 단계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

② 단계별 추진계획 제1단계(2013. 1. 1. ~ 2014. 12. 31)는 조천진 및 연북정 복원·정비 기본 실시설계 착수, 환경영향성 검토,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발굴조사 허가를 신청한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 후 시굴조사 추진, 2013년 조천진성 내부 및 연북정 주변, 동문지에 대해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 2014년에는 조천진성 내부 및 연북정, 동문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2014년)한다.

③ 제2단계(2015. 1. 1 ~ 2016. 12. 31.)에는 조천진 내부 및 연북정 주변 발굴조사에 따른 복원 정비 방향 검토, 조천관[객사] 및 무기고 복원에 따른 실시설계 및 복원 사업추진, 연북정 계단시설 위치 변경 및 연북정 해체·복원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④ 제3단계(2017. 1. 1 ~ 2018. 12. 31)에는 조천진성 동남쪽에 위치한 동문 복원에 따른 실시설계 및 복원사업 추진, 조천진성 부실성벽 기초 발굴조사와 이에 따른 부실 및 훼손부분 성벽 복원 추진, 조천관[객사]을 활용한 자료전시관 기본·실시계획 수립 및 자료전시관 건립 추

 - 134 -

진 사업이 필요하다.

⑤ 마지막 제4단계(2019. 1. 1 ~ 2020. 12. 31.)에는 조천진성 및 주변 문화유적 정비, 복원 사업 마무리 작업 추진, 문화재 경관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문화재 자원화[활용] 사업추진, 제주성[성안]-화북진-조천진과 연북정을 연결하는 문화재 네트워크 프로그램 추진 등의 사업이 요구된다.

⑥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투자 예산은 다음의 표와 같다.

총사업계획				사업량과 투자비(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량 (㎡)	사업비 (백만원)	1단계 (2013-2014년)		2단계 (2015-2016년)		3단계 (2017-2018년)		4단계 (2019-2020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10,244		644		5,900		2,000		1,500
기본 실시 설계 및 발굴 조사	소 계		2,644		594		-		1,050		1,000
	주변부 토지 매입	10,000	2,000					5,000	1,000	5,000	1,000
	조천진성·연북정 복원과 활용 기본 실시설계 용역	1식	100	1식	100						
	진성내 시굴조사	220㎡	24	220	24						
	진성내 발굴조사	2200㎡	400	2200	400						
	동문지 발굴조사	200㎡	70	200	70						
	성벽기초 유실부 발굴조사	100㎡	50					100	50		
조천진 연북정 문화재 정비·복원	소 계		6,550		50		5,900		250		350
	조천관[객사]복원	165㎡	1,000		50	165㎡	1,000				
	군기고[주구]복원	627㎡	3,800			627㎡	3,800				
	조천진 동문복원	80㎡	400			90㎡	400				
	연북정 해체복원	100㎡	600			100㎡	600				
	연북정 계단복원	20m	100			20m	100				
	성벽부 해체복원	100m	500					50m	250	50m	250
	문화재안내판 정비	10개소	50	10개소	50						
	문화재안내소 건립	75㎡	100							75㎡	100
문화 자원화 계획 수립	소 계		1,050		-		-		700		150
	조천관[객사] 내부 전시자료관 실시 설계 용역	1식	50					1식	50		
	조천관[객사] 내부 전시자료관 건립	165㎡	500					165㎡	500		

총사업계획				사업량과 투자비(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량 (㎡)	사업비 (백만원)	1단계 (2013-2014년)		2단계 (2015-2016년)		3단계 (2017-2018년)		4단계 (2019-2020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조천진 주변 문화재 및 녹지공간 정비	10,000㎡	300					5,000	150	5,000	150
	조천진과 연북정 스토리텔링 개발	1식	100						1식	100	
	성안-화북포-조천포 네트워크 코스개발	1식	100						1식	100	

※ 조천진성내 객사(영빈관)와 주요 건물의 복원비는 발굴조사 후 정확한 비용 산출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현재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그림을 참조할 때, 기와건물 2동의 복원 추정비는 대략 48억(792㎡(240평)>×2천만원)이다. 더불어 조천진성내 건물의 복원순서는 동문지가 우선 순위지만 성문이 협소하여 조천관과 군기고의 복원작업이 끝난 후 복원함이 타당하다.

7. 조천진과 연북정 문화재 지정 재검토 및 추가지정 제안

① 문화재 추가지정 필요성 : 현재 문화재 지정은 연북정만을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 있고 조천진은 연북정 보호구역 중 일부로만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연북정을 감싸고 있는 성곽인 조천진이 당초 문화재 지정에서 제외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동일 위치에 소재한 유적간 연계성 확보 차원과 차별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추가지정이 필요하다.

② 문화재 보호구역 변경 제안 : 연북정 보호구역은 2690번지 1필지만을 지정함으로써 조천진 성벽 상당부분이 미포함되어 있고 또 현재 연북정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등은 정확한 측량을 근거로 설정하지 않은 듯 다소 불합리한 경계로 선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가기준점(국토지리정보원 설치 GPS 상시관측소)을 이용한 GPS 현황 측량 결과에 따라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연북정과 조천진 성벽을 충분히 감싸고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재 연북정에 국한되어 있는 문화재구역을 조천진 성벽전체까지 포함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 136 -

<부록 1> 조천진과 연북정 문화재지정 재검토(안)

1. 현 문화재 지정현황
  O 지정종별 ;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O 지정번호 ; 제3호 (71. 8. 26 지정)
  O 지정명칭 ; 연북정 * 조천진은 제외
  O 소 재 지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0번지 외

2. 문화재지정 재검토(안)
  O 지정종별 ;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O 지정번호 ; 제3호 (71. 8. 26 / 2013. . .)
  O 지정명칭 ; 연북정과 조천진
  O 소 재 지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0번지 외

3. 문화재 추가지정 필요성(안)

1) 문화재 추가지정 필요성
현재 문화재 지정은 연북정만을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 있고 조천진은 연북정 보호구역 중 일부로만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연북정을 감싸고 있는 성곽인 조천진이 당초 문화재 지정에서 제외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동일 위치에 소재한 유적간 연계성 확보 차원과 차별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추가지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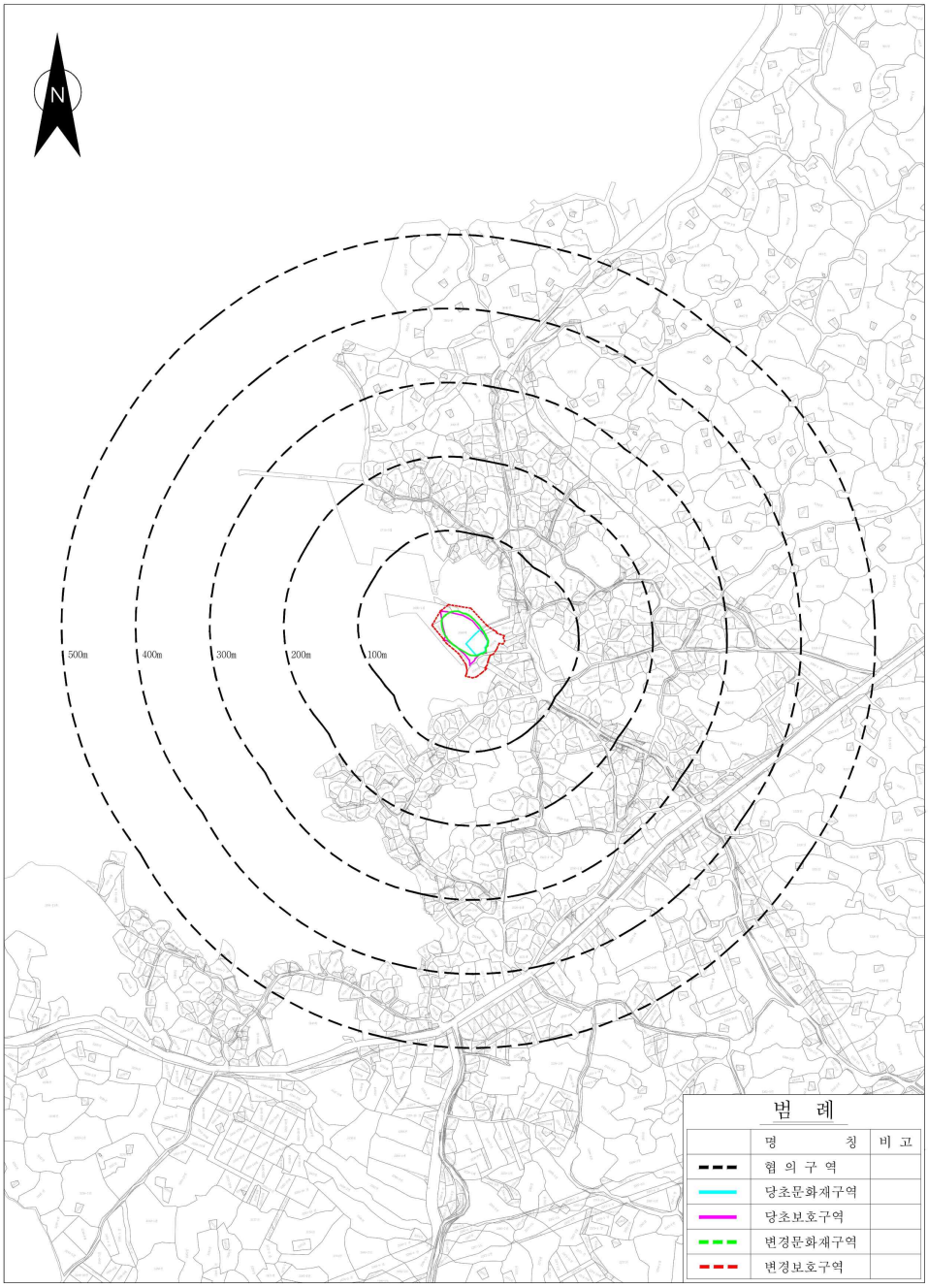
2) 문화재 보호구역 변경 제안
연북정 보호구역은 2690번지 1필지만을 지정함으로써 조천진 성벽 상당부분이 미포함되어 있고 또 현재 연북정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등은 정확한 측량을 근거로 설정하지 않은 듯 다소 불합리한 경계로 선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가 기준점(국토지리정보원 설치 GPS 상시관측소)을 이용한 GPS 현황 측량 결과에 따라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연북정과 조천진 성벽을 충분히 감싸고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재 연북정에 국한되어 있는 문화재구역을 조천진 성벽전체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다.

 - 137 -

협 의 구 역 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0번지 일원

S = 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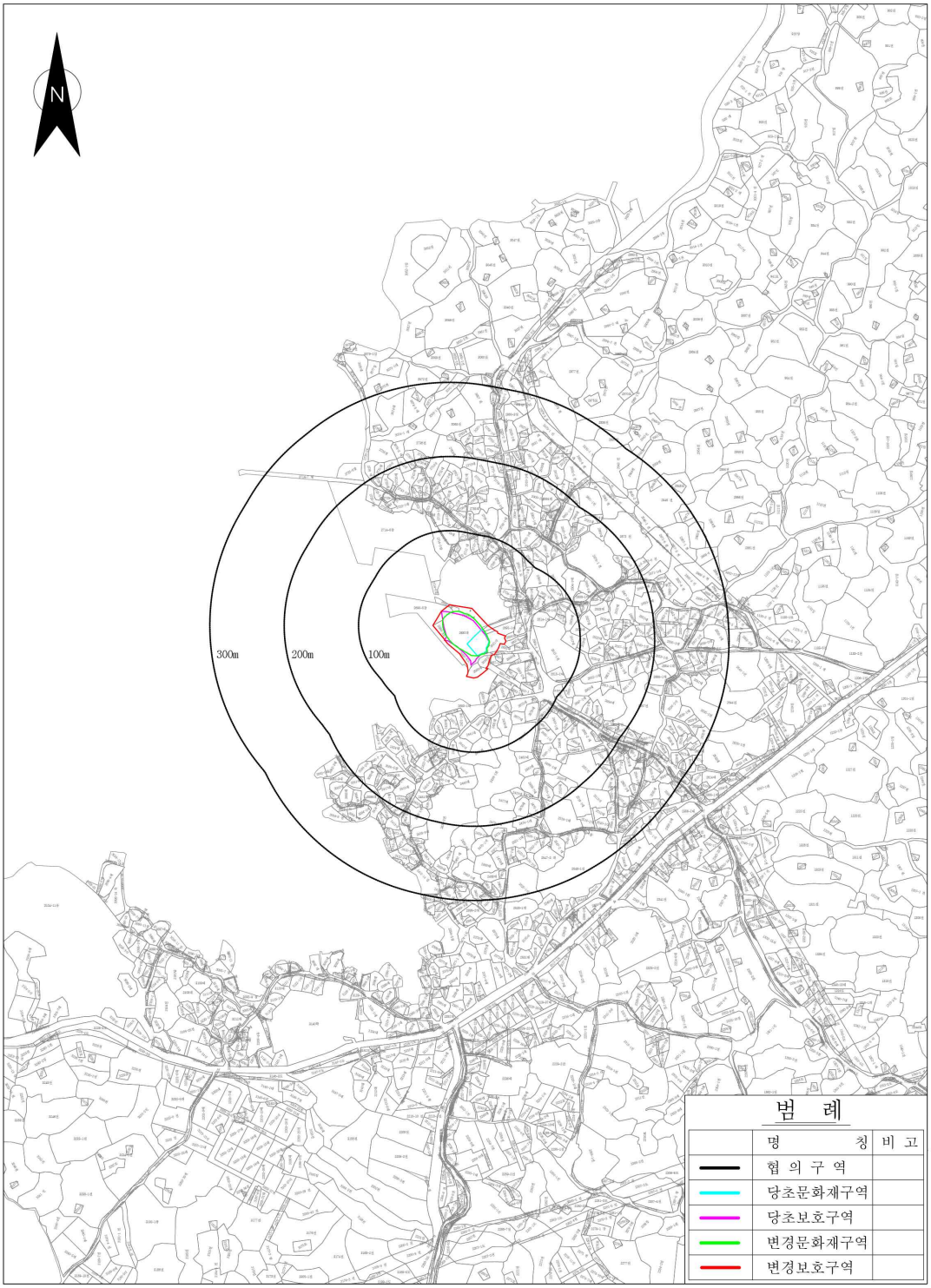


- 138 -

협 의 구 역 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0번지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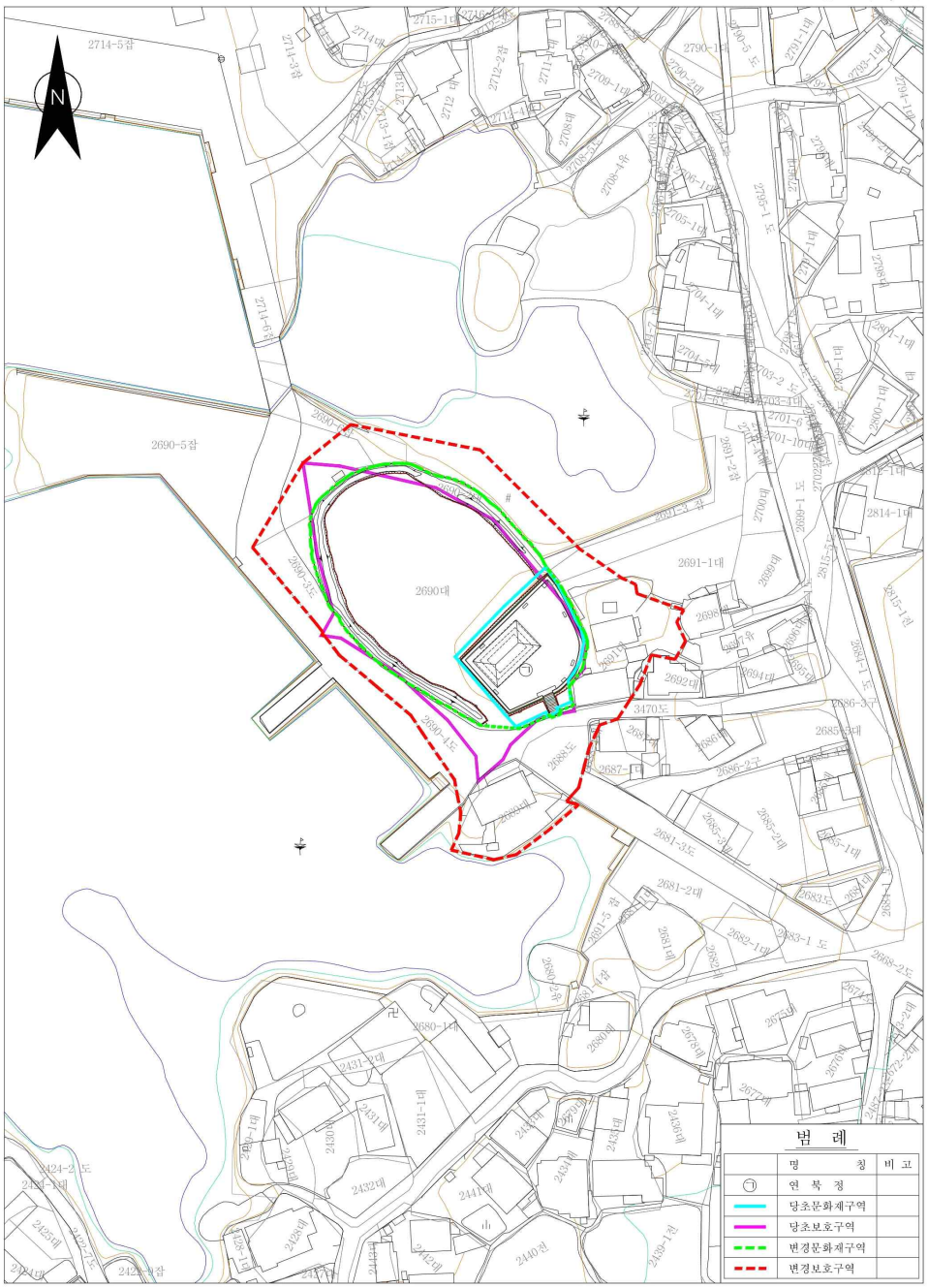
S = 1/5,000



- 139 -

조천진과 연북정 현황(문화재보호구역) 측량도

S = 1/1,200



- 140 -

<부록 2> 제주 조천진성 및 내부 건물지 시굴조사 계획

1. 조사 명칭 : 제주 조천진성 및 내부 건물지 시굴조사

2. 유적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0번지

3.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 위치한 조천진성 및 내부 건물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적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데 있다. 또한 유적의 보존범위를 파악하여 문화유적 보존의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조사 경위

조사대상지는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0번지 조천진성과 내부 건물지이다.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연북정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조천연대와 조천비석거리 등이 자리잡고 있다. 조천진성에 대한 복원·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따라 복원계획 및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해 유적정비 차원에서 발굴(시굴)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5.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간(현장조사 : 5일(실조사일수), 약보고서 작성 : 20일)

6. 대상유적 : 2,200㎡(발굴조사)

소재지	조사 내용	추정 시기	조사 면적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0번지	- 조천진성은 둘레가 428자, 높이가 9자였으며, 3면이 바다로 막혀서 한 곳만 통할 수 있었다. 9개의 진성 중 가장 작은 성이었다. - 성 안에는 조천관, 주방과 마굿간, 군기고 등이 있었고, 동성 위에는 연북정이 있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	조선시대	220㎡

7. 발굴기관 : 문화재청으로부터 인가받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기관

8. 조사단 구성

조사단의 구성은 단장(1인), 책임조사원(1인), 조사원(1인), 준조사원(1인), 보조원(1인)으로 구성한다.

9. 조사방법

조사대상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0번지로 조천진성 내부이다.(총면적 2,200㎡)

먼저, 1) 상부 지표정리 : 조사대상지 표토면을 정리한다. 2) 발굴지의 구획 : 조사대상지의 평면형태에 따라 3×20m 트렌치 3개소와 2×20m 트렌치 1개소를 설치한다(도면 참조). 3) 제토 및 유구 확인조사 :조사구간 내의 제토는 유구의 굴광선을 확인할 수 있는 깊이, 또는 지역에 따라 생토층까지 제토하고-조사 시 필요에 따라 트렌치를 확장하여 유구의 정확한 분포범위를 파악한다. 또한 조사구간에서 제토된 흙은 반출하지 않으며 제토범위 밖으로 적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더불어 유구 확인과 함께 제토가 완료된 트렌치는 실측을 실시한다. 실측은 축척 1/20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1/10, 1/100 등으로 할 수 있다. 4) 사진기록: 트렌치 전경사진을 촬영하고 유구나 유물 확인시에는 전경 및 세부사진을 촬영하여 자료로 남긴다. 5) 실내작업 : 조사 자료를 정리분석하고 약보고서를 작성한다.

10. 조사예정공정표

조사 및 연구 진행 항목	1	1~3	4~5	6~25
정리 및 구획	←→			
트렌치 제토 및 유구확인조사		←→		
유구 및 유물의 사진촬영, 도면작업		←→		
정리작업		←→		
자료수집 및 약보고서 작업				←→

11. 소요예산 : 일금이천사백십만원정(사업자부담: ₩24,100,000)

12. 보고서 출간 : 조사완료 후 20일 이내에 약보고서를 제출하고 2년 이내에 문화재 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한다.

13. 기타

1) 출토유구(유물)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은 후 연구소의 일정에 따라 착수가 조정될 수 있다. 3) 조사량의 증가에 의해 조사기간 및 비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사전에 사업시행자 및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조사계획서에서의 조사기간은 현장실조사일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야외작업의 여건상 기후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추후 조사기간에 반영하여 조사기간을 확보하도록 한

다. 5) 조사보고서는 발굴조사기관에서 발간, 배포한다.

- 첨 부 -

1. 조사대상지 위치도(도면 1)
2. 조사대상지 지적도 및 수치지형도(도면 2)
3. 제주 조천진성 문화재 시굴조사 예산내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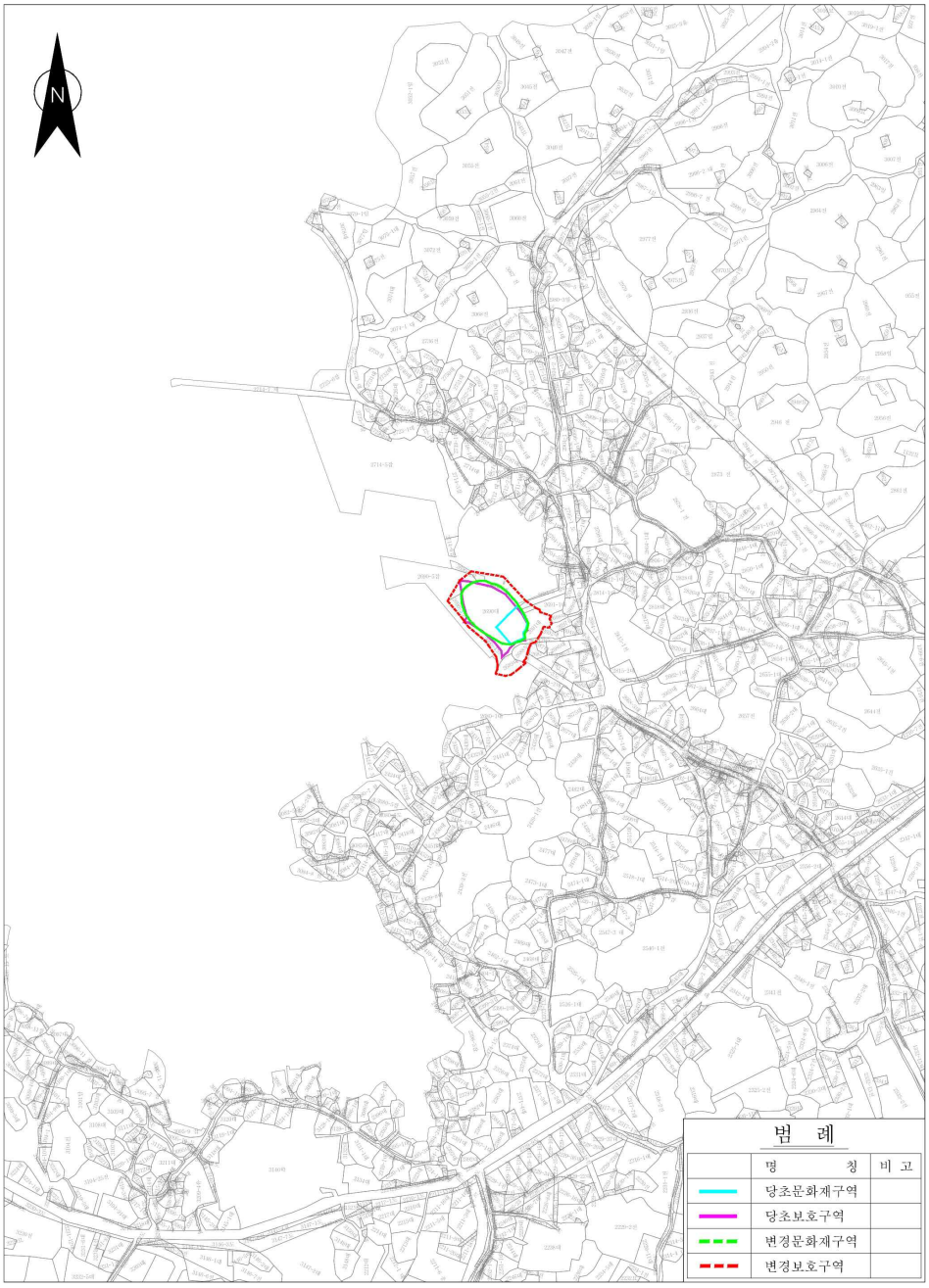
* 예산내역서 산출은『문화재청 고시 제2012-5호(2012. 1. 17)』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 개정에 의한다.

 - 143 -

조천진 및 연북정 현황측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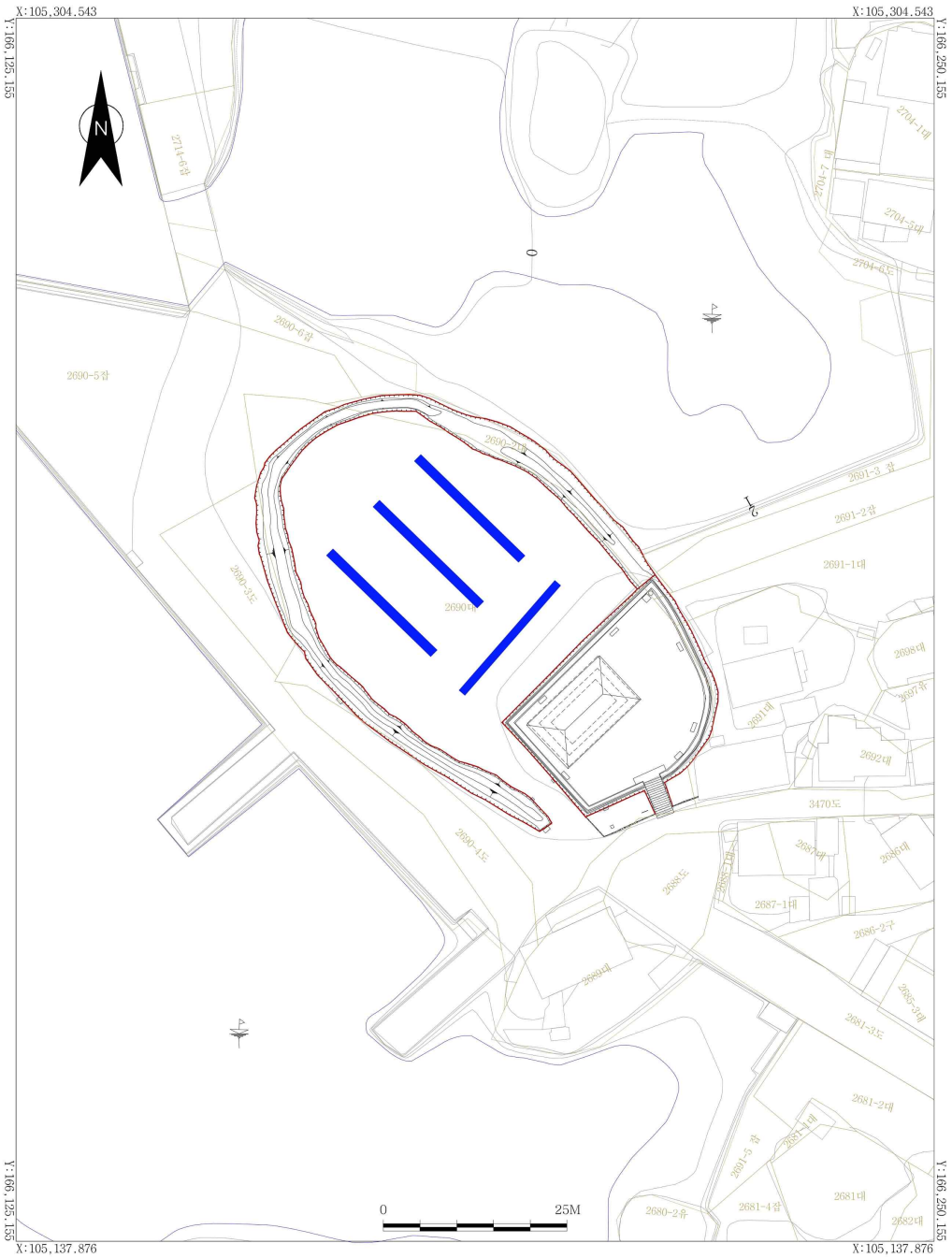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0번지 일원

S = 1/5,000



문화재 시굴조사 트렌치 배치도

S=1/500



※ ①투영법:TM ②방위:도북 ③본 좌표는 GRS80(X:600,000 Y:200,000)좌표임.

제주 조천진성 시굴조사 산출내역서

(인건비 산출근거 : 문화재청공고 제2012-5호(2012.01.15)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여비산출근거 : 대통령령 제20152호(2009.04.30) 공무원여비규정)

구분 / 비목	금 액	산 출 내 역				
1. 직접인건비	4,685,282	1) 현장조사				3,542,697
		조사단장	287,355 ×	1.0 일× 1 인	=	287,355
		조사단장 주휴수당	57,471 ×	식	=	0
		책임조사원	221,604 ×	3.0 일× 1 인	=	664,812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132,962 ×	식	=	0
		조사원	194,097 ×	5.0 일× 1 인	=	970,485
		조사원 주휴수당	194,097 ×	1 식	=	194,097
		조사보조원	131,996 ×	5.0 일× 1 인	=	659,980
		조사보조원 주휴수당	131,996 ×	1 식	=	131,996
		보조원	105,662 ×	5.0 일× 1 인	=	528,310
		보조원 주휴수당	105,662 ×	1 식	=	105,662
		2) 정리 및 보고서작성작업				1,142,585
		조사단장	287,355 ×	0.2 일× 1 인	=	57,471
		조사단장 주휴수당	11,494 ×	식	=	0
		책임조사원	221,604 ×	1.0 일× 1 인	=	221,604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44,321 ×	식	=	0
		조사원	194,097 ×	2.0 일× 1 인	=	388,194
		조사원 주휴수당	77,639 ×	일 식	=	0
		조사보조원	131,996 ×	2.0 일× 1 인	=	263,992
		조사보조원 주휴수당	52,798 ×	식	=	0
		보조원	105,662 ×	2.0 일× 1 인	=	211,324
		보조원 주휴수당	42,265 ×	식	=	0
2. 직접경비	10,704,475	1) 여비				380,000
		조사단장	20,000 ×	1 일× 1 인	=	20,000
		책임조사원	20,000 ×	3 일× 1 인	=	60,000
		조사원	20,000 ×	5 일× 1 인	=	100,000
		조사보조원	20,000 ×	5 일× 1 인	=	100,000
		보조원	20,000 ×	5 일× 1 인	=	100,000
		2)현장운영비				6,686,065
		(1) 현장인부임				4,256,065
		보통인부	75,608 ×	5.0 일× 8 인	=	3,024,320
		보통인부 주휴수당	604,864 ×	1 식	=	604,864
		보통인부 4대보험료	3,629,184 ×	8.940 % 보험요율	=	324,449
		보통인부 퇴직적립금	3,629,184 ×	12 / 1 월	=	302,432
		(2)수송비(기자재포함)	200,000 ×	1 식	=	200,000
		(3)사무실 설치비	250,000 ×	식	=	0
		(4)수도광열비	50,000 ×	식	=	0
		(5)연료및 수선비	50,000 ×	식	=	0
		(6) 임차료				1,840,000
		덤프트럭(15톤)	380,000 ×	일× 대	=	0
		굴삭기(06)	460,000 ×	2 일 2 대	=	1,840,000
		사토장임차료	200,000 ×	월 식	=	0
		(7)주재비				
		(8)기타운영비				390,000
		통신 및 현장보안시설 운영비	×	식	=	0
		안내판 제작비	90,000 ×	1 식	=	90,000
		기타 안전관리시설물설치ㅂ	200,000 ×	1 식	=	200,000
		각종문구 등 소모품비	100,000 ×	1 식	=	100,000
		3) 조사재료비				500,000
		조사용품비	500,000 ×	1 식	=	500,000
		사진재료비	×	식	=	0
		지도구입비	×	식	=	0
		4) 위탁비				2,000,000
		유물분석 및 보존처리비	×	식	=	0
		현장자료 분석비	×	식	=	0
		항공촬영비	2,000,000 ×	1 회	=	2,000,000
		현황측량비	×	식	=	0
		유물 및 유구실측 용역비	×	식	=	0

		5) 유물정리비(현장조사 완료후)					0
		(1)정리용품비	500,000	×	식	=	0
		(2)보존처리약품비		×	식	=	0
		(3)유물상자및보관대설치ㅂ	1,000,000	×	식	=	0
		(4)유물분석및보존처리위탁비		×	식	=	0
		(5)임차료		×	식	=	
		(6)자연과학분석비	5,000,000	×	식	=	0
		(7)기타유물정리비		×	식	=	0
		6)정리 및 보고서작성인부임					638,410
		(1)특수인부	84,404	×	일× 인	=	0
		특수인부 주휴수당	0	×	1 식	=	0
		특수인부 4대보험료	0	×	8.940 % 보험요율	=	0
		특수인부 퇴직적립금	0	×	12 / 1 월	=	0
		(2)보통인부	75,608	×	2.0 일× 3 인	=	453,648
		보통인부 주휴수당	90,730	×	1 식	=	90,730
		보통인부 4대보험료	544,378	×	8.940 % 보험요율	=	48,667
		보통인부 퇴직적립금	544,378	×	12 / 1 월	=	45,365
		7) 보고서간행비					500,000
		(1)사진제작비		×	1 식	=	0
		(2)약보고서간행비	500,000	×	1 식	=	500,000
		(3)보고서인쇄비	3,000,000	×	식	=	0
		(4)보고서발송비		×	1 식	=	0
		(5)전산매제 제작비		×	식	=	0
		(6)자료수집비		×	식	=	0
3.제경비	4,685,282	(1-1)+(1-2)의 100-110%	4,685,282	×	100%	=	4,685,282
4.학술료	1,874,113	(1-1)+(1-2)+(3)의 20-30%	9,370,564	×	20%	=	1,874,113
5.소계	21,949,152	21,949,152					
6.부가가치세	2,194,915	[5의 10%]					
7. 총계	24,100,000	[만단위절사]					

<부록 3> 제주 조천진성 및 내부 건물지 발굴조사 계획

1. 조사 명칭 : 제주 조천진성 및 내부 건물지 발굴조사

2. 유적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0번지

3.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 위치한 조천진성 및 내부 건물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적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데 있다. 또한 유적의 보존범위를 파악하여 문화유적 보존의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조사 경위

조사대상지는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0번지 조천진성과 내부 건물지이다.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연북정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조천연대와 조천비석거리 등이 자리잡고 있다. 조천진성에 대한 복원·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따라 복원계획 및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해 유적정비 차원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5. 발굴 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현장조사 : 50일(실조사일수), 약보고서 작성 : 20일)

6. 대상유적 : 2,200㎡(발굴조사)

소재지	조사 내용	추정 시기	조사 면적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0번지	- 조천진성은 둘레가 428자, 높이가 9자였으며, 3면이 바다로 막혀서 한 곳만 통할 수 있었다. 9개의 진성 중 가장 작은 성이었다. - 성 안에는 조천관, 주방과 마굿간, 군기고 등이 있었고, 동성 위에는 연북정이 있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	조선시대	2,200㎡

7. 발굴기관 : 문화재청으로부터 인가받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기관

8. 조사단 구성

조사단의 구성은 단장(1인), 책임조사원(1인), 조사원(1인), 준조사원(1인), 보조원(1인)으로 구성한다.

9. 조사 방법

조사대상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0번지로 조천진성 내부이다.(총면적 2,200㎡)

먼저, 1) 제토 :조사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전면 제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층 여부와 함께 유구 굴광선이 확인되는 면까지 제토를 실시하고 이 외에는 생토면까지 제토를 한다. 2) 유구 확인조사 : 제토면을 정리하고 유구의 굴광선을 확인하며 확인된 유구에 대한 유구배치도를 작성하고 유구번호를 부여한다. 그리고 내부조사 전 상태에 대한 사진기록과 기술을 한다. 3) 유구 내부조사 : 평면실측 및 사진기록을 하고 조천진성 성벽에 대한 조사는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한 구간을 포함하여 5m 길이의 4개 구역을 설정하여 해체 조사를 진행한다. 건물지는 기단, 계단, 적심 등 건물의 기초시설과 지정다지기 등의 여부 등 건물지의 축조방법과 규모를 확인한다. 수혈유구의 조사는 유구의 성격에 따른 조사방법을 선택하여 조사 기술한다. 내부에 트렌치 또는 둑을 설정하여 조사한다. 층위에 따라 조사된 유구와 유물에 대해서는 전체모습과 세부모습을 촬영하고 실측과 레벨 측량을 실시한다. 조사 완료된 유구의 상태를 실측, 사진기록, 기술한다. 4) 실내작업 : 조사된 유적과 유구, 유물을 기술하고 전사작업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10. 조사예정공정표

조사 및 연구 진행 항목	1-10	11~40	41~50	51~70
조사지역 제토 및 정리작업	■			
유구노출 및 내부조사	■	■		
유구 및 유물의 사진촬영 및 도면정리작업		■	■	
자료수집 및 약보고서 작업		■	■	■

11. 소요 예산 : 일금삼억구천오백육십만원정(사업자부담: ₩395,600,000)

12. 보고서 출간 : 조사완료 후 20일 이내에 약보고서를 제출하고 2년 이내에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한다.

13. 기타

1) 출토유구(유물)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은 후 연구소의 일정에 따라 착수가 조정될 수 있다. 3) 조사량의 증가에 의해 조사기간 및 비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사전에 사업시행자 및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4) 발굴조사 계획서에서 조사기간은 현장실조사일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야외작업의 여건상 기후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추후 조사기간에 반영하여 조사기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5) 발굴조사 완료 전에 전문가검토회의(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적의 향후 방안을 검토한다. 5)조사보고서는 발굴조사기관에서 발간, 배포한다.

- 첨 부 -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도면 1)
2. 조사대상지 지적도 및 수치지형도(도면 2)
3. 제주 조천진성 문화재 시굴조사 예산내역서

* 예산내역서 산출은『문화재청 고시 제2012-5호(2012. 1. 17)』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 개정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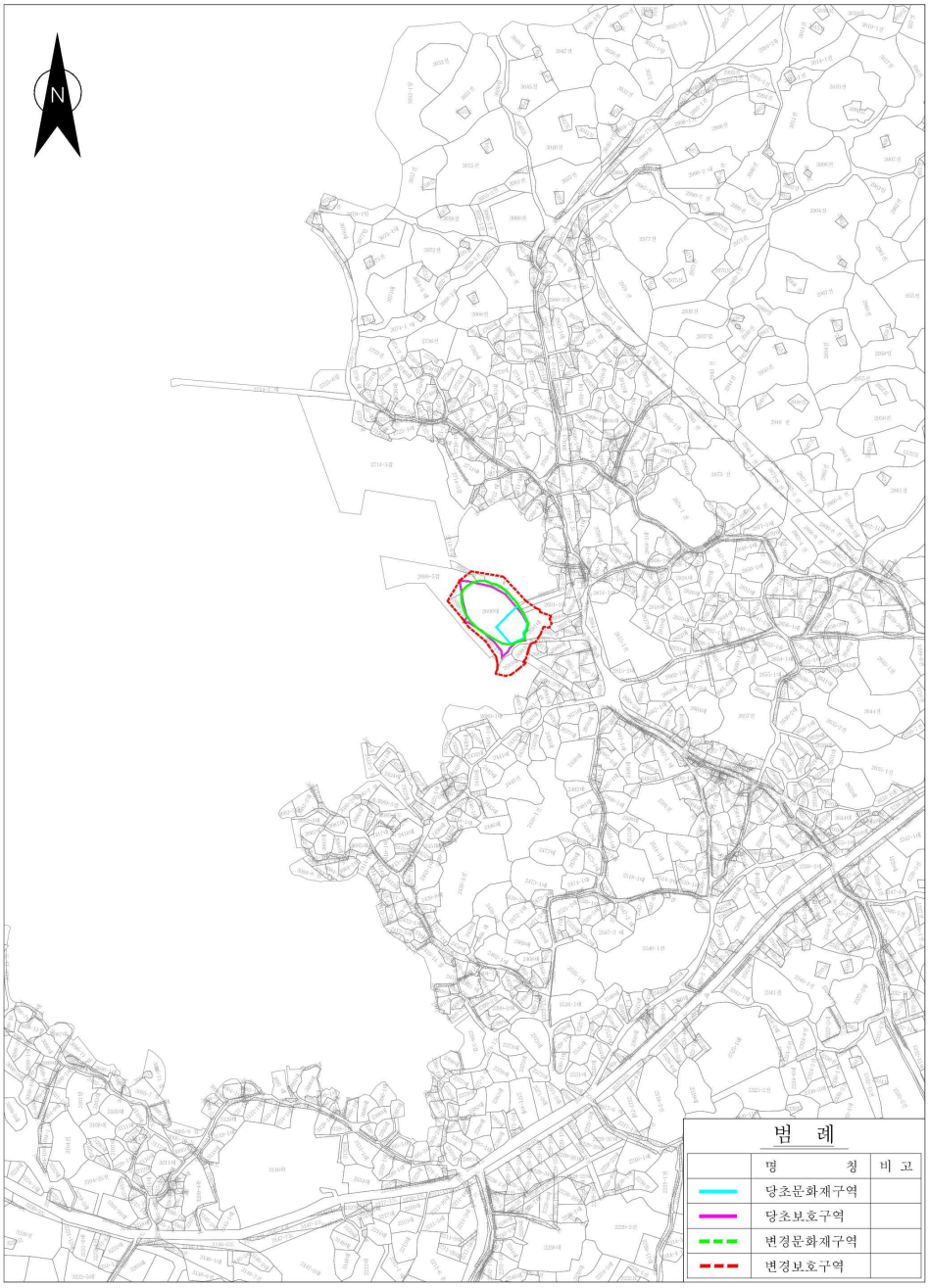


 - 150 -

조천진 및 연북정 현황측량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0번지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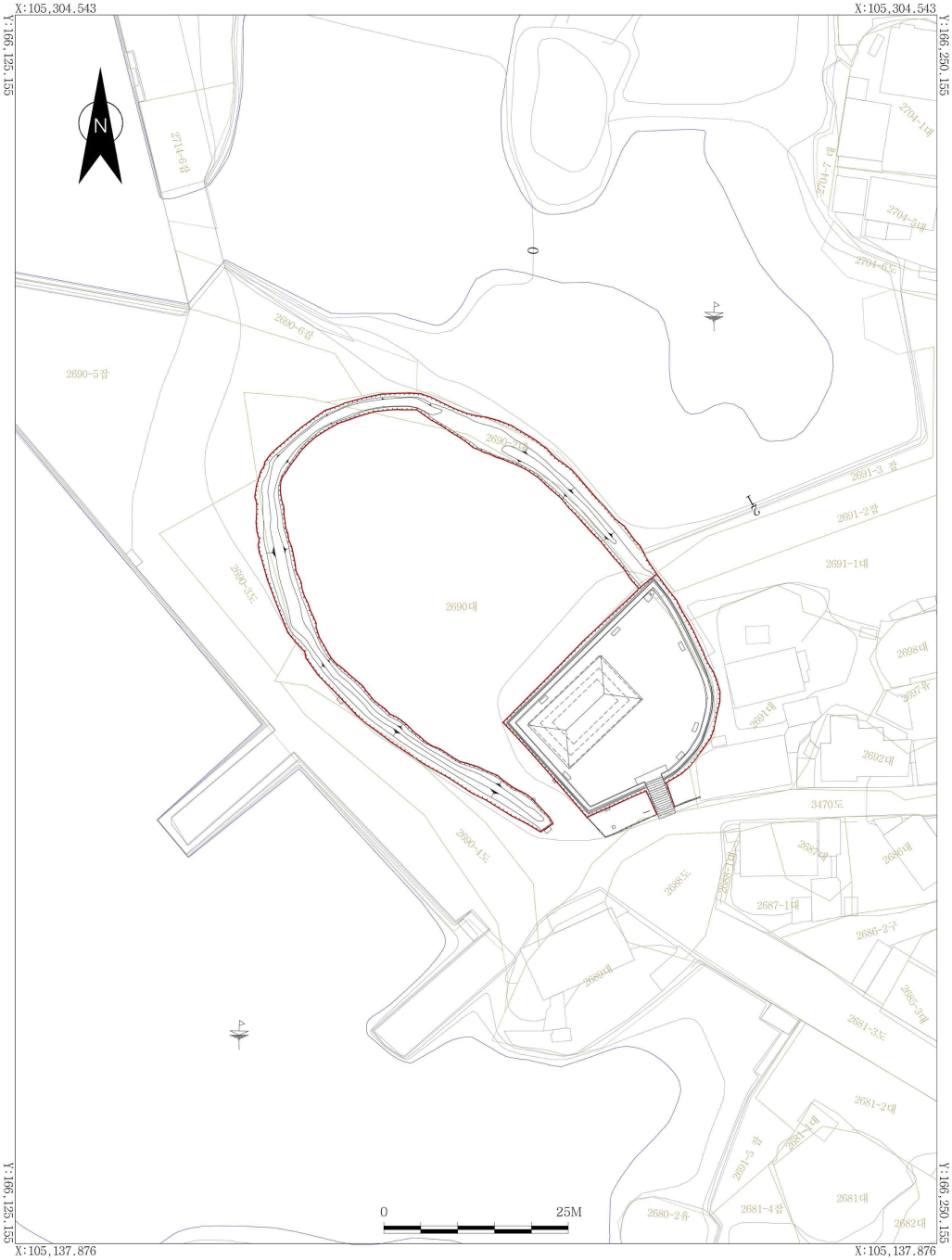
S = 1/5,000



- 151 -

문화재 발굴조사구역 현황 측량도

S=1/500



※ ①투영법:TM ②방위:도북 ③본 좌표는 GRS80(X:600,000 Y:200,000)좌표임.

제주 조천진성 발굴조사 산출내역서

(인건비 산출근거 : 문화재청공고 제2012-5호(2012.01.15)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여비산출근거 : 대통령령 제20152호(2009.04.30) 공무원여비규정)

구분 / 비목	금 액	산 출 내 역				
1. 직접인건비	68,716,140	**1) 현장조사**				34,672,056
		조사단장	287,355 ×	10.0 일× 1 인	=	2,873,550
		조사단장 주휴수당	574,710 ×	1 식	=	574,710
		책임조사원	221,604 ×	20.0 일× 1 인	=	4,432,080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886,416 ×	1 식	=	886,416
		조사원	194,097 ×	50.0 일× 1 인	=	9,704,850
		조사원 주휴수당	1,940,970 ×	1 식	=	1,940,970
		조사보조원	131,996 ×	50.0 일× 1 인	=	6,599,800
		조사보조원 주휴수당	1,319,960 ×	1 식	=	1,319,960
		보조원	105,662 ×	50.0 일× 1 인	=	5,283,100
		보조원 주휴수당	1,056,620 ×	1 식	=	1,056,620
		2) 정리 및 보고서작성작업				34,044,084
		조사단장	287,355 ×	8.0 일× 1 인	=	2,298,840
		조사단장 주휴수당	459,768 ×	1 식	=	459,768
		책임조사원	221,604 ×	25.0 일× 1 인	=	5,540,100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1,108,020 ×	1 식	=	1,108,020
		조사원	194,097 ×	50.0 일× 1 인	=	9,704,850
		조사원 주휴수당	1,940,970 ×	일 1 식	=	1,940,970
		조사보조원	131,996 ×	50.0 일× 1 인	=	6,599,800
		조사보조원 주휴수당	1,319,960 ×	1 식	=	1,319,960
		보조원	105,662 ×	40.0 일× 1 인	=	4,226,480
		보조원 주휴수당	845,296 ×	1 식	=	845,296
2. 직접경비	194,771,951	1) 여비				3,600,000
		조사단장	20,000 ×	10 일× 1 인	=	200,000
		책임조사원	20,000 ×	20 일× 1 인	=	400,000
		조사원	20,000 ×	50 일× 1 인	=	1,000,000
		조사보조원	20,000 ×	50 일× 1 인	=	1,000,000
		보조원	20,000 ×	50 일× 1 인	=	1,000,000
		2)현장운영비				120,291,220
		(1) 현장인부임				79,801,220
		보통인부	75,608 ×	50.0 일× 15 인	=	56,706,000
		보통인부 주휴수당	11,341,200 ×	1 식	=	11,341,200
		보통인부 4대보험료	68,047,200 ×	8.940 % 보험요율	=	6,083,420
		보통인부 퇴직적립금	68,047,200 ×	12 / 1 월	=	5,670,600
		(2)수송비(기자재포함)	400,000 ×	2 식	=	800,000
		(3)사무실 설치비	250,000 ×	4 식	=	1,000,000
		(4)수도광열비	50,000 ×	4 식	=	200,000
		(5)연료및 수선비	50,000 ×	4 식	=	200,000
		(6) 임차료				37,600,000
		덤프트럭(15톤)	380,000 ×	15 일× 4 대	=	22,800,000
		굴삭기(06)	460,000 ×	15 일 2 대	=	13,800,000
		사토장임차료	200,000 ×	5 월 1 식	=	1,000,000
		(7)주재비				
		(8)기타운영비				690,000
		통신 및 현장보안시설 운영비	×	식	=	0
		안내판 제작비	90,000 ×	1 식	=	90,000
		기타 안전관리시설물설치ㅂ	200,000 ×	2 식	=	400,000
		각종문구 등 소모품비	100,000 ×	2 식	=	200,000
		3) 조사재료비				2,000,000
		조사용품비	2,000,000 ×	1 식	=	2,000,000
		사진재료비	×	식	=	0
		지도구입비	×	식	=	0
		4) 위탁비				2,000,000
		유물분석 및 보존처리비	×	식	=	0
		현장자료 분석비	×	식	=	0
		항공촬영비	2,000,000 ×	1 회	=	2,000,000
		현황측량비	×	식	=	0
		유물 및 유구실측 용역비	×	식	=	0

		5) 유물정리비(현장조사 완료후)						6,500,000
		(1)정리용품비	500,000	×	1	식	=	500,000
		(2)보존처리약품비		×		식	=	0
		(3)유물상자및보관대설치비	1,000,000	×	1	식	=	1,000,000
		(4)유물분석및보존처리위탁비		×		식	=	0
		(5)임차료		×		식	=	
		(6)자연과학분석비	5,000,000	×	1	식	=	5,000,000
		(7)기타유물정리비		×		식	=	0
		6)정리 및 보고서작성인부임						47,880,732
		(1)특수인부	84,404	×		일× 인	=	0
		특수인부 주휴수당	0	×		1 식	=	0
		특수인부 4대보험료	0	×	8.940	% 보험요율	=	0
		특수인부 퇴직적립금	0	×	12 / 1	월	=	0
		(2)보통인부	75,608	×	30.0	일× 15 인	=	34,023,600
		보통인부 주휴수당	6,804,720	×		1 식	=	6,804,720
		보통인부 4대보험료	40,828,320	×	8.940	% 보험요율	=	3,650,052
		보통인부 퇴직적립금	40,828,320	×	12 / 1	월	=	3,402,360
		7) 보고서간행비						12,500,000
		(1)사진제작비		×	1	식	=	0
		(2)약보고서간행비	500,000	×	1	식	=	500,000
		(3)보고서인쇄비	10,000,000	×	1	식	=	10,000,000
		(4)보고서발송비	2,000,000	×	1	식	=	2,000,000
		(5)전산매제 제작비		×		식	=	0
		(6)자료수집비		×		식	=	0
3.제경비	68,716,140	(1-1)+(1-2)의 100-110%	68,716,140	×	100%		=	68,716,140
4.학술료	27,486,456	(1-1)+(1-2)+(3)의 20-30%	137,432,280	×	20%		=	27,486,456
5.소계	359,690,687	359,690,687						
6.부가가치세	35,969,069	[5의 10%]						
7. 총계	395,600,000	[만단위절사]						

<부록 4> 자문위원 검토 의견

○ 자문위원 : 정광중(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인문지리학박사)

▶조천진성의 중요한 역할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당시 주요 관문포구의 기능을 담당하는 조천포구와 주변 마을을 사수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주읍성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읍성을 방어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이다.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에서 조천진성의 입지적 특성이 드러난다.

▶ 조천진성은 제주도내의 다른 진성과 비교하면 비교적 작은 진성에 속하지만, 위치적 중요성에 근거하여 일찍이 조선 초기부터 방어의 요충지로 설진되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입지적 특성에서 주어진 제주읍성의 방어와 관포(官浦)로서의 기능유지 등과 관련된 특별한 임무는 다른 진성과는 크게 차별화되고 있었다.

▶ 연북정은 제주도내에서 조선시대의 여러 건물들 중 관덕정과 함께 매우 드문 정자 형태의 건물이다. 이 점은 건축학적으로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연북정은 규모면에서 관덕정보다는 작은 정자 건물이지만 쓰임새는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 연북정은 정자 형태의 건물이지만 제주도의 전통 주거 양식인 초가집의 칸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건물이다. 오늘날 확인되는 연북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 구조로 돼 있고, 바닥은 마루를 깔고 있다. 단지 지붕의 형태는 팔작지붕으로 육지부의 건물에 많이 나타나는 양식인 동시에 조선시대 관아건물에서 많이 취하는 양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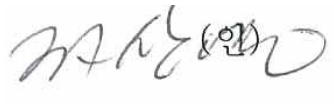
▶ 연북정은 심적(心的)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지방과 중앙, 즉 제주와 한양 사이를 연결하는 상징적 건물이라는 점이다. 연북정은 제주에 있는 신하(경우에 따라서는 유배인)가 한양에 있는 임금과 심적으로 소통하고 싶은 갈망과 소원을 표현하는 장소로, 또 국운의 성대와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연북정에 올라서서 그러한 기분을 느낄 수는 없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제주라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미있고 신성한 공간이었음에 틀림없다.

▶ 조천진성과 연북정은 역사지리적 측면에서 입지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조천진성이나 연북정은 단순히 문화재라는 차원을 떠나 현세대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역사자원이자 문화자원이다. 따라서 현세대의 입장에서는 조천진성과 연북정을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혹은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시대적 사명을 떠안고 있다.

한국사진지리학회 회장 · 인문지리학 박사 정광중

○ 자문위원 : 권상열(국립제주박물관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 본 용역의 목적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조천진 및 연북정에 대한 보존 및 활용방안 수립 등 크게 4가지로 되어 있다. 이러한 복원정비계획의 목적 달성과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전 주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역사성 부각과 문화자원 활용)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더불어 철거 대상 건물(사유지)에 대한 보상 및 매입 조치 등 본 계획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주변 환경정비 등 여건 조성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마을공동체 정신과 일체감 조성).
▶ 복원정비에 따른 제거 대상지(건물) 선정에 있어서는 조천진 및 연북정에 인접한 1구역을 중심으로 하되, 문화재 주변경관을 훼손하거나 가치를 저하시키는 매립지에 대한 일정 조치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복원범위 설정에 있어 특히 완충 연계 정비구역을 일률적으로 300~500m로 설정하는 것은 다수 주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원 제기 등에 따라 계획의 목표 달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좀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공간적 범위 조정 필요).
▶ 전통건축물에 대한 역사경관적 감상과 활용을 위해 바람직한 이격거리(앙각적용)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조천진성 및 연북정의 관광자원화, 주변 마을의 발전 및 지역 활성화와 관련한 접근 도로망은 가능한 한 옛 길을 살려 복원 정비하고 올레코스와 연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해안 경관을 해치는 해안도로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 연차적 단계별 추진계획의 수립에 있어 복원정비 대상지(1구역)에 대한 사유지 매입 및 건물철거 등에 대한 예산 확보가 1단계에 포함되어야 함.
▶ 조천진 및 연북정 내외부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를 가능한 한 조기에 완료하여 복원정비의 방향과 범위 설정 등 계획 수립의 근거와 타당성을 높이고, 나아가 동 사업추진의 동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시간적 범위 및 단계 조정 필요).
▶ 성벽 기초 유실부 발굴조사 등 시·발굴조사는 1단계에 완료하여 복원정비 설계시에 사전 반영되도록 함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주요 건축물의 복원 정비에 따른 소요 비용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라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권 상 열 

○ 자문위원 : 신석하(제주국제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교수, 도문화재위원, 공학박사)

▶ 각종 자료를 근거로 할 때 현재 연북정 계단의 위치는 잘못되었음으로 복원시 위치 변경하여 원래의 자리대로 복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연북정 입구 계단은 빠른 시일에 해체해야 한다.

▶ 연북정 및 조천진성에 대한 시굴조사와 발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발굴결과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1702년에 제작된『탐라순력도』'제주조점'을 참조하면 어느 정도의 복원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연북정의 지붕 형태는 팔작지붕 형태로 관아건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지만, 제주도의 전통주거 양식인 초가집의 칸 구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건물이다. 현존하는 연북정에 대한 정확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의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탐라순력도』'조천조점'(1702)에 나타난 그림처럼 조천진과 연북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래의 지형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매립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 보존과 활용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경관을 훼손하는 건축물을 제거하면 다소 넓은 공터로 남게 된다. 이 구역은 최소한의 주차장과 편의시설, 그리고 문화재 안내소 등이 설치된 공간으로 조성하고 작은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공간 안에 기존에 존재했던 용천수의 복원이 요구된다.

▶ 조천진성과 연북정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과 전략을 기초로 하여 조천진성과 연북정 종합정비계획, 문화재 활용방안을 연차적으로 추진함은 타당하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함에 있어 재원 확보 및 각 계획마다 구체적인 실시설계용역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 현재 문화재 지정은 연북정만을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 있고 조천진은 연북정 보호구역 중 일부로만 포함되어 있다. 장차 동일 위치에 소재한 유적간 연계성 확보 차원과 차별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조천진도 포함되어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 유적의 보존, 복원, 정비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의 동의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신 석 하 

<부록 5> 주민설명회의 내용과 의견 제시

1, 일 시 : 2012년 11월 28일 16시~18시

2. 장 소 : 조천읍사무소 회의실

3. 내 용 : 주민의견 제시

1) 각종 자료를 근거로 할 때 현재 연북정 계단의 위치는 잘못되었음으로 복원시 위치를 변경하여 원래의 자리에 복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연북정 입구 계단은 빠른 시일내에 해체해야 한다.
2) 현재 연북정에 들어가는 관문인 '이석정'이 없어졌음으로 차후 복원실시설계 용역에서는 이 내용을 복원계획에 넣어야 할 것이다.
3) 현재 마을 소유의 연북정 땅을 제주도 소유의 땅과 환지하거나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녹지 공간 내에 오래된 용천수들이 있었으므로 이 용천수들을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연북정 주변 지반이 침하 중이니 지반 진단 후 추후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6) 연북정 하나만을 염두에 두지 말고 제주도 전체 건물지의 연대를 파악하여 연북정의 연대와 비교해 주길 바란다.
7) 만세동산에서 연북정 도로를 잇는 해안도로 개설 및 관광자원 활용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8) 이 보고서가 제출된 후 용역보고서를 근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본 용역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9) 차후 조천진과 연북정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져 조천리의 발전방향도 같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0) 조천진 및 연북정 복원·정비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 실현 가능하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조천진 및 연북정
복원·정비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2012년 12월 20일 인쇄
2012년 12월 30일 발행

편집 · 발행 : 제주시 · (재) 제주고고학연구소

발간등록번호 79-6510000-000027-01

* 본 보고서에 실린 모든 내용의 지적재산권(양도)은
제주시에 있으며 임의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